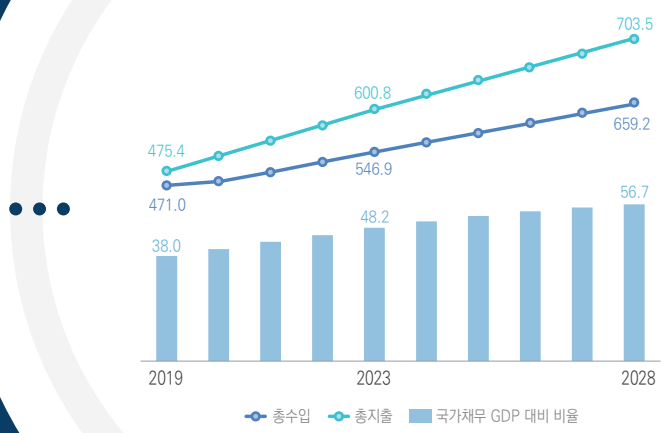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총 괄 I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 조정 I 최미희 조세분석심의관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심혜정 소득법인세분석과장
이영숙 재산소비세분석과장

한석현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김태규 행정비용추계과장

작성 · 추계 I 박연서 차병섭 이택균 윤주철
문지은 손명동 이은미 유희수
김진이 이미연 여은구

온세현 백경엽 태정림 박지원
신우리 김효경 박정환 심성택 김재혁

경제전망 I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황종률 이나경 오현희

지 원 I 유선주 이은영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은 국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788 - 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9. 10.

국회예산정책처
www.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9. 10. 1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지난 9월 3일 정부는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67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5개년 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재원배분 등을 포함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 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의무지출 증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기조절 등 국가경영의 핵심적 수단으로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운용 방향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10년간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망하였습니다. 재정전망 결과, 2028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6.7%에 이르고, 전망기간 이후 수년 내에 EU 재정준칙에 따른 국가채무 유지비율 6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전망 결과가 담긴 본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일러두기

1. GDP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경상GDP를 의미함
2.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추경 기준임
3. 각 표에서 "-"는 "0"을 포함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수를 의미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4.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각 그림의 2018년까지는 실적 기준의 금액 또는 수치임

차 례

요 약

Ⅰ.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개요 / 1

1. 재정전망의 의의 ····· 1
2. 재정전망 방식 ····· 3
   가. 개 요 ····· 3
   나. 항목별 전망 방법 ····· 3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 5
   가. 경제변수 ····· 5
   나. 인구변수 ····· 6
   다. 주요 정책 변화 및 가정 ····· 8

Ⅱ.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결과 / 15

1. NABO 재정전망 개요 ····· 15
   가. 재정전망 ····· 15
   나. 재정전망과 기준선 비교 ····· 16
2. 총수입 ····· 18
   가. 개 관 ····· 18
   나. 국세수입 ····· 20
   다. 국세외수입 ····· 29
3. 총지출 ····· 39
   가. 개 관 ····· 39
   나. 의무지출 ····· 42
   다. 재량지출 ····· 72

4. 재정수지 ····· 74
가. 개 관 ····· 74
나. 통합재정수지 ····· 74
다. 관리재정수지 ····· 76
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78
5. 국가채무 ····· 82
가. 개 관 ····· 82
나. 중앙정부 채무 ····· 84
다. 지방정부 순채무 ····· 85

Ⅲ.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 87

1.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87
2. NABO 재정전망과 비교 ····· 88
가. 개 관 ····· 88
나. 총수입 ····· 91
다. 총지출 ····· 93
라. 재정수지 ····· 112
마. 국가채무 ····· 116

부 록 / 119

표 차례

[표 1] 재정전망 개요 ····· 2
[표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 4
[표 3]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경제변수 ····· 6
[표 4]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 7
[표 5] 주요 정책변화: 총수입 부문 ····· 9
[표 6] 주요 정책변화: 총지출(의무지출) 부문 ····· 11
[표 7] 주요 가정: 총지출(재량지출) 부문 ····· 14
[표 8] 주요 가정: 국가채무 ····· 14
[표 9]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표 ····· 15
[표 1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정총량표 ····· 17
[표 11] 「NABO 재정전망」: 총수입 ····· 18
[표 1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 19
[표 13] 「NABO 재정전망」: 국세수입 ····· 21
[표 1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 23
[표 1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소득세 ····· 24
[표 1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법인세 ····· 25
[표 1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부가가치세 ····· 27
[표 1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세목 ····· 28
[표 19] 「NABO 재정전망」: 국세외수입(회계별) ····· 30
[표 20] 「NABO 재정전망」: 국세외수입(성질별) ····· 31
[표 2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회보장기여금 ····· 32
[표 2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기여금 ····· 33
[표 2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기여금 ····· 34
[표 2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고용보험기여금 ····· 35
[표 25]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기여금 ····· 36
[표 26]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연금기여금 ····· 38
[표 27] 「NABO 재정전망」: 총지출 ····· 39
[표 2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 40

[표 2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의무지출 ····· 42
[표 30] 「NABO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 45
[표 3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 46
[표 3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 ····· 47
[표 3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 ····· 48
[표 3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공무원연금 ····· 49
[표 35]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군인연금 ····· 50
[표 3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 ····· 51
[표 3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 53
[표 3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 ····· 54
[표 39]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 ····· 55
[표 4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 56
[표 4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 57
[표 4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영유아보육 ····· 59
[표 4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아동수당 ····· 60
[표 4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장애인연금 ····· 61
[표 45]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보훈 ····· 62
[표 4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심사형, 신규사업) ····· 64
[표 4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지방이전재원 ····· 66
[표 4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이자지출 ····· 68
[표 4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의무지출 ····· 69
[표 5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농업직불금 ····· 70
[표 5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신규사업) ····· 72
[표 5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량지출 ····· 73
[표 53] 「NABO 재정전망」: 재정수지 ····· 74
[표 5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 75
[표 5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 77
[표 56]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79
[표 57] 「NABO 재정전망」: 국민연금수지 ····· 80
[표 58] 「NABO 재정전망」: 사학연금수지 ····· 80
[표 59] 「NABO 재정전망」: 고용보험수지 ····· 81

[표 60] 「NABO 재정전망」: 산재보험수지 ····· 81
[표 61]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 82
[표 6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 83
[표 6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중앙정부 채무 ····· 85
[표 6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지방정부 순채무 ····· 86
[표 65]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 88
[표 6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성장률 ····· 89
[표 6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정총량표 ····· 90
[표 6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 92
[표 6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총수입 ····· 93
[표 7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 94
[표 7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의무지출 ····· 96
[표 7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97
[표 7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 99
[표 74]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타 복지분야 ··· 100
[표 7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연금 ····· 101
[표 7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아동수당 ····· 102
[표 7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공무원연금 급여 · 104
[표 7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복지분야 의무지출 104
[표 7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지방이전재원 ····· 107
[표 8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이자지출 ····· 108
[표 8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타 의무지출 ····· 108
[표 8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복지 외 의무지출 · 109
[표 8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량지출 ····· 110
[표 84]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총량(성질별) ····· 111
[표 8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재량지출 ····· 112
[표 8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통합재정수지 ····· 112
[표 8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 113
[표 8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 114
[표 8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115
[표 9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 117

그림 차례

[그림 1] 장래인구추계: 2014~2028년 ····· 8
[그림 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 20
[그림 3] 「NABO 재정전망」: 국세수입 주요 세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 · 22
[그림 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 23
[그림 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소득세 ····· 25
[그림 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법인세 ····· 26
[그림 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부가가치세 ····· 27
[그림 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세목 ····· 29
[그림 9]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세외수입 ····· 31
[그림 1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기여금 ····· 33
[그림 1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기여금 ····· 34
[그림 1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고용보험기여금 ····· 35
[그림 1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기여금 ····· 37
[그림 1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연금기여금 ····· 38
[그림 1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 41
[그림 16]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 41
[그림 1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의무지출 ····· 43
[그림 18]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 44
[그림 19] 「NABO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 46
[그림 2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 ····· 47
[그림 2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 ····· 48
[그림 2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공무원연금 ····· 49
[그림 2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군인연금 ····· 50
[그림 2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 ····· 52
[그림 2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 53
[그림 2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 ····· 54
[그림 27]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 ····· 55
[그림 2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 57

[그림 2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58
[그림 3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영유아보육 ·····59
[그림 3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아동수당 ·····60
[그림 3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장애인연금 ·····61
[그림 3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보훈 ·····62
[그림 34] 「NABO 재정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요건심사형, 신규사업) ·····64
[그림 3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지방이전재원 ·····67
[그림 3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이자지출 ·····68
[그림 3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의무지출 ·····69
[그림 3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농업직불금 ·····71
[그림 39] 「NABO 재정전망」: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신규사업) ·····72
[그림 4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량지출 ·····73
[그림 4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76
[그림 4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78
[그림 4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79
[그림 44]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1973~2028년 ·····83
[그림 4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84
[그림 46] 「NABO 재정전망」 지방정부 순채무 추이: 1998~2028년 ·····86
[그림 4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92
[그림 4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95
[그림 4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생활보장 ·····99
[그림 5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타 복지분야 · 100
[그림 5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연금 ·····102
[그림 5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아동수당 ·····103
[그림 5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공무원연금 급여104
[그림 54]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질별 재량지출 추이: 2014~2023년 ·····111
[그림 5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4
[그림 5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116
[그림 5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118

요 약

Ⅰ.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개요

1. 재정전망의 의의

❑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이하 NABO 재정전망)은 「2020년도 예산안」(이하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전망치

- ○ 정부 정책은 한 번 채택되면 국가재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현 시점에서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필요
- ○ NABO 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향후 10년간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의 변화를 추정

❑ NABO 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기간 5년(2019~2023년)보다 5년 더 확장한 10년(2019~2028년)을 전망기간으로 함

- ○ 정책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10년 기간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 제공

❑ NABO 재정전망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

- ○ (과거 추세와 비교) 장래 예상되는 재정영향을 과거 실적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 (기준선과 비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을 현행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NABO 기준선과 비교함으로써 정책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영향을 파악
  - – NABO 기준선은 2019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의 전망치
-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5개년 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정총량과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재정전망 개요

	NABO 기준선	NABO 재정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주체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전망기간	2019~2028년(10년)		2019~2023년(5년)
전망기준	2019년 현재 법·제도 등 정책 유지 가정	2020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 법·제도 등 정책 변화 반영 가정	
주요 전제 및 가정	○ 총수입 및 의무지출 – NABO 자체 경제지표 전망치 및 추계모형 사용 ○ 재량지출 증가율		–
보고서 목차	Part Ⅰ. NABO 재정전망 개요		–
	Part Ⅱ. NABO 재정전망 결과 NABO 재정전망 vs. NABO 기준선 비교(10년)		–
	–	Part Ⅲ.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NABO 재정전망 vs.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2. 재정전망 방식

❑ 총수입과 총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한 후, 전망기간 10년간 연도별 소요액을 각 항목별로 추계하여 합산

○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전망

–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으로 구성되고, 국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수입(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구성

– 각 세목별 전망에는 기본적으로 NABO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등 경제변수를 이용하고, 세부적으로는 과세대상자 수, 소득신고율, 실효세율 등 세목별 핵심변수에 대해 과거 추이 및 당해 연도 세수실적 등을 활용

– 2019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하여 반영

○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전망

– 의무지출은 복지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성

– 주요 의무지출은 NABO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경제변수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변수 및 각 사업별로 핵심이 되는 변수들로 구성된 자체 추계모형 이용하여 전망

- 재량지출의 경우 2019~2023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부계획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2024~2028년 기간은 재량지출 증가율이 일정 수준(2019년 본예산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 11.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하여 전망

-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의 합으로 산출

- 적자성 채무는 전년도의 적자성 채무에 당해 연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전망
- 다만, 적자성 국고채 증가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적자성 국고채 증가분의 비율을 반영하여 전망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경제 변수

❑ 경제변수는 NABO의 2019~2028년 거시경제 전망을 사용

「NABO 재정전망」: 주요 경제변수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평균
실질GDP성장률	2.0	2.3	2.5	2.4	2.4	2.2	2.2	2.1	2.1	2.1	2.2
경상GDP성장률	2.1	3.5	3.7	3.6	3.6	3.4	3.4	3.3	3.3	3.3	3.3
실업률	4.0	3.9	3.8	3.9	3.9	3.8	3.8	3.8	3.8	3.8	3.8
취업자 수 증가율	0.9	0.8	0.8	0.8	0.7	0.4	0.3	0.2	0.2	0.2	0.5
소비자물가상승률	0.6	1.3	1.4	1.4	1.4	1.5	1.5	1.5	1.5	1.5	1.4
국고채금리(3년 만기)	1.5	1.4	1.7	1.6	1.6	1.7	1.7	1.7	1.7	1.7	1.6
GDP디플레이터	0.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1

❑ 경상GDP성장률은 NABO 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19~2028년) 동안 평균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실질GDP성장률은 NABO 재정전망의 전망기간 동안 평균 2.2% 성장 전망

❑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9~2028년 기간 평균 0.5%(15.0만명)로 지난 2014~2018년 기간 평균 증가율 1.2%(30.5만명)에 비해 둔화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19년 4.0%로 상승한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소폭 하락하고 제조업자동화 진척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2024년 이후 3.8% 수준 유지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2028년 동안 평균 1.4% 수준으로 2019년의 저물가 상황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난 5년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등으로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 물가안정목표 수준 하회 전망

❑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19~2028년 동안 평균 1.6% 수준으로 2020년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1.4%로 전망

○ 2021년부터는 이전보다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물가가 다소 상승하면서 1.6~1.7% 수준이 되지만, 과거에 비해 낮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 상승에 그칠 전망

나. 인구 변수

❑ 인구변수는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실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중 2019~2028년 자료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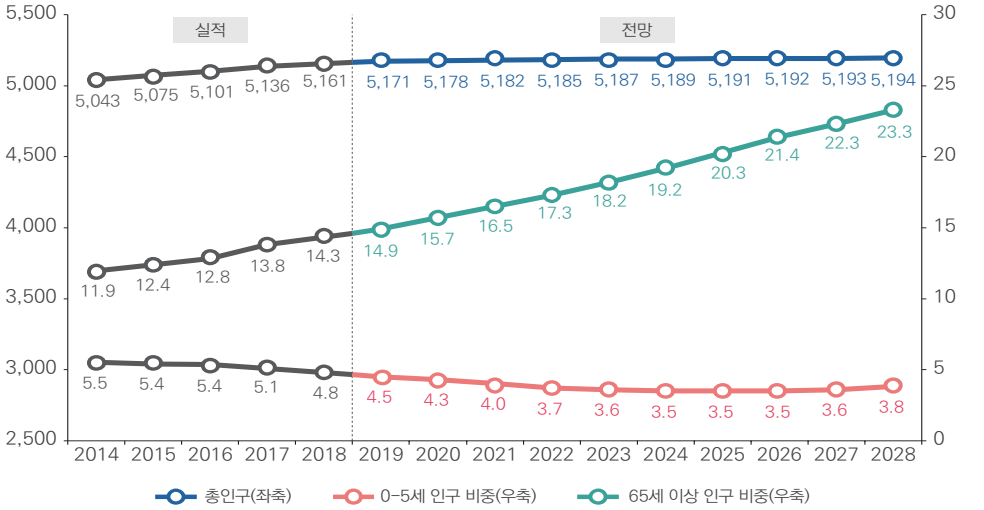
○ 통계청은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에 이어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최근의 저출산 추세 등을 반영하여 기존(2016년)의 5년 주기 장래인구추계를 앞당겨 2019년에 특별 인구 추계를 발표

❑ 총인구는 2019년 5,171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으로 23만명 증가

- ○ 0~5세 인구는 2019년 235만명(총인구 대비 4.5%)에서 2028년 195만명(총인구 대비 3.8%)으로 연평균 2.0% 감소 전망
- ○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37만명(총인구 대비 14.9%)에서 2028년 1,159만명(총인구 대비 23.3%)으로 연평균 5.2% 증가
- ○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 대비 20.3%가 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장래인구추계: 2014~2028년

(단위: 만명,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9.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주요 정책 변화

❑ 총수입 전망에 포함된 주요 정책변화는 모두 국세수입에 한정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주세 과세체계 개편 등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항목

- ○ 국세외수입의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2019년 10월 1일부터 1.3%에서 1.6%로 인상되었으나 이는 2019년 10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의 주요 정책변화에는 해당하지 않음

❑ 총지출 전망에 포함된 주요 정책변화는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부조 지원 확대, 신규추진 사업 등이 있음

○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

○ 공공부조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기준연금액 인상(25.4만원 → 30만원) 지급대상자 확대 등

○ 신규추진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공익형직불제 도입(현행 농업직불금 제도 개편)

○ 지방분권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45%까지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0.46%에서 20.79%로 상향 등

○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계획이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수준으로 NABO 재정전망에 반영

– 다만, 정부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공익형직불제에 해당하는 재정은 지출 성격 상 의무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NABO 재정전망에서는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량지출 금액으로 함

주요 정책변화: 총수입 부문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국세수입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5% → 21%)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 2/5/10%, 1년 한시)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인하(0.5% → 0.45%)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한도 2천만원) – 주세 과세체계 개편(맥주·탁주에 대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 노후 승용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70%) –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액공제 신설 – 신성장 기술관련 세액공제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몰 규정 – 일몰연장을 가정하여 산정 – 대표적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농수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주요 정책변화: 총지출(의무지출) 부문

주요 정책변화	
복지분야 의무지출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 월 상한액 인상(180만원 → 200만원)
건강보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계획 반영 – 건강보험료 인상률: (2020) 3.2%, (2021~2022) 3.49%, 2023 이후 3.2%씩 인상. 단,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인상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도개선 등 수급자 수 확대 –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44% → 45% (2019.7월 결정되어 기준선과 재정전망에 모두 반영됨)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인상 – 2020년에 소득하위 20~40% 노인을 대상으로 현행 25만 3,750원 → 30만원 인상 ○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변경 – 해당연도 4월~다음연도 3월 → 해당연도 1월~12월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액 인상 – 2020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인상(현행 25만 3,750원 ⇒ 30만원) – 2021년까지 기초급여 30만원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규)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규 도입(2020.7.)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 –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으며, 요건심사형만 의무지출에 해당) ※ 요건심사형: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만 18~64세 구직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 (18~34세,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

주요 정책변화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	○ 「2019년 세법개정안」 반영 ○ 지방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율 인상(20 → 45%) – 2020년도 예산안 반영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의결('19.9.23) 거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중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20.46 → 20.79%) – 법안 미제출, 2020년 예산 반영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2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반영 – 현행법은 2019년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개정안은 2022년까지 연장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2019.8.26.)
기타 의무지출	
농업직불금	○ 공익형직불제로 제도 개편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2019.9.9.) – 현행 직불금제도를 공익형직불제로 개정(기본형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분) ○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하였지만, 법률안의 내용은 의무지출이므로 의무지출로 분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사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의결(2019.9.24.) ○ 소요 재원: 일반회계 47.5%, 시·도교육청 47.5%, 일반지자체 5% ○ 2020년 고 2·3학년, 2021년부터 전학년 적용

Ⅱ.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결과

1. NABO 재정전망 개요

❑ 총수입은 2019년 471.0조원에서 2028년 659.2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 총지출은 2019년 475.4조원에서 2028년 703.5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

- ○ 의무지출은 2019년 239.8조원에서 2028년 390.2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9년 50.4%에서 2028년 55.5%로 증가
- ○ 재량지출은 2019년 235.6조원에서 2028년 313.4조원으로 연평균 3.2% 증가, 총지출에서 재량지출의 비중은 2018년 49.6%에서 44.5%로 감소

❑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45.7조원에서 2028년 −79.3조원으로 적자폭 증가, 국가채무는 2019년 734.8조원에서 2028년 1,490.6조원으로 증가

-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증가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3.8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24.7)	(24.8)	(24.9)	(25.0)	(25.1)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43.7	357.0	369.9	383.2	397.1	3.5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4.2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4.5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26.9)	(27.0)	(27.0)	(26.9)	(26.7)	
의무지출	239.8	255.2	269.6	287.6	301.5	318.4	338.4	356.3	374.1	390.2	5.6
(총지출 대비 비율)	(50.4)	(49.9)	(49.6)	(50.3)	(50.2)	(51.3)	(52.5)	(53.6)	(54.6)	(55.5)	
재량지출	235.6	256.6	274.5	283.9	299.3	302.6	305.8	308.6	311.1	313.4	3.2
(총지출 대비 비율)	(49.6)	(50.1)	(50.4)	(49.7)	(49.8)	(48.7)	(47.5)	(46.4)	(45.4)	(44.5)	
통합재정수지	−4.4	−34.7	−44.8	−47.6	−53.8	−51.4	−52.5	−51.0	−48.4	−44.3	
(GDP 대비 비율)	(−0.2)	(−1.7)	(−2.2)	(−2.2)	(−2.4)	(−2.2)	(−2.2)	(−2.1)	(−1.9)	(−1.7)	
관리재정수지	−45.7	−74.8	−84.3	−86.7	−94.3	−91.2	−88.9	−86.0	−82.3	−79.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4.0)	(−3.7)	(−3.5)	(−3.2)	(−3.0)	
국가채무	734.8	811.1	895.5	979.5	1,074.3	1,165.1	1,251.6	1,334.9	1,414.3	1,490.6	8.2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50.5)	(52.5)	(54.2)	(55.5)	(56.7)	

❑ 재정전망은 10년(2019~2028년) 간 기준선에 비해 총수입 54.6조원 하회, 총지출 259.1조원 상회 전망

❑ 기준선에 비해 재정전망의 수입은 낮고 지출은 높음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증가(10년간 총 313.7조원)하여, 국가채무는 기준선에 비해 2028년 293.5조원 많을 것으로 전망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3.8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24.7)	(24.8)	(24.9)	(25.0)	(25.1)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4.5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26.9)	(27.0)	(27.0)	(26.9)	(26.7)	
	통합재정수지	−4.4	−34.7	−44.8	−47.6	−53.8	−51.4	−52.5	−51.0	−48.4	−44.3	
	(GDP 대비 비율)	(−0.2)	(−1.7)	(−2.2)	(−2.2)	(−2.4)	(−2.2)	(−2.2)	(−2.1)	(−1.9)	(−1.7)	
	관리재정수지	−45.7	−74.8	−84.3	−86.7	−94.3	−91.2	−88.9	−86.0	−82.3	−79.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4.0)	(−3.7)	(−3.5)	(−3.2)	(−3.0)	
	국가채무	734.8	811.1	895.5	979.5	1,074.3	1,165.1	1,251.6	1,334.9	1,414.3	1,490.6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50.5)	(52.5)	(54.2)	(55.5)	(56.7)	
NABO 기준선 (B)	총수입	471.0	482.4	505.3	529.6	552.9	575.3	597.7	620.1	643.4	666.1	3.9
	(GDP 대비 비율)	(24.4)	(24.1)	(24.3)	(24.6)	(24.8)	(25.0)	(25.1)	(25.2)	(25.3)	(25.3)	
	총지출	475.4	489.5	511.1	536.8	560.3	584.6	612.4	638.3	664.9	690.0	4.2
	(GDP 대비 비율)	(24.6)	(24.5)	(24.6)	(24.9)	(25.1)	(25.4)	(25.7)	(25.9)	(26.1)	(26.2)	
	통합재정수지	−4.4	−7.1	−5.8	−7.1	−7.4	−9.3	−14.7	−18.2	−21.5	−23.9	
	(GDP 대비 비율)	(−0.2)	(−0.4)	(−0.3)	(−0.3)	(−0.3)	(−0.4)	(−0.6)	(−0.7)	(−0.8)	(−0.9)	
	관리재정수지	−45.7	−47.3	−45.3	−46.3	−47.9	−49.1	−51.1	−53.2	−55.3	−58.8	
	(GDP 대비 비율)	(−2.4)	(−2.4)	(−2.2)	(−2.2)	(−2.2)	(−2.1)	(−2.1)	(−2.2)	(−2.2)	(−2.2)	
	국가채무	734.8	788.2	837.8	884.3	933.5	984.1	1,034.5	1,086.5	1,140.2	1,197.1	5.6
	(GDP 대비 비율)	(38.0)	(39.4)	(40.4)	(41.1)	(41.9)	(42.7)	(43.4)	(44.1)	(44.8)	(45.5)	
차 이 (A-B)												합계
	총수입	0.0	−5.3	−6.0	−5.7	−6.0	−5.8	−6.0	−6.3	−6.7	−6.9	−54.6
	총지출	0.0	22.3	33.1	34.7	40.5	36.4	31.8	26.5	20.3	13.6	259.1
	통합재정수지	0.0	−27.6	−39.0	−40.4	−46.4	−42.1	−37.8	−32.9	−27.0	−20.5	−313.7
	관리재정수지	0.0	−27.6	−39.0	−40.4	−46.4	−42.1	−37.8	−32.9	−27.0	−20.5	−313.7
	국가채무	0.0	23.0	57.7	95.2	140.8	181.0	217.1	248.4	274.0	293.5	

2. 총수입

❑ 총수입은 2019년 471.0조원에서 2028년 659.2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

○ 국세수입은 2019년 290.6조원에서 2028년 397.1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 국세외수입은 2019년 180.4조원에서 2028년 262.1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 전망

○ 국세수입은 법인세와 자산관련 세수 증가세 둔화 전망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으로 직전 5년(2014~2018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9.3%와 비교하면 5.8%p 낮은 수준

「NABO 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19~'28	'14~'18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3.8	6.9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24.7)	(24.8)	(24.9)	(25.0)	(25.1)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43.7	357.0	369.9	383.2	397.1	3.5	9.3
(GDP 대비 비율)	(15.0)	(14.4)	(14.5)	(14.7)	(14.8)	(14.9)	(15.0)	(15.0)	(15.1)	(15.1)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4.2	3.2
(GDP 대비 비율)	(9.3)	(9.4)	(9.6)	(9.6)	(9.7)	(9.8)	(9.8)	(9.9)	(10.0)	(10.0)		

○ 항목별 GDP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019년 15.0%에서 2020년 14.4%로 낮아진 후 2028년 15.1%로 높아질 전망이고, 국세외수입은 2019년 9.3%에서 2028년 10.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2020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법인실적 둔화 등의 영향으로 14.4%로 0.6%p 낮아진 후 2025년 2019년 수준을 회복한 뒤 증가세 둔화 전망

– 국세외수입은 기여금의 가입자 증가, 임금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금의 기여금 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기준선 대비 약 54.6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은 기준선 대비 54.6조원 세수 감소 예상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주세 과세체계 개편 등 세법개정안의 세수감소효과 영향

○ 국세외수입은 재정전망과 기준선이 동일함

3. 총지출

❑ 총지출은 2019년 475.4조원에서 2028년 703.5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여 과거 5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증가율(5.7%)보다 1.2%p 낮은 수준

○ GDP 대비 총지출의 비율은 2019년 24.6%에서 2023년 27.0%로 높아진 뒤 2026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8년 26.7%까지 낮아질 전망

「NABO 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19~'28	'14~'18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4.5	5.7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26.9)	(27.0)	(27.0)	(26.9)	(26.7)		
의무지출	239.8	255.2	269.6	287.6	301.5	318.4	338.4	356.3	374.1	390.2	5.6	6.6
(GDP 대비 비율)	(12.4)	(12.8)	(13.0)	(13.4)	(13.5)	(13.8)	(14.2)	(14.5)	(14.7)	(14.8)		
재량지출	235.6	256.6	274.5	283.9	299.3	302.6	305.8	308.6	311.1	313.4	3.2	4.8
(GDP 대비 비율)	(12.2)	(12.8)	(13.2)	(13.2)	(13.4)	(13.1)	(12.8)	(12.5)	(12.2)	(11.9)		
총지출 대비 비중												
의무지출	(50.4)	(49.9)	(49.6)	(50.3)	(50.2)	(51.3)	(52.5)	(53.6)	(54.6)	(55.5)		
재량지출	(49.6)	(50.1)	(50.4)	(49.7)	(49.8)	(48.7)	(47.5)	(46.4)	(45.4)	(44.5)		

❑ 의무지출은 2019년 239.8조원에서 2028년 390.2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하여 2014~2018년간 의무지출 증가율(6.6%)에 비해 1.0%p 하회 전망

○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9년 50.4%에서 2028년 55.5%까지 증가

○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5.6%)은 특히 사회보험(6.6%), 공적연금(8.4%)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율(7.1%)이 높게 나타난 결과

❑ 총지출은 NABO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259.1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증가

○ 항목별로는 의무지출 80.1조원, 재량지출 179.0조원 증가

○ 의무지출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이후 복지정책 확대 영향

– 건강보험(22.9조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5.2조원)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인상(10.7조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0.7조원) 등

○ 재량지출 추가재정소요는 전망 가정 차이에서 발생

- 기준선: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11.9%, 2019년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 유지 가정
- 재정전망: 2019~2023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반영, 2024년 부터는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13.4%에서 11.9%(11.9%, 2019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까지 점진적 감소 가정

4.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4.4조원 적자(GDP 대비 −0.2%)에서 2023년 53.8조원 적자(GDP 대비 −2.4%)로 증가한 뒤, 2024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28년 44.3조원(GDP 대비 −1.7%) 적자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폭이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지속적 확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019년 41.3조원(GDP 대비 2.1%) → 2028년 35.0조원(GDP 대비 1.3%)

○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4.5%)이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3.8%)보다 높아,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통합재정수지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313.7조원 낮을 전망

○ 기준선과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전망기간 동안 총수입은 기준선 대비 총 54.6조원 감소하고, 총지출은 기준선 대비 총 259.1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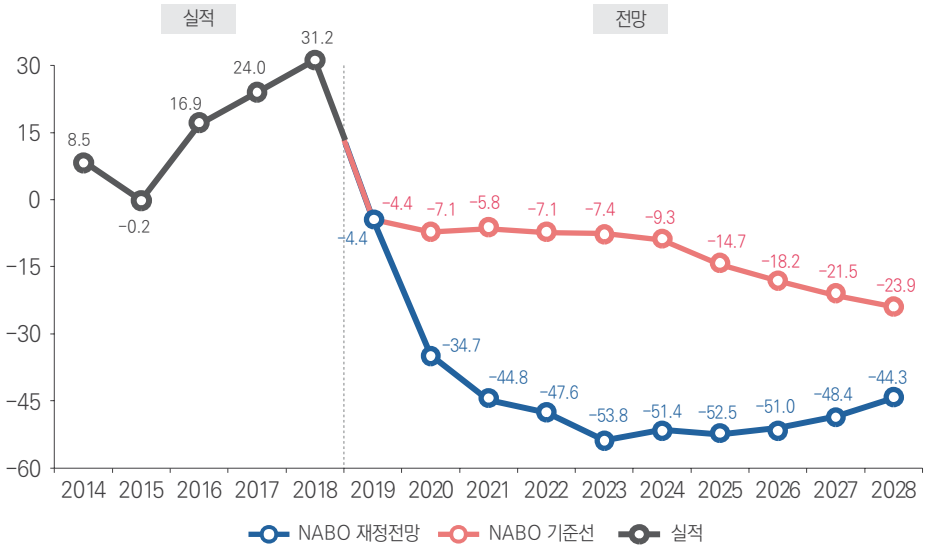
「NABO 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3.8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24.7)	(24.8)	(24.9)	(25.0)	(25.1)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4.5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26.9)	(27.0)	(27.0)	(26.9)	(26.7)	
통합재정수지	−4.4	−34.7	−44.8	−47.6	−53.8	−51.4	−52.5	−51.0	−48.4	−44.3	
(GDP 대비 비율)	(−0.2)	(−1.7)	(−2.2)	(−2.2)	(−2.4)	(−2.2)	(−2.2)	(−2.1)	(−1.9)	(−1.7)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1.3	40.2	39.5	39.1	40.5	39.8	36.4	35.0	33.8	35.0	
(GDP 대비 비율)	(2.1)	(2.0)	(1.9)	(1.8)	(1.8)	(1.7)	(1.5)	(1.4)	(1.3)	(1.3)	
관리재정수지	−45.7	−74.8	−84.3	−86.7	−94.3	−91.2	−88.9	−86.0	−82.3	−79.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4.0)	(−3.7)	(−3.5)	(−3.2)	(−3.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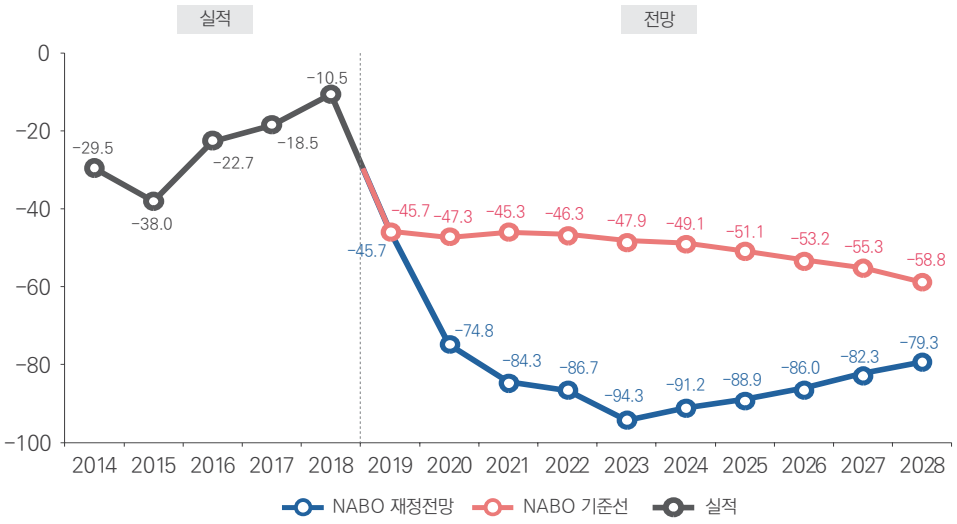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45.7조원(GDP 대비 −2.4%)에서 2028년 −79.3조원(GDP 대비 −3.0%)으로 적자폭 증가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3.7%)보다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4.0%)이 높기 때문

○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 간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는 2020년 −27.6조원에서 2023년 −46.4조원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2028년 −20.5조원으로 감소 전망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019년 41.3조원(GDP 대비 2.1%) 흑자에서 2028년 35.0조원(GDP 대비 1.3%) 흑자로 감소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4.1%)보다 지출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7.6%)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지의 흑자폭 역시 감소 전망

○ 국민연금의 경우, 수지가 2019년 41.0조원 흑자에서 2028년 31.3조원 흑자로, 지출이 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흑자폭 감소 전망

○ 고용보험의 경우, 수지가 2019년 −1.7조원 적자에서 2023년 0.6조원으로 흑자로 전환된 뒤, 2028년 1.4조원으로 흑자 지속될 전망

–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1.3→1.6%)에 따라 보험료 수입 증가한 것이 주요인

5.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19년 734.8조원(GDP 대비 38.0%)에서 2028년 1,490.6조원(GDP 대비 56.7%)으로 연평균 8.2% 증가 전망

○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5년(2014~2018년) 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6.3%)에 비해 1.9%p 높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전망

○ 국가채무 중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9년 29.7조원(GDP 대비 1.5%)에서 2028년 49.2조원(GDP 대비 1.9%)으로 연평균 5.8% 증가 전망

– 국세 및 지방세 증가세 둔화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수 감소 예상

–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등)이 2020년부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할 경우(2019~2023년 4.2조 전망, 국토부 추정치) 지방채무 증가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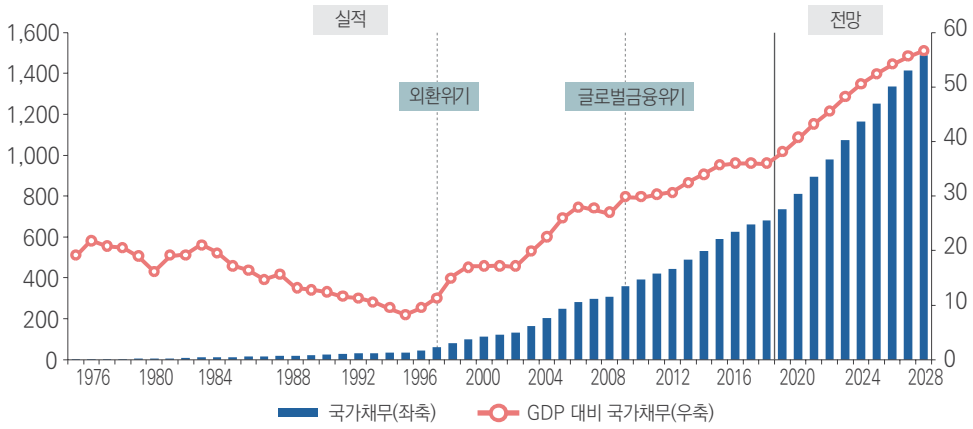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19~'28	'14~'18
국가채무	734.8	811.1	895.5	979.5	1,074.3	1,165.1	1,251.6	1,334.9	1,414.3	1,490.6	8.2	6.3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50.5)	(52.5)	(54.2)	(55.5)	(56.7)		
중앙정부	705.1	779.1	860.8	942.3	1,034.3	1,123.3	1,207.9	1,289.4	1,366.9	1,441.4	8.3	6.7
(GDP 대비 비율)	(36.5)	(38.9)	(41.5)	(43.8)	(46.4)	(48.7)	(50.6)	(52.3)	(53.7)	(54.8)		
- 적자성 채무	388.9	450.1	521.3	596.7	683.8	765.9	846.1	923.5	997.3	1,068.3	11.9	8.1
(GDP 대비 비율)	(20.1)	(22.5)	(25.1)	(27.7)	(30.7)	(33.2)	(35.5)	(37.5)	(39.2)	(40.6)		
- 금융성 채무	316.2	329.0	339.5	345.6	350.5	357.4	361.8	365.9	369.6	373.0	1.9	5.1
(GDP 대비 비율)	(16.4)	(16.4)	(16.4)	(16.1)	(15.7)	(15.5)	(15.2)	(14.8)	(14.5)	(14.2)		
지방정부 순채무	29.7	32.0	34.7	37.2	40.0	41.8	43.7	45.5	47.4	49.2	5.8	−1.2
(GDP 대비 비율)	(1.5)	(1.6)	(1.7)	(1.7)	(1.8)	(1.8)	(1.8)	(1.8)	(1.9)	(1.9)		

❑ 국가채무 규모는 2015~2018년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약 36%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전망기간(2019~2028년) 동안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빠른 증가 예상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1973~20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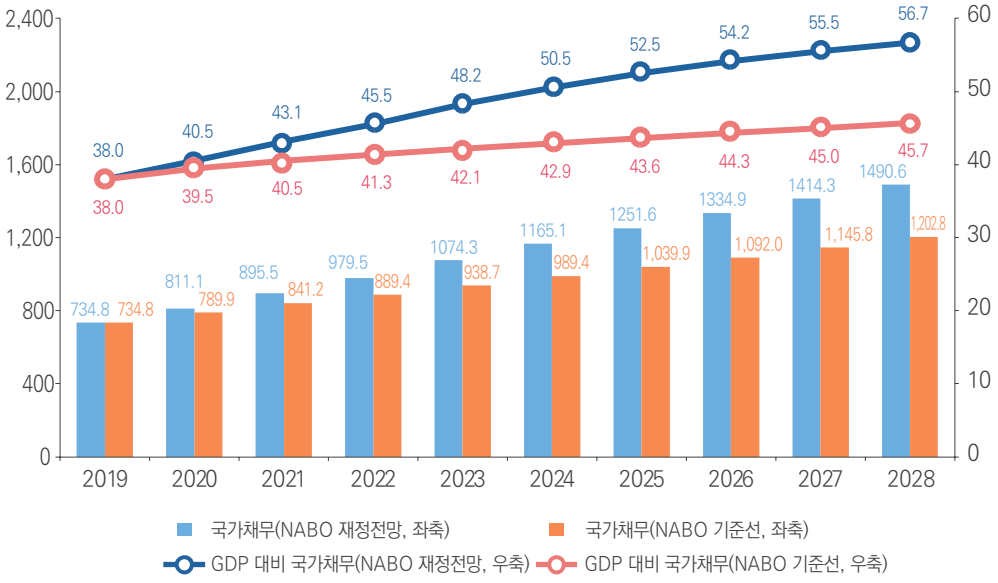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NABO 재정전망의 국가채무는 기준선에 비해, 2020년(21.3조원)부터 점차 그 차이가 누적되어 2028년 287.8조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기준선과 비교하면, 2028년에는 기준선(45.7%)보다 11.0%p 높은 56.7%까지 커질 전망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Ⅲ.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1.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총수입은 2019년 476.4조원(GDP 대비 24.2%)에서 2023년 554.5조원(GDP 대비 24.2%)으로 연평균 3.9% 증가 전망

○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종 중심의 법인 실적 둔화 및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으로 연평균 3.4% 증가,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의 증가 영향으로 연평균 4.7% 증가

❑ 총지출은 2019년 475.4조원(GDP 대비 24.2%)에서 2023년 604.0조원(GDP 대비 26.4%)으로 연평균 6.2% 증가 전망

○ 지난 계획(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7.3%(2019년 본예산 6.5% 기준)를 0.8%p 하회

○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계획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지난 계획(6.7%)에 비해 0.2%p 높은 6.9%로 계획함에 따라 재량지출 규모는 지난 계획에 비해 커짐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총수입	476.1	476.4	482.0	505.6	529.2	554.5	3.9	3.9
(전년 대비 증가율)	(6.5)	(6.5)	(1.2)	(4.9)	(4.7)	(4.8)		
총지출	469.6	475.4	513.5	546.8	575.3	604.0	6.5	6.2
(전년 대비 증가율)	(8.5)	(9.9)	(8.0)	(6.5)	(5.2)	(5.0)		
통합재정수지	6.5	1.0	−31.5	−41.3	−46.1	−49.6		
(GDP 대비 비율)	(0.3)	(0.05)	(−1.6)	(−2.0)	(−2.1)	(−2.2)		
관리재정수지	−37.6	−42.3	−72.1	−81.8	−85.6	−90.2		
(GDP 대비 비율)	(−1.9)	(−2.2)	(−3.6)	(−3.9)	(−3.9)	(−3.9)		
국가채무	740.8	731.5	805.5	887.6	970.6	1,061.4	9.4	9.8
(GDP 대비 비율)	(37.1)	(37.2)	(39.8)	(42.1)	(44.2)	(46.4)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

❑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42.3조원(GDP 대비 −2.2%)에서 2023년 −90.2조원(GDP 대비 −3.9%)으로 적자폭 증가

○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GDP 대비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

❑ 국가채무는 2019년 731.5조원(GDP 대비 37.2%)에서 2023년 1,061.4조원(GDP 대비 46.4%)으로 연평균 9.8% 증가 전망

2. 「NABO 재정전망」과 비교

가. 총수입

❑ NABO 총수입 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연도별로 4.7~7.5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5년 합계 29.2조원 하회 전망

○ NABO 재정전망 항목별로 국세수입은 정부보다 5년 합계 21.4조원이 낮고, 국세외수입 역시 정부보다 5년 합계 7.8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 정부와 NABO 간 차이의 주요 원인은 2019년 국세수입을 NABO가 정부보다 5.3조원 낮게 전망한 것과 거시경제 전망 차이 등에 기인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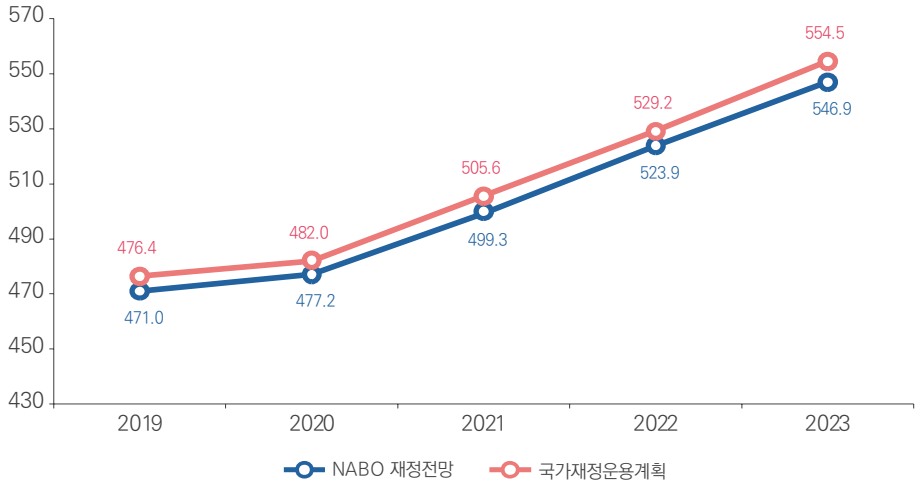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3.8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3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4.7
	국세탄성치	−0.48	−0.18	1.15	1.43	1.20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수입	476.4	482.0	505.6	529.2	554.5	3.9
	국세수입	294.8	292.0	304.9	320.5	336.5	3.4
	국세외수입	181.6	189.9	200.6	208.6	218.0	4.7
	국세탄성치	0.14	−0.25	1.08	1.25	1.21	
차 이 (A−B)							합계
	총수입	−5.3	−4.7	−6.3	−5.3	−7.5	−29.2
	국세수입	−4.2	−3.3	−3.9	−3.9	−6.2	−21.4
	국세외수입	−1.2	−1.5	−2.4	−1.4	−1.3	−7.8
	국세탄성치	−0.6	0.1	0.1	0.2	0.0	

주: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전망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주: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전망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총지출

❑ NABO 총지출 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연도별로 1.6~3.8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5년(2019~2023년) 간 총 11.4조원 하회 전망

- ○ 정부가 전망한 총지출은 2019년 475.4원에서 2023년 604.0조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전망인 반면, NABO 전망은 2019년 475.4조원에서 2023년 600.8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 전망
- ○ 의무지출에서 NABO 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가율(6.0%)보다 0.1%p 낮은 5.9% 증가 전망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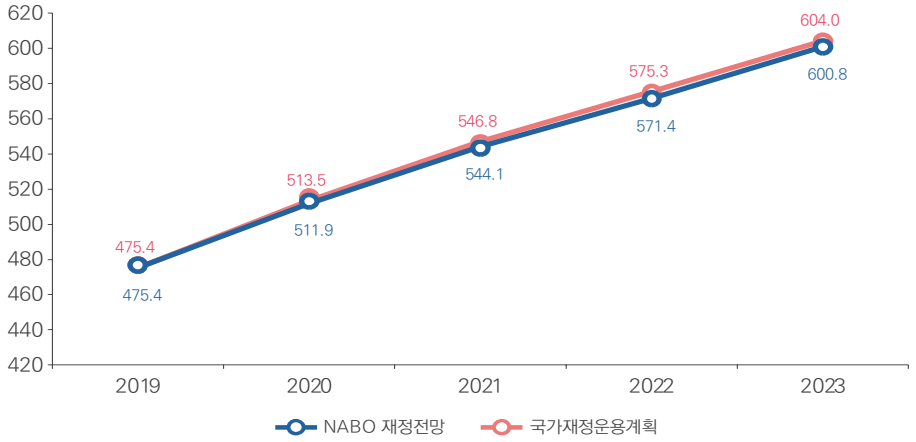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0
	의무지출	239.8	255.2	269.6	287.6	301.5	5.9
	재량지출	235.6	256.6	274.5	283.9	299.3	6.2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지출	475.4	513.5	546.8	575.3	604.0	6.2
	의무지출	239.8	255.6	270.7	289.5	302.8	6.0
	재량지출	235.6	257.8	276.1	285.8	301.3	6.3
							합계
차 이 (A-B)	총지출	0.0	−1.6	−2.7	−3.8	−3.2	−11.4
	의무지출	0.0	−0.4	−1.1	−1.9	−1.3	−4.7
	재량지출	0.0	−1.2	−1.6	−1.9	−2.0	−6.7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연도별로 −3.5~0.7조원 차이가 발생하며, 5년(2019~2023년) 간 총 5.4조원 낮을 전망

○ 정부전망 상회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0.7조원), 기타 복지분야(2.7조원) 등

- 원인은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모형 차이와 2020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요건심사형)를 NABO는 기타 복지분야 의무지출로 분류(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

○ 정부전망 하회 항목은 공무원연금(−6.1조원), 기초연금(−2.3조원), 영유아보육(−1.0조원), 아동수당(−1.2조원) 등

-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 차이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 여부

❑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간 총 4.8조원 하회 전망

○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결정하는 내국세, 담뱃값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NABO와 정부 간 전망액 차이에서 지방이전재원 차이 발생

○ 지방이전재원의 정산으로 인한 차이 발생

- NABO는 2019년 세수 전망액과 예산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방이전재원 정산액(−1.0조원)을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에 모두 정산한다고 가정

❑ 재량지출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간 총 6.7조원 하회 전망

○ NABO는 2019~2023년간 재량지출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과 동일하다고 가정

-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익형직불제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를 NABO는 의무지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지출에서 동액만큼 차이 발생

다. 재정수지

❑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통합재정수지 차이는 2019년 −5.3조원, 2020년 −3.2조원, 2021년 −3.6조원, 2022년 −1.5조원, 2023년 −4.3조원으로 나타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 1.0조원(GDP 대비 0.05%) 흑자에서 2023년 49.6조원(GDP 대비 −2.2%) 적자로 전환 전망

○ NABO 재정전망은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 4.4조원(GDP 대비 −0.2%) 적자에서 2023년 53.8조원(GDP 대비 −2.4%) 적자로 적자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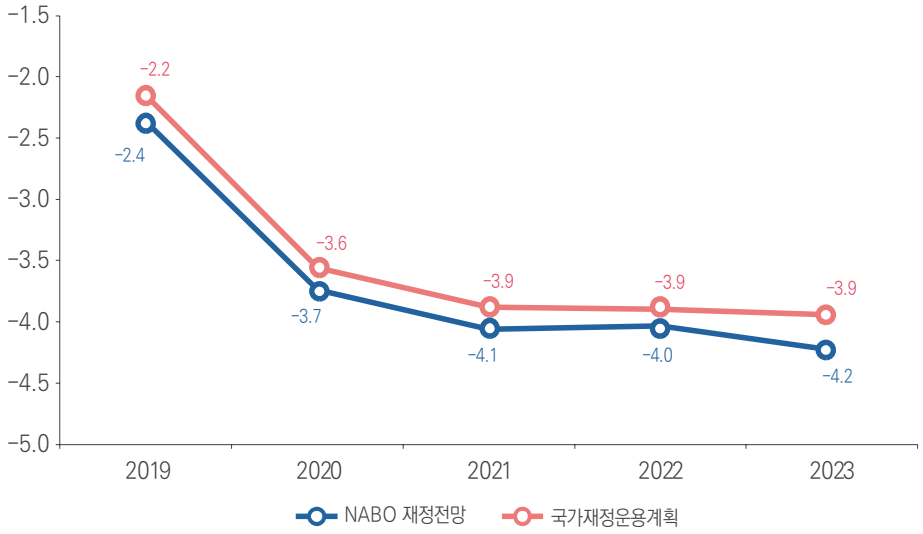
❑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는 5년간 총 −13.8조원으로 NABO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적자폭이 클 것으로 전망

○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45.7조원(GDP 대비 −2.4%) 적자에서 2023년 94.3조원(GDP 대비 −4.2%) 적자로 적자폭 확대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NABO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큰 이유는 NABO의 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제외)이 5년간 총 13.6조원 낮은 데 반해, 총수입(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제외)은 5년간 총 27.4조원 낮기 때문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단위: %)



주: 1. 관리재정수지 산출에 적용된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전망치, 총지출은 추경예산 기준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2019년 추경예산 기준임

2.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NABO의 자체 전망치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정부의 전망치임. NABO의 경상GDP금액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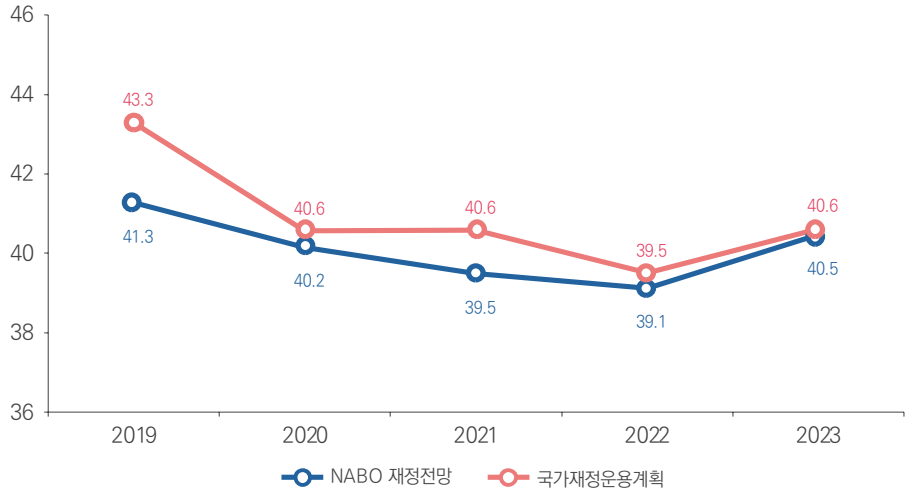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NABO 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 규모가 2019년 −2.0조원에서 2023년 −0.2조원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그 차이도 점차 감소할 전망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산출에 적용된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전망치,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은 추경예산 기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9년 수입 및 지출은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국가채무

❑ 국가채무는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2019~2023년) 간 총 38.7조원 높을 전망

○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국가채무 차이는 2019년 3.3조원에서 2023년 12.9조원으로 확대

– 관리재정수지 적자 금액 차이의 연도별 누적치 만큼 국가채무 차이 발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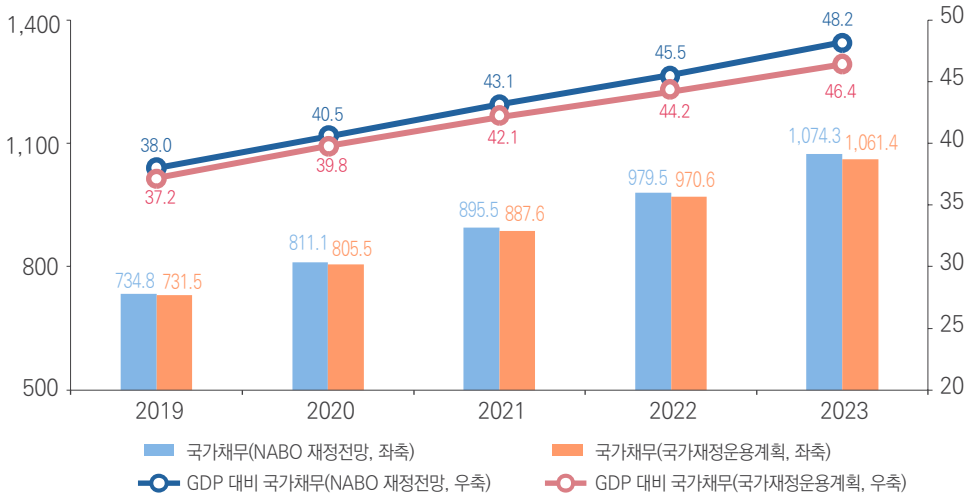
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2023년 국가채무 차이 12.9조원은 2019~2023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금액 차이 −13.8조원의 약 93% 수준이다. 이는 국가채무 전망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관리재정수지의 일부(86~98.5%)에 대해 일반회계 적자성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측면에서도 NABO 재정전망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8.0%, 2023년 48.2%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매년 0.8~1.8%p 높을 것으로 전망

○ NABO의 경상GDP전망액이 정부에 비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할 경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차이는 전망기간동안 0.2~0.6%p 차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주: 1.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국가채무는 2019년 말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에 NABO와 정부의 총수입 전망치 차이에서 발생하는 관리재정수지 차이 반영하여 전망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9년은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
3.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NABO의 자체 전망치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정부 전망치임. NABO의 경상GDP금액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Ⅰ.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개요

1. 재정전망의 의의

지난 9월 3일 정부는 사회 ·고용안전망 확충,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생활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 등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이하 예산안) 및 향후 5개년 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재원배분계획을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정부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2004년 최초로 시작한 이후 2006년부터 「국가재정법」 제정과 함께 국회제출이 의무화 되었다.[1] 이와 같이 정부재정의 재원배분에 있어서 중기적 시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일단 새롭게 도입되거나 제도 개선으로 인해 증가한 재정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장래 재정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NABO는 이와 같은 취지를 살려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의 변화를 전망한다.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이하 NABO 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들의 변화를 전망[2]한다.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기간은 5개년이지만, NABO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10년(2019~2028년)으로 한다. 새로운 재정정책의 영향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등으로 인한 재정변화를 좀 더 확장된 기간 동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1)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
2) 전망은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가정 하에 예상되는 최선의 결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의 최선의 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향후 경제상황이나 정책변화 등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NABO 재정전망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비교 분석한다.

첫째, NABO 재정전망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특히, 최근 5년간(2014~2018년)의 실적과 비교 분석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반영 이후의 재정변화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NABO 재정전망과 2019년 현재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전망치인 NABO 기준선[3]을 비교하여, 2020년 이후 새롭게 반영되는 제도와 정책으로 인한 재정지표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간 재원배분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5개년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NABO 재정전망과 비교 분석한다.

[표 1] 재정전망 개요

<table>
<tr><th></th><th>NABO 기준선</th><th>NABO 재정전망</th><th>국가재정운용계획</th></tr>
<tr><td>전망주체</td><td colspan="2">국회예산정책처</td><td>정부</td></tr>
<tr><td>전망기간</td><td colspan="2">2019~2028년(10년)</td><td>2019~2023년(5년)</td></tr>
<tr><td>전망기준</td><td>2019년 현재 법·제도 등
정책 유지 가정</td><td colspan="2">2020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 법·제도 등 정책 변화 반영 가정</td></tr>
<tr><td>주요가정</td><td colspan="2">○ 총수입 및 의무지출
– NABO 자체 경제지표 전망치 및 추계모형 사용
○ 재량지출 증가율</td><td>–</td></tr>
<tr><td rowspan="3">보고서
목차</td><td colspan="2">Part Ⅰ. NABO 재정전망 개요</td><td>–</td></tr>
<tr><td colspan="2">Part Ⅱ. NABO 재정전망 결과
NABO 재정전망 vs. NABO 기준선 비교(10년)</td><td>–</td></tr>
<tr><td>–</td><td colspan="2">Part Ⅲ.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NABO 재정전망 vs. 국가재정운용계획(5년)</td></tr>
</table>

3) NABO 기준선은 현행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한 전망치를 의미한다. NABO 기준선은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측정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 등 미래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재정전망 방식

가. 개 요

NABO 재정전망은 정부가 추진하는 현행 정책은 물론, 예산안에 반영된 것과 같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확충, 혁신성장 투자,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지출 정책과 세제개편안에 따른 수입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장래 예상되는 재정변화를 전망한다.

즉, 2020년도 예산안,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될 것을 가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각 항목별로 10년간의 소요비용을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을 전망하게 된다. 단,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거시경제 변화가 다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피드백 효과)는 재정전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NABO 기준선은 전망 시점인 2019년에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정책과 제도가 향후 10년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따라서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은 재정전망에 반영된 새로운 정책과 제도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망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NABO 기준선은 NABO 재정전망에 반영된 정책 및 세법개정안의 재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비교 기준이므로, NABO 재정전망의 결과는 전망에 따른 재정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NABO 기준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나. 항목별 전망 방법

(1) 총수입

총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4]을 기초로,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추계한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국세수입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 등으로 구분하고, 국세외수입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 고용보

4)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2019.9.)

험기금(이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수수료 · 요금 · 비산업적 판매, 벌금 및 몰수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등의 중앙정부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자본수입, 융자회수, 기업특별회계수입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한다.

각 세목별 전망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고, 세부적으로는 과세대상자 수, 소득신고율, 실효세율, 소비세율 등 세목별 핵심변수에 대하여 과거 추이 및 당해 연도 세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2) 총지출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한다. 의무지출은 법률에서 지출요건 및 규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목별로 추계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망한다. 각 의무지출 항목은 인구변수,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 등이 반영된 각각의 추계모형을 통해 전망한다.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달리, 법률에 지출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지출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의무지출처럼 각 항목별 전망 방식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망기간이 동일한 2019~2023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과 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24년 이후 기간은 재량지출이 GDP 대비 일정비율을 보인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5)]

[표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의무지출	재량지출
근거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3
지출 발생요인	정부의 지출의무가 명시된 재정수반법률	사업추진 근거법 등
지출 규모	법령에 의해 결정	국회심의에 의해 결정
예산 변경방법	재정수반법령의 제·개정(입법과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규모 조정
예산안 심사관점	편성규모의 정확성 등	정책(사업)과 규모의 타당성 등

자료: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2018.

5) 구체적인 재량지출 전망 가정은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 다. 주요 정책 변화– (2)총지출 – (나)재량지출'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6]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을 통해 균형수지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때 적용하는 경상GDP성장률은 NABO가 전망한 수치를 사용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다시 구분되는데,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분과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으로 구성되고,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과 서민주거 안전용 등으로 구성된다. 적자성 채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고채 발행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금융성 채무는 각 구성 채권별 발행 및 상환 계획 및 과거 추세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용하여 2019~2023년간은 정부안과 동일하지만, 이후는 동 기간 동안의 지방정부 순채무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경제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2019~2028년 거시경제 전망[7]을 사용한다.

실질GDP성장률은 2019~2028년 기간 평균 2.2%, 경상GDP성장률은 같은 기간 평균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GDP의 평균 성장률 2.2%는 이전 5년(2014~2018년) 간의 3.0%에 비해 0.8%p 낮은 것으로서, 건설투자 침체 속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6)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되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가 본격화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보험료수입이 계속 누적되어 큰 폭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를 양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관리재정수지를 정부 재정건전성의 척도로 적용하고 있다.

7) NABO는 매년 발표하는 5년 전망(「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10년으로 확장하여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였으며, 이를 동 보고서에 사용하였다.

[표 3]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경제변수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평균
실질GDP성장률	2.0	2.3	2.5	2.4	2.4	2.2	2.2	2.1	2.1	2.1	2.2
경상GDP성장률	2.1	3.5	3.7	3.6	3.6	3.4	3.4	3.3	3.3	3.3	3.3
실업률	4.0	3.9	3.8	3.9	3.9	3.8	3.8	3.8	3.8	3.8	3.8
취업자 수 증가율	0.9	0.8	0.8	0.8	0.7	0.4	0.3	0.2	0.2	0.2	0.5
소비자물가상승률	0.6	1.3	1.4	1.4	1.4	1.5	1.5	1.5	1.5	1.5	1.4
국고채금리(3년 만기)	1.5	1.4	1.7	1.6	1.6	1.7	1.7	1.7	1.7	1.7	1.6
GDP디플레이터	0.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1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9~2028년 평균 0.5%(15.0만명)로서, 지난 2014~2018년 1.2%(30.5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의 둔화 및 노동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완만히 상승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2019년 4.0%로 상승한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소폭 하락하고 제조업 자동화 진척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2024년 이후 3.8%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2028년 평균 1.4% 수준으로 2019년의 저물가 상황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5년(2014~2018년)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등으로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또한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상승세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9~2028년 기간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평균 1.6%로 2020년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1.4%로 전망된다. 2021년부터는 이전보다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물가가 다소 상승하면서 1.6~1.7% 수준이 되지만, 과거에 비해 낮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나. 인구변수

통계청은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에 이어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최근의 저출산 추세 등을 반영하여 기존(2016년)의 5년 주기 장래인구추계를

앞당겨 2019년에 특별 인구 추계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재정전망의 인구변수는 통계청이 새롭게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적용한다.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총 인구 수는 2019년 5,171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으로 23만명이 증가하지만, 총 인구 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2021년부터는 총 인구 수 증가율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출생아를 포함한 0~5세 영유아 수가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1만명(합계출산율 0.94명)에서 2021년 29만명(합계출산율 0.86명)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8년 36만명(합계출산율 1.11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0~5세 영유아 수는 2019년 235만명에서 2028년 195만명으로 연평균 2.0% 감소할 전망이다. 0~5세 영유아수가 감소함에 따라 총인구 대비 0~5세 영유아수 비중도 2019년 4.5%에서 2028년 3.8%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37만명에서 2028년 1,159만명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인데, 이와 같은 65세 이상 인구(노인)의 빠른 증가세에 따라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도 2019년 14.9%에서 2028년 23.3%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25년에 이르면 노인인구 비중이 20.3%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8]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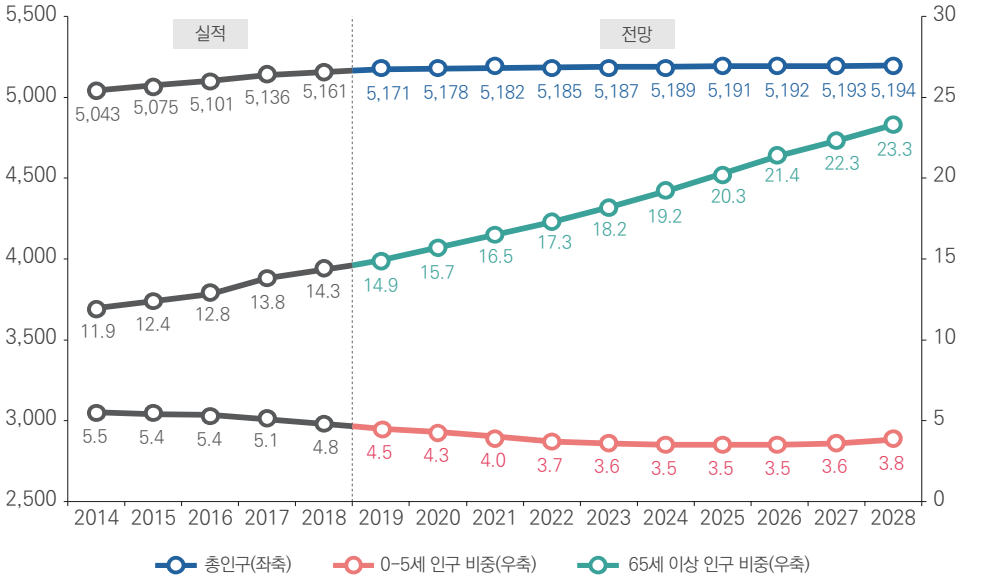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총 인구 수(만명)	5,171	5,178	5,182	5,185	5,187	5,189	5,191	5,192	5,193	5,194
총 인구 증가율(%)	0.20	0.14	0.08	0.05	0.04	0.04	0.03	0.03	0.02	0.02
출생아 수(만명)	31	29	29	30	31	32	34	35	36	36
합계출산율(명)	0.94	0.90	0.86	0.90	0.93	0.97	1.00	1.04	1.08	1.11
출생률(인구천명당%)	6.0	5.6	5.6	5.8	6.0	6.2	6.5	6.7	6.9	6.9
0~5세 인구 수(만명)	235	222	207	193	184	181	181	184	189	195
0~5세인구비중(%)	4.5	4.3	4.0	3.7	3.6	3.5	3.5	3.5	3.6	3.8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737	768	813	854	897	945	994	1,051	1,111	1,159
65세이상인구비중(%)	14.9	15.7	16.5	17.3	18.2	19.2	20.3	21.4	22.3	23.3
사망자 수(만명)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사망률(인구천명당%)	6.1	6.2	6.4	6.6	6.8	7.0	7.2	7.4	7.5	7.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9.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8) UN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 한다.

[그림 1] 장래인구추계: 2014~2028년

(단위: 만명,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9.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주요 정책 변화 및 가정

NABO 재정전망은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은 물론,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세법개정안 등 총수입과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들이 모두 시행될 것으로 가정하고 전망한다.

(1) 총수입

총수입 중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화로는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주세 과세체계 개편, 승용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등이 있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2019년 10월 1일부터 1.3%에서 1.6%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는 2019년 10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NABO 기준선과 재정전망에 모두 반영하여 전망되기 때문에 주요 정책 변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표 5] 주요 정책변화: 총수입 부문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국세수입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5% → 21%)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 → 2/5/10%, 1년 한시)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인하(0.5% → 0.45%)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한도 2천만원) – 주세 과세체계 개편(맥주 ·탁주에 대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 노후 승용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70%)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세액공제 신설 – 신성장 기술관련 세액공제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몰 규정 – 일몰연장을 가정하여 산정 – 대표적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농수산물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2) 총지출

정부는 일자리 확충, 혁신성장 투자,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을 2020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가)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크게 복지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로 분류된다. 의무지출 중 복지분야에서 2020년 이후 정책변화가 있는 항목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이 있고, 신규 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9].

9)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통합·보완하므로 "계속사업"으로 분류한다. 실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대상 중 저소득층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의 대상 일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동 사업들의 2020년도 예산안도 조정되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3.)에 동 제도가 "신설" 또는 "신규 도입"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2019.9.16.), 기존 사업과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요건심사형은 의무지출 성격을 가진 사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분류한다.

사회보험 분야의 주요 정책 변화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월 상한액 인상, 건강보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이 있다. 공공부조 분야의 주요 정책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의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기준연금액 인상(25.4만원→30만원) 및 지급대상자 확대, 기준연금액 적용기간을 매년 4월에서 다음연도 3월까지에서 매년 1월에서 12월로 변경,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인상(25.4만원→30만원) 및 지급대상자 확대 등이 있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신규 추진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2020년 7월 시행 계획[10]으로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본 전망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중 요건심사형은 의무지출로 분류하고 선발형은 재량지출로 분류한다.[11]

의무지출 중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14]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의 정책변화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책변화는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되어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율을 현행 20.46%에서 20.79%로 상향하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현행법은 2019년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이지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2022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2019.8.26.)되었고,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22년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

---

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2019.9.16.)

11)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전액을 재량지출로 분류하였지만, 법률안 등의 내용을 분석하면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은 의무지출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NABO 재정전망은 요건심사형만 의무지출로 분류한다.

12) 현행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의 해당하는 금액(보통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액 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이다.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2016년까지는 내국세 총액의 20.27%(2019년 20.46%)와 교육세 전액으로 하였으나 교육세의 경우 2017년부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년 한시) 전입액(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원으로 한다.

1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2019년까지) 특별회계로서, 2017년은 누리과정 예산의 78%를 교육세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2%를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2018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기타 의무지출의 정책변화는 신규 사업으로 앞서 언급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있고, 기존 정책을 제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익형직불제가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소요 비용의 47.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공익형직불제는 현행 농업직불금제도(쌀소득보전고정, 쌀소득보전변동, 조건불리밭작물, 경영이양, 경관보전, 친환경농업)를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개편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6] 주요 정책변화: 총지출(의무지출) 부문

주요 정책변화	
복지분야 의무지출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 월 상한액 인상(180만원 → 200만원)
건강보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계획 반영 – 건강보험료 인상률: (2020) 3.2%, (2021~2022) 3.49%, 2023 이후 3.2%씩 인상. 단,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인상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도개선 등 수급자 수 확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44 → 45% (2019.7월 결정되어 기준선과 재정전망에 모두 반영됨)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인상 – 2020년에 소득하위 20~40% 노인을 대상으로 현행 25만 3,750원 → 30만원 인상 ○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변경 – 해당연도 4월~다음연도 3월 → 해당연도 1월~12월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액 인상 – 2020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인상(현행 25만 3,750원 → 30만원) – 2021년까지 기초급여 30만원으로 확대

주요 정책변화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규)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규 도입(2020.7.)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 –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으며, 요건심사형만 의무지출에 해당) ※ 요건심사형: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만 18~64세 구직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 (18~34세,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	○「2019년 세법개정안」 반영 ○ 지방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율 인상(20 → 45%) – 2020년도 예산안 반영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의결('19.9.23) 거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중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20.46 → 20.79%) – 법안 미제출, 2020년도 예산안 반영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2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반영 – 현행법은 2019년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개정안은 2022년까지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의결(2019.8.26.)
기타 의무지출	
농업직불금	○ 공익형직불제도 개편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2019.9.9.) – 현행 직불금제도를 공익형직불제로 개정(기본형과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분) ○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하였지만, NABO는 법률안의 내용이 의무적 지출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의무지출로 분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사업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의결(2019.9.24.) ○ 소요 재원: 일반회계 47.5%, 시·도교육청 47.5%, 일반지자체 5% ○ 2020년부터 고2, 3학년 ·2021년부터 전학년 적용

(나)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지출의 성격상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NABO 재정전망은 재량지출의 항목별 추계를 하지 않고 2019~2023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량지출 배분계획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15] 2024~2028년은 현 시점에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2023년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6.3%로 2014~2018년 연평균 증가율(4.8%)을 상회하는 비항구적인 확장정책임을 고려하여 전망 후반부인 2024년 이후는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2024~2028년의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3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 13.4%가 매년 점진적 감소하여 2019년 수준인 11.9%(2019년 본예산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한편, NABO 기준선에서는 2019년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11.9%)이 2020~2028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다.

[표 7] 주요 가정: 총지출(재량지출) 부문

항 목	주요 가정
재량지출	○ NABO 재정전망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다만, 정부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와 공익형직불제는 의무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재량지출 총액에서 차감한 이후 금액을 재량지출 금액으로 반영 – 2024~2028년: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금액의 GDP 대비 비율 13.4%에서 매년 비율이 감소(0.3%p)하여 2028년 11.9%(2019년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 금액의 GDP 대비 비율)로 수렴 가정 ○ NABO 기준선 – 2019년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 금액의 GDP 대비 비율 11.9%가 2020~2028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15) 2019~2023년 동안 NABO 재정전망의 재량지출 전망금액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다만,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민취업지원제도(요건심사형)와 공익형직불제를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NABO는 동 항목들을 의무지출로 보아 재량지출 금액에서 차감하여 전망한다.

(3) 국가채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으로 구성된다. 적자성 채무(일반회계 적자보전)는 해당연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증가분을 의미하는데, 2019~2023년간의 적자성 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고채 증가분의 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이후 2024~2028년간의 적자성 채무는 2014~2018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고채 증가분의 관계(결산 기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표 8] 주요 가정: 국가채무

항 목	주요 가정
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 2019~2023년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산출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국채 증가분의 비율(국채 증가분/관리재정수지 적자) 적용 – 2019년 86.0%, 2020년 83.5%,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 98.5% ○ 2024~2028년 – 2014~2018년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국채 증가분의 비율(국채 증가분/관리재정수지 적자) 94.9% 적용

Ⅱ.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결과

1. NABO 재정전망 개요

가. 재정전망

NABO 재정전망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것을 가정하여 향후 10년(2019~2028년) 간 재정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NABO 재정전망의 결과를 보여주는 재정총량표에 따르면, 총수입은 2019년 471.0조원에서 2028년 659.2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하고, 총지출은 2019년 475.4조원에서 2028년 703.5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2019년 239.8조원에서 2028년 390.2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하고,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은 50.4%(2019년)에서 55.5%(2028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3.8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24.7)	(24.8)	(24.9)	(25.0)	(25.1)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43.7	357.0	369.9	383.2	397.1	3.5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4.2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4.5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26.9)	(27.0)	(27.0)	(26.9)	(26.7)	
의무지출	239.8	255.2	269.6	287.6	301.5	318.4	338.4	356.3	374.1	390.2	5.6
(총지출 대비 비율)	(50.4)	(49.9)	(49.6)	(50.3)	(50.2)	(51.3)	(52.5)	(53.6)	(54.6)	(55.5)	
재량지출	235.6	256.6	274.5	283.9	299.3	302.6	305.8	308.6	311.1	313.4	3.2
(총지출 대비 비율)	(49.6)	(50.1)	(50.4)	(49.7)	(49.8)	(48.7)	(47.5)	(46.4)	(45.4)	(44.5)	
통합재정수지	−4.4	−34.7	−44.8	−47.6	−53.8	−51.4	−52.5	−51.0	−48.4	−44.3	
(GDP 대비 비율)	(−0.2)	(−1.7)	(−2.2)	(−2.2)	(−2.4)	(−2.2)	(−2.2)	(−2.1)	(−1.9)	(−1.7)	
관리재정수지	−45.7	−74.8	−84.3	−86.7	−94.3	−91.2	−88.9	−86.0	−82.3	−79.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4.0)	(−3.7)	(−3.5)	(−3.2)	(−3.0)	
국가채무	734.8	811.1	895.5	979.5	1,074.3	1,165.1	1,251.6	1,334.9	1,414.3	1,490.6	8.2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50.5)	(52.5)	(54.2)	(55.5)	(56.7)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45.7조원에서 2023년 −94.3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8년 −79.3조원으로 적자폭이 감소되고, 국가채무는 2019년 734.8조원에서 2028년 1,490.6조원으로 증가하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38.0%(2019년)에서 56.7%(2028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나. 재정전망과 기준선 비교

NABO 재정전망 결과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재정소요액인 NABO 기준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NABO 기준선은 전망 시점인 2019년에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정책과 제도가 향후 10년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전망하는 것이다. 기준선은 미래의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변화로 인한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비교기준으로 활용된다.

즉,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의 차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전망액과 2019년의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전망액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차이는 예산안 등에 반영된 정책변화로 인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이다.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을 비교한 결과, 총수입은 재정전망이 기준선에 비해 2019~2028년간 매년 5~7조원 하회하면서 총 54.6조원 낮을 전망이다. 총지출은 재정전망이 기준선에 비해 향후 10년간 259.1조원 높을 전망이다. 재정전망 수입액이 기준선보다 낮고, 재정전망 지출액은 기준선보다 높음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차이의 누적액이 10년간 313.7조원이 되어 국가채무는 기준선에 비해 293.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NABO 재정전망의 항목별 결과 및 기준선과의 비교는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의 순서로 설명한다.

[표 1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3.8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24.7)	(24.8)	(24.9)	(25.0)	(25.1)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4.5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26.9)	(27.0)	(27.0)	(26.9)	(26.7)	
	통합재정수지	−4.4	−34.7	−44.8	−47.6	−53.8	−51.4	−52.5	−51.0	−48.4	−44.3	
	(GDP 대비 비율)	(−0.2)	(−1.7)	(−2.2)	(−2.2)	(−2.4)	(−2.2)	(−2.2)	(−2.1)	(−1.9)	(−1.7)	
	관리재정수지	−45.7	−74.8	−84.3	−86.7	−94.3	−91.2	−88.9	−86.0	−82.3	−79.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4.0)	(−3.7)	(−3.5)	(−3.2)	(−3.0)	
	국가채무	734.8	811.1	895.5	979.5	1,074.3	1,165.1	1,251.6	1,334.9	1,414.3	1,490.6	8.2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50.5)	(52.5)	(54.2)	(55.5)	(56.7)	
NABO 기준선 (B)	총수입	471.0	482.4	505.3	529.6	552.9	575.3	597.7	620.1	643.4	666.1	3.9
	(GDP 대비 비율)	(24.4)	(24.1)	(24.3)	(24.6)	(24.8)	(25.0)	(25.1)	(25.2)	(25.3)	(25.3)	
	총지출	475.4	489.5	511.1	536.8	560.3	584.6	612.4	638.3	664.9	690.0	4.2
	(GDP 대비 비율)	(24.6)	(24.5)	(24.6)	(24.9)	(25.1)	(25.4)	(25.7)	(25.9)	(26.1)	(26.2)	
	통합재정수지	−4.4	−7.1	−5.8	−7.1	−7.4	−9.3	−14.7	−18.2	−21.5	−23.9	
	(GDP 대비 비율)	(−0.2)	(−0.4)	(−0.3)	(−0.3)	(−0.3)	(−0.4)	(−0.6)	(−0.7)	(−0.8)	(−0.9)	
	관리재정수지	−45.7	−47.3	−45.3	−46.3	−47.9	−49.1	−51.1	−53.2	−55.3	−58.8	
	(GDP 대비 비율)	(−2.4)	(−2.4)	(−2.2)	(−2.2)	(−2.2)	(−2.1)	(−2.1)	(−2.2)	(−2.2)	(−2.2)	
	국가채무	734.8	788.2	837.8	884.3	933.5	984.1	1,034.5	1,086.5	1,140.2	1,197.1	5.6
	(GDP 대비 비율)	(38.0)	(39.4)	(40.4)	(41.1)	(41.9)	(42.7)	(43.4)	(44.1)	(44.8)	(45.5)	
												합계
차 이 (A−B)	총수입	0.0	−5.3	−6.0	−5.7	−6.0	−5.8	−6.0	−6.3	−6.7	−6.9	−54.6
	총지출	0.0	22.3	33.1	34.7	40.5	36.4	31.8	26.5	20.3	13.6	259.1
	통합재정수지	0.0	−27.6	−39.0	−40.4	−46.4	−42.1	−37.8	−32.9	−27.0	−20.5	−313.7
	관리재정수지	0.0	−27.6	−39.0	−40.4	−46.4	−42.1	−37.8	−32.9	−27.0	−20.5	−313.7
	국가채무	0.0	23.0	57.7	95.2	140.8	181.0	217.1	248.4	274.0	293.5	

2. 총수입

가. 개 관

NABO 재정전망에 따른 총수입은 2019년 471.0조원에서 2028년 659.2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8년간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3.8%)은 과거 5년(2014~2018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6.9%)과 비교하면 3.1%p 낮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연평균 3.5% 증가하지만, 국세외수입은 그보다 높은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NABO 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19~'28	'14~'18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3.8	6.9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24.7)	(24.8)	(24.9)	(25.0)	(25.1)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43.7	357.0	369.9	383.2	397.1	3.5	9.3
(GDP 대비 비율)	(15.0)	(14.4)	(14.5)	(14.7)	(14.8)	(14.9)	(15.0)	(15.0)	(15.1)	(15.1)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4.2	3.2
(GDP 대비 비율)	(9.3)	(9.4)	(9.6)	(9.6)	(9.7)	(9.8)	(9.8)	(9.9)	(10.0)	(10.0)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24.4%에서 2020~2022년까지는 23.8~24.3%로 2019년 수준을 하회하다가 2023년은 24.5%로 2019년 수준을 상회한 뒤 점점 증가하여 2028년 25.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항목별로 GDP 대비 비율을 분석하면, 국세수입은 2019년 15.0%에서 2020~2024년까지는 14.4~14.9%로 2019년 수준을 하회하다가 2025년은 15.0%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한 뒤 점점 증가하여 2028년 15.1%에 도달할 전망이다. 반면, 국세외수입은 2019년 9.3%에서 2028년 10.0%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행 세제 등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NABO 기준선의 경우 2019년 471.0조원에서 2028년 666.1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NABO 기준선의 총수입보다 매년 5.3~6.9조원, 10년(2019~2028년) 간

54.6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세외수입은 재정전망과 기준선에 차이가 없지만, 국세수입은 NABO 재정전망이 기준선에 비해 낮게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보면, NABO 기준선의 국세수입은 2019~2028년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법개정안의 정책변화를 반영한 NABO 재정전망은 0.2%p 낮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선 대비 10년(2019~2028년) 간 총 54.6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16] 반영에 따른 것으로서, 특히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현행 15%에서 21%로 인상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NABO 기준선의 국세외수입은 NABO 재정전망과 동일한 2019~2028년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이다.

[표 1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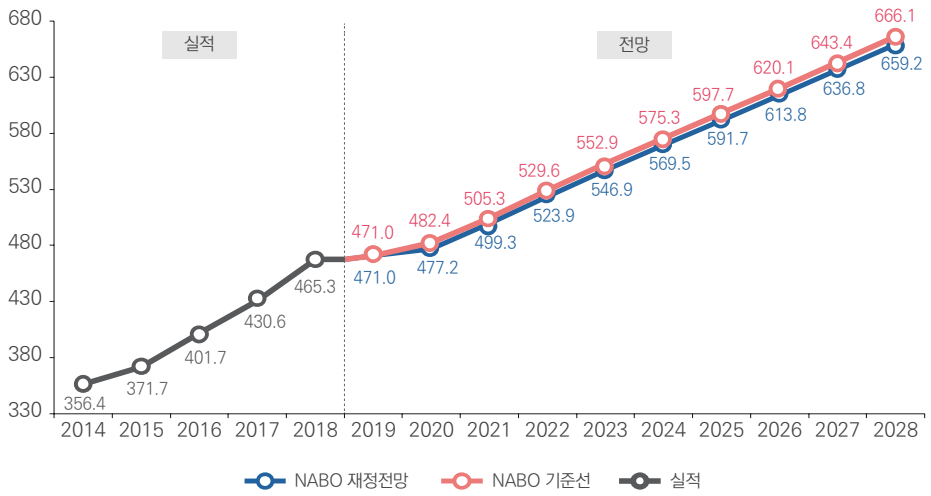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3.8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24.7)	(24.8)	(24.9)	(25.0)	(25.1)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43.7	357.0	369.9	383.2	397.1	3.5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4.2
NABO 기준선 (B)	총수입	471.0	482.4	505.3	529.6	552.9	575.3	597.7	620.1	643.4	666.1	3.9
	(GDP 대비 비율)	(24.4)	(24.1)	(24.3)	(24.6)	(24.8)	(25.0)	(25.1)	(25.2)	(25.3)	(25.3)	
	국세수입	290.6	294.0	307.0	322.4	336.3	349.4	363.0	376.3	389.9	404.0	3.7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4.2
차 이 (A-B)												합계
	총수입	0.0	−5.3	−6.0	−5.7	−6.0	−5.8	−6.0	−6.3	−6.7	−6.9	−54.6
	국세수입	0.0	−5.3	−6.0	−5.7	−6.0	−5.8	−6.0	−6.3	−6.7	−6.9	−54.6
	국세외수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 정부가 2019년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나. 국세수입

(1) 총 괄

국세수입은 2019년 290.6조원에서 2028년 397.1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법인 실적 개선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직전 5년(2014~2018년)의 연평균 증가율 9.3%와 비교하면 5.8%p 낮은 수준으로, 최근 국세수입을 견인하던 법인세와 자산관련 세수의 증가세 둔화 전망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7] 등 세수 감소형 세법 개정 등에 기인한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는 2019~2028년 동안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임금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세[18] 등으로 인해 직전 5년(2014~2018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12.2%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17)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은 2018년 11%에서 2019년 15%로 인상되었고, 2020년부터 21%로 인상될 예정이다.

18) 그동안 세수 호조를 견인하던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법인세는 2019~2028년 동안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이다. 직전 5년(2014~2018년)의 연평균 증가율 13.6%와 비교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2019년 법인실적 부진에 따라 2020년 법인세수가 전년대비 1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다. 이를 제외할 경우 2020~2028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경상GDP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2019~2028년 동안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이다. 세수 증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3.6~3.7% 수준의 증가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대외거래 중 통관수입 증가율이 2022년 4.4%에서 2028년 2.4%로 지속적으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직전 5년(2014~2018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5.2%와 비교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표 13] 「NABO 재정전망」: 국세수입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19~'28	'14~'18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43.7	357.0	369.9	383.2	397.1	3.5	9.3
(GDP 대비 비율)	(15.0)	(14.4)	(14.5)	(14.7)	(14.8)	(14.9)	(15.0)	(15.0)	(15.1)	(15.1)		
소득세	82.8	88.2	93.3	99.7	105.9	111.4	116.8	121.9	127.0	132.2	5.3	12.2
(GDP 대비 비율)	(4.3)	(4.4)	(4.5)	(4.6)	(4.8)	(4.8)	(4.9)	(4.9)	(5.0)	(5.0)		
법인세	73.0	64.3	66.5	71.1	74.3	78.0	81.5	85.0	88.6	92.3	2.6	13.6
(GDP 대비 비율)	(3.8)	(3.2)	(3.2)	(3.3)	(3.3)	(3.4)	(3.4)	(3.4)	(3.5)	(3.5)		
부가가치세	69.5	67.7	70.8	73.7	76.5	79.4	82.3	85.3	88.5	91.8	3.1	5.2
(GDP 대비 비율)	(3.6)	(3.4)	(3.4)	(3.4)	(3.4)	(3.4)	(3.5)	(3.5)	(3.5)	(3.5)		
기 타	65.3	68.6	70.4	72.2	73.6	75.0	76.3	77.7	79.2	80.8	2.4	6.8
(GDP 대비 비율)	(3.4)	(3.4)	(3.4)	(3.4)	(3.3)	(3.3)	(3.2)	(3.2)	(3.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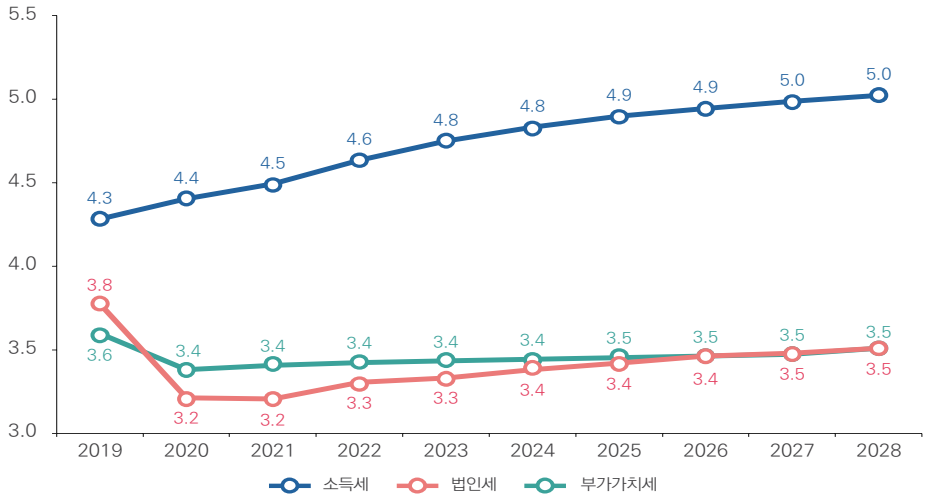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은 2019년 15.0%에서 법인실적 둔화 및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으로 2020년 14.4%로 낮아진 후 2025년까지 매년 0.1~0.2%p 증가하며 15.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6~2028년에는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8년까지 15.1%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의 주요 세목별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소득세가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 4.3%에서 2028년 5.0%

로 0.7%p 높아질 전망이다. 법인세는 법인실적 부진으로 2019년 3.8%에서 2020년 3.2%로 낮아진 후 2021년 3.2%에서 2028년 3.5%로 0.3%p 높아질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으로 2019년 3.6%에서 2020년 3.4%로 낮아진 후 2021년 3.4%에서 2028년 3.5%로 0.1%p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기타 세목의 경우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4%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이후 유류소비량 둔화 전망 등으로 GDP 대비 비율이 2022년 3.4%에서 2028년 3.1%로 0.3%p 낮아질 전망이다.

[그림 3] 「NABO 재정전망」: 국세수입 주요 세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

(단위: %)



세법개정 등 정책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NABO 기준선과 비교할 경우, 재정전망에 따른 국세수입은 10년(2019~2028년) 간 총 54.6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주세 과세체계 개편 등 세수를 증가시키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보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현행 15%에서 2020년 21%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5.1조원에서 2028년 6.9조원의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2020~2028년 동안 NABO 재정전망의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은 기준선 전망보다 0.3%p 낮을 전망이다.

[표 1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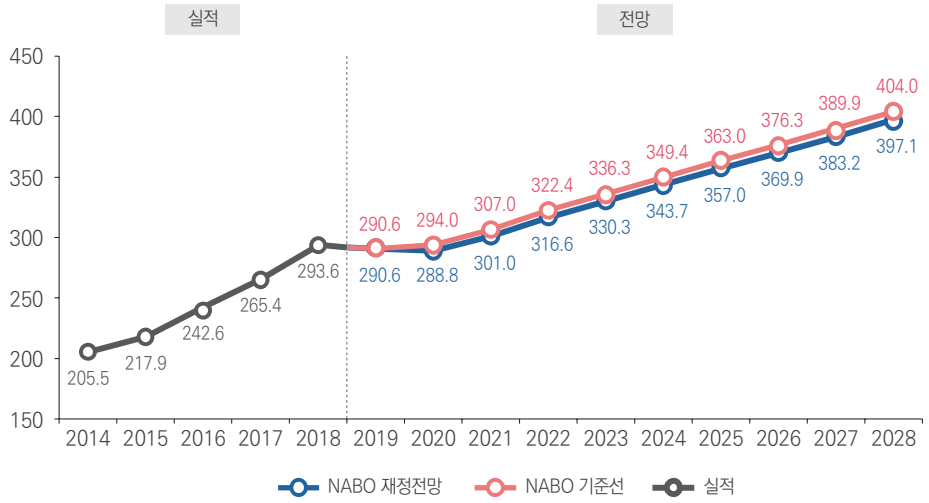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1] (A)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43.7	357.0	369.9	383.2	397.1	3.5
	(GDP 대비 비율)	(15.0)	(14.4)	(14.5)	(14.7)	(14.8)	(14.9)	(15.0)	(15.0)	(15.1)	(15.1)	
	소득세	82.8	88.2	93.3	99.7	105.9	111.4	116.8	121.9	127.0	132.2	5.3
	법인세	73.0	64.3	66.5	71.1	74.3	78.0	81.5	85.0	88.6	92.3	2.6
	부가가치세	69.5	67.7	70.8	73.7	76.5	79.4	82.3	85.3	88.5	91.8	3.1
	기타	65.3	68.6	70.4	72.2	73.6	75.0	76.3	77.7	79.2	80.8	2.4
NABO 기준선 (B)	국세수입	290.6	294.0	307.0	322.4	336.3	349.4	363.0	376.3	389.9	404.0	3.7
	(GDP 대비 비율)	(15.0)	(14.7)	(14.8)	(15.0)	(15.1)	(15.2)	(15.2)	(15.3)	(15.3)	(15.4)	
	소득세	82.8	88.1	93.2	99.6	105.8	111.3	116.8	121.8	126.9	132.1	5.3
	법인세	73.0	64.4	67.1	71.3	74.5	77.8	81.4	84.9	88.6	92.4	2.6
	부가가치세	69.5	72.8	76.1	79.2	82.3	85.3	88.5	91.8	95.1	98.7	4.0
	기타	65.3	68.8	70.5	72.2	73.7	75.0	76.4	77.8	79.2	80.9	2.4
												합계
차 이 (A-B)	국세수입	0.00	−5.26	−5.95	−5.74	−5.97	−5.76	−5.98	−6.32	−6.67	−6.92	−54.57
	소득세	0.00	0.07	0.06	0.06	0.06	0.07	0.07	0.07	0.07	0.07	0.59
	법인세	0.00	−0.05	−0.60	−0.23	−0.23	0.19	0.19	0.09	−0.02	−0.02	−0.68
	부가가치세	0.00	−5.17	−5.33	−5.55	−5.77	−5.98	−6.21	−6.44	−6.68	−6.93	−54.04
	기타	0.00	−0.10	−0.08	−0.03	−0.03	−0.03	−0.04	−0.04	−0.04	−0.04	−0.43

주: 1) 2019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그림 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2) 소득세

소득세는 임금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2019년 82.8조원에서 2028년 132.2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명목경제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하락하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증가율도 과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소득세 증가율 역시 지난 5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증가율(12.0%)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표 1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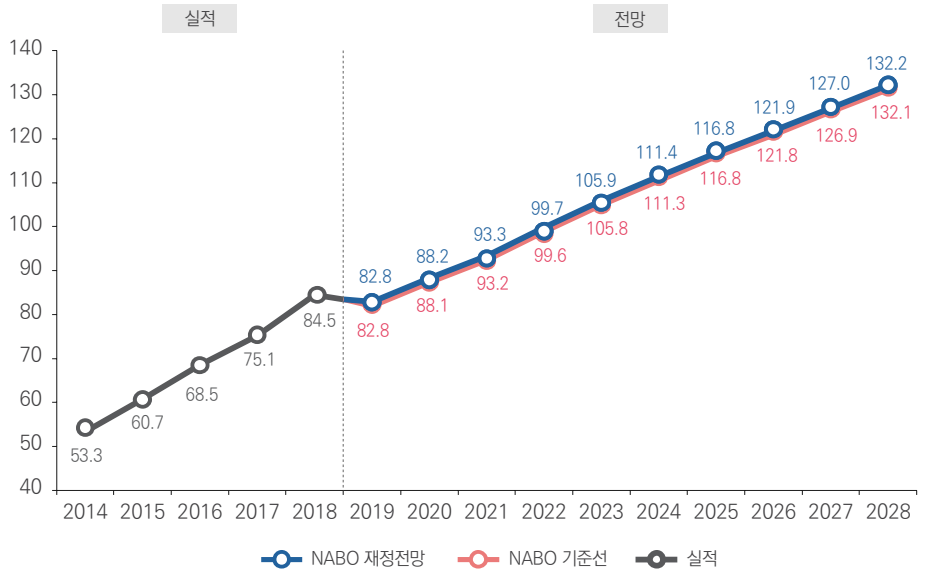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82.8	88.2	93.3	99.7	105.9	111.4	116.8	121.9	127.0	132.2	5.3
NABO 기준선(B)	82.8	88.1	93.2	99.6	105.8	111.3	116.8	121.8	126.9	132.1	5.3
											합계
차 이(A-B)	0.00	0.07	0.06	0.06	0.06	0.07	0.07	0.07	0.07	0.07	0.59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NABO 기준선에 따르면, 소득세는 2019년 82.8조원에서 2028년 132.1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전망이다.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법개정안의 정책효과가 반영되는 NABO 재정전망의 소득세는 기준선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전망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등의 영향으로 2020~2028년 동안 연간 0.07조원, 10년간 총 0.59조원 높을 전망이다.

[그림 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소득세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3) 법인세

법인세는 2019년 73.0조원에서 2028년 92.3조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전망 기간 중에는 법인 영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7조원 감소한 2020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20년부터 2028년의 추이만을 두고 살펴보면 연평균 4.6% 증가하여 경상GDP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표 1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법인세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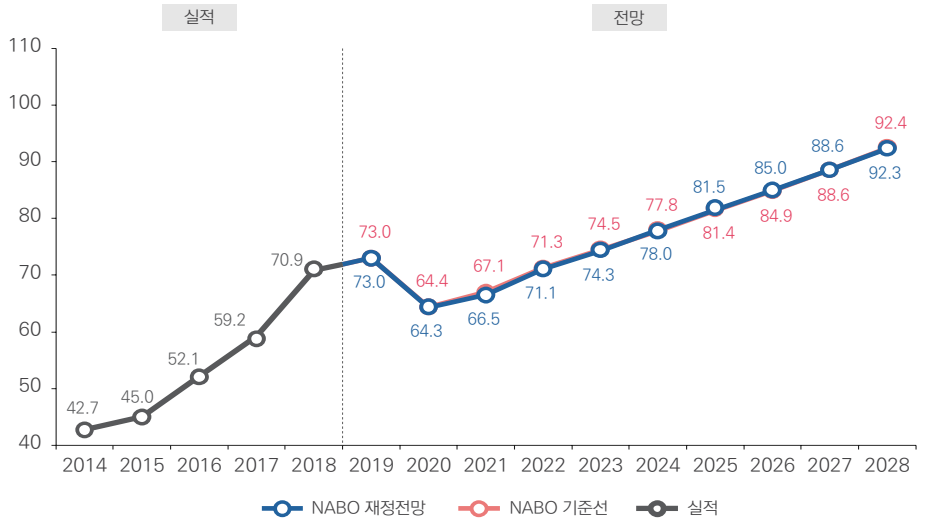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73.0	64.3	66.5	71.1	74.3	78.0	81.5	85.0	88.6	92.3	2.6
NABO 기준선(B)	73.0	64.4	67.1	71.3	74.5	77.8	81.4	84.9	88.6	92.4	2.6
											합계
차 이(A-B)	0.00	−0.05	−0.60	−0.23	−0.23	0.19	0.19	0.09	−0.02	−0.02	−0.68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2020년의 법인세는 2019년의 법인실적 부진으로 1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인세 증가율은 2021년 3.4%에서 2024년 5.0%로 통관수출액 증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기간에는 거시지표의 증가세 둔화[19] 등으로 2023년 4.5%에서 2027년 4.2%까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기준선과 비교해 보면, 재정전망의 법인세는 2019~2028년 동안 총 0.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등 세법개정안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로 인해 NABO 기준선과 재정전망의 차이는 연간 −0.6~0.2조원으로 전망된다.

[그림 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법인세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2019년 69.5조원에서 2028년 91.8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이다. 2019~2028년 동안 부가가치세의 주요 세원인 명목 민간소비는 연평균 3.2% 증가

19) 경상성장률: ('23년) 3.6%→ ('28년) 3.3%, 통관수출액: ('23년) 2.8% → ('28년) 2.0%

하며, 통관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2020년, 15%→21%)에 따른 세수 감소 5.1조원 반영 시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2.7%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부가가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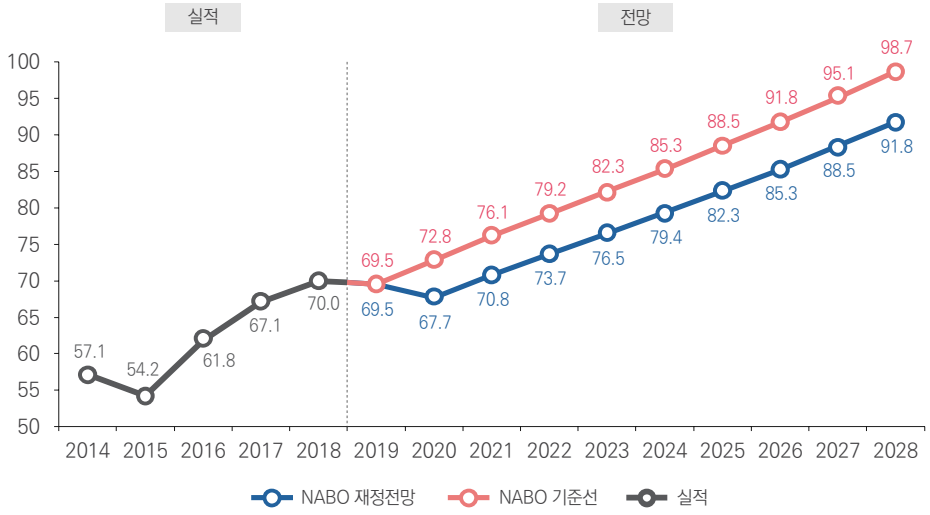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69.5	67.7	70.8	73.7	76.5	79.4	82.3	85.3	88.5	91.8	3.1
NABO 기준선(B)	69.5	72.8	76.1	79.2	82.3	85.3	88.5	91.8	95.1	98.7	4.0
											합계
차 이(A−B)	0.00	−5.17	−5.33	−5.55	−5.77	−5.98	−6.21	−6.44	−6.68	−6.93	−54.04

부가가치세 재정전망은 제도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기준선 전망과 비교 시 2020년 5.2조원에서 2028년 6.9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과 더불어 행복기숙사 관리운영권과 기숙사비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면제 확대 등에 기인한다.

[그림 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부가가치세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5) 기 타

기타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기타 세목은 2019년 65.3조원에서 2028년 80.8조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예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85% → 90%) 등으로 연평균 9.5% 증가하는 반면, 세수규모가 큰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경우는 유류소비량의 정체 등으로 각각 연평균 0.4% 및 0.2%의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표 1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세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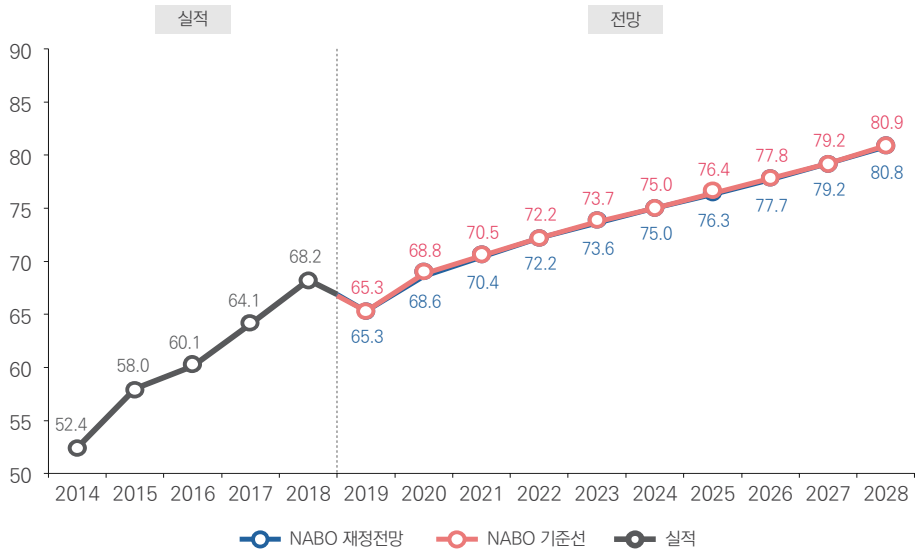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65.3	68.6	70.4	72.2	73.6	75.0	76.3	77.7	79.2	80.8	2.4
NABO 기준선(B)	65.3	68.8	70.5	72.2	73.7	75.0	76.4	77.8	79.2	80.9	2.4
											합계
차 이(A−B)	0.00	−0.10	−0.08	−0.03	−0.03	−0.03	−0.04	−0.04	−0.04	−0.04	−0.43

기타 세목의 재정전망은 기준선과 비교할 경우, 2020~2028년간 총 0.4조원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노후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 교육세 등 감면, 생맥주에 대한 주세 한시적 감면(830.3원 → 664.2원/ ℓ),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0.50% → 0.45%) 등에 기인한다.

[그림 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세목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다. 국세외수입

(1) 총 괄

국세외수입은 2019년 180.4조원에서 2028년 262.1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으로, 이는 과거 5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증가율 3.2%에 비해 1.0%p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세외수입 증가율 상승은 국세외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기금수입 증가율에 기인하는데, 기금수입 증가율은 사회보장기여금의 연평균 증가율(4.2%)에 힘입어 연평균 4.4% 증가할 전망이다.

[표 19] 「NABO 재정전망」: 국세외수입(회계별)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I+II)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4.2
(GDP 대비 비율)	(9.3)	(9.4)	(9.6)	(9.6)	(9.7)	(9.8)	(9.8)	(9.9)	(10.0)	(10.0)	
세외수입(I)	26.7	26.9	28.4	29.5	30.9	32.3	33.4	34.5	35.6	36.2	3.5
(GDP 대비 비율)	(1.4)	(1.3)	(1.4)	(1.4)	(1.4)	(1.4)	(1.4)	(1.4)	(1.4)	(1.4)	
- 일반회계	10.9	11.1	11.9	12.7	13.5	14.4	15.0	15.6	16.2	16.6	4.7
- 특별회계	15.8	15.7	16.6	16.9	17.3	17.9	18.4	18.9	19.4	19.6	2.5
기금수입(II)	153.7	161.6	169.8	177.7	185.7	193.5	201.3	209.4	217.9	225.9	4.4
(GDP 대비 비율)	(7.9)	(8.1)	(8.2)	(8.3)	(8.3)	(8.4)	(8.4)	(8.5)	(8.6)	(8.6)	
- 사회보장기여금	68.9	73.3	76.5	79.9	83.1	86.3	89.7	93.1	96.6	100.0	4.2
- (GDP 대비 비율)	(3.6)	(3.7)	(3.7)	(3.7)	(3.7)	(3.7)	(3.8)	(3.8)	(3.8)	(3.8)	

국세외수입을 성질별로 보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꾸준한 가입자 수 증가 및 평균 임금 상승, 보험료율 인상(고용보험)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4.2% 증가하고, 재산수입은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경우 낮은 연평균 증가율(0.2%)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금리 전망 등의 영향으로 금융사업수입(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외수입 재정전망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변화가 없으므로 기준선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표 20] 「NABO 재정전망」: 국세외수입(성질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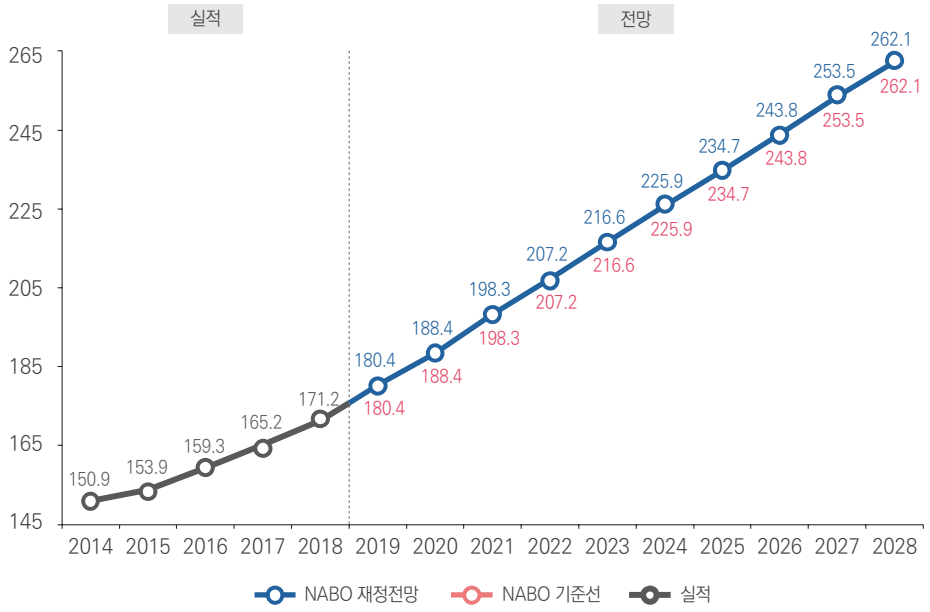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4.2
사회보장기여금	68.9	73.3	76.5	79.9	83.1	86.3	89.7	93.1	96.6	100.0	4.2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7	6.3	6.7	6.6	6.6	6.7	6.8	6.8	6.8	6.9	0.2
재산수입	29.8	31.1	33.0	35.2	37.5	40.0	41.4	42.9	44.5	46.1	4.9
경상이전수입	37.5	39.0	40.8	43.0	45.2	47.3	49.4	51.5	53.9	55.0	4.4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7	9.6	10.1	10.6	11.1	11.6	12.1	12.7	13.3	13.9	5.3
관유물매각대	3.1	3.1	3.1	3.1	3.2	3.2	3.2	3.3	3.3	3.3	0.9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5.1	25.5	27.4	28.4	29.4	30.4	31.5	33.0	34.7	36.4	4.2
기 타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7

주: 기타는 수입대체경비수입과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의 합

[그림 9]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2)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2019년 68.9조원에서 2028년 100.0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이다. 과거 5년(2014~2018년) 연평균 증가율(8.5%)에 비해 4.3%p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기여금 수입이 전망기간 동안 각각 과거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8%, 11.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평균 3.6%, 5.3%로 기여금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9년 이후 가입자 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사학연금의 경우 2016년 법 개정(기여금부담률 상승 및 국립대병원 편입 등)으로 인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과거 기간에 비해, 법 개정이 반영된 이후부터는 안정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 재정전망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변화가 없으므로 기준선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표 2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사회보장기여금	68.9	73.3	76.5	79.9	83.1	86.3	89.7	93.1	96.6	100.0	4.2
(GDP 대비 비율)	(3.6)	(3.7)	(3.7)	(3.7)	(3.7)	(3.7)	(3.8)	(3.8)	(3.8)	(3.8)	

(가) 국민연금

국민연금기여금 수입은 고용주부담금과 피고용자분담금으로 구성된다. 고용주부담금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수입(보험료율 9.0%)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보험료율 4.5%)이고, 피고용자분담금은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수입 중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4.5%)과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9.0%)이다.

국민연금기여금은 2019년 46.7조원에서 2028년 64.1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기여금(결산 기준)의 2014~2018년 평균 증가율(6.8%)에 비해 3.2%p 낮은 것으로서, 명목임금상승률의 영향으로 기준소득월액은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19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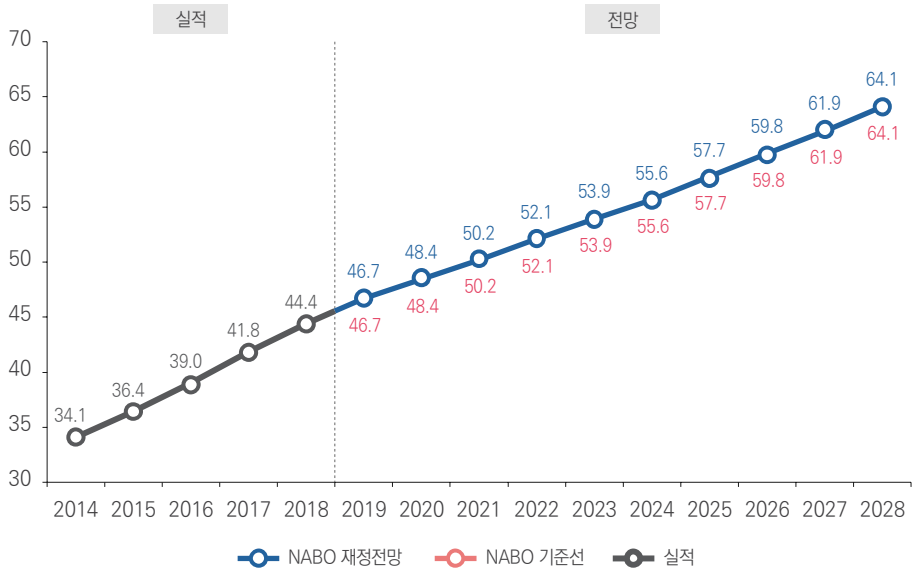
[표 2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기여금	46.7	48.4	50.2	52.1	53.9	55.6	57.7	59.8	61.9	64.1	3.6
(GDP 대비 비율)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그림 1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나) 사학연금

사학연금기여금 수입은 피고용자분담금과 고용주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피고용자분담금은 연금부담금 중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20]이고, 고용주부담금은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주인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연금부담금[21], 재해보상부담금[22], 퇴직수당부담금[23]이 해당된다.

20) 개인의 기여금부담률은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이후 9%가 적용된다.
21) 법인의 연금부담금은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과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하고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분담하므로 직원보다 낮은 부담률인 2018년 5.0%, 2019년 5.147%, 2020년 이후 5.294%를 적용한다.
22) 재해보상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는데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부담금의 4.54%를 적용한다.

사학연금기여금은 2019년 3.1조원에서 2028년 5.0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학연금기여금(결산 기준)의 2014~2018년 연평균 증가율(11.6%)에 비해 6.3%p 낮은 수준이다. 2014~2018년 동안 기여금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인한 기여금 부담률 상승[24], 국립대병원 신규 편입으로 인한 가입자 수 증가(약 3만명)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 반해 2019년 이후 낮은 기여금 수입 증가율은 2020년 기여금 부담률이 18%에 도달한 이후 고정되고 가입자 수도 교원의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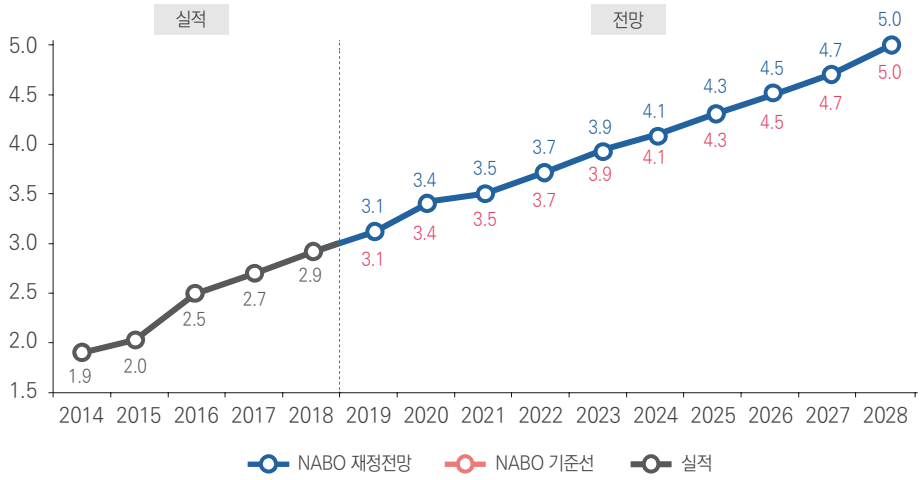
[표 2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사학연금기여금	3.1	3.4	3.5	3.7	3.9	4.1	4.3	4.5	4.7	5.0	5.3
(GDP 대비 비율)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그림 1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23) 퇴직수당부담금은 예상퇴직인원에 퇴직수당 급여산식을 적용하여 구한 금액에 법인 부담률(대학 소요액의 40%)을 곱하여 산출한다.

24) 기여금 부담률 상승: ~2015년 14%(개인 7%, 법인 및 국가 7%) → 2016년 16%(개인 8%, 법인 및 국가 8%) → 2017년 16.5%(개인 8.25%, 법인 및 국가 8.25%) → 2018년 17%(개인 8.5%, 법인 및 국가 8.5%) → 2019년 17.5%(개인 8.75%, 법인 및 국가 8.75%) → 2020년 18%(개인 9%, 법인 및 국가 9%)

(다) 고용보험

고용보험기여금 수입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수입으로,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고용주부담금, 보험료율 0.25~0.85%),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보험료율 1.3% → 1.6% 인상, 2019.10.1.).[25]

고용보험기여금은 2019년 11.3조원에서 2028년 19.3조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18.2% 증가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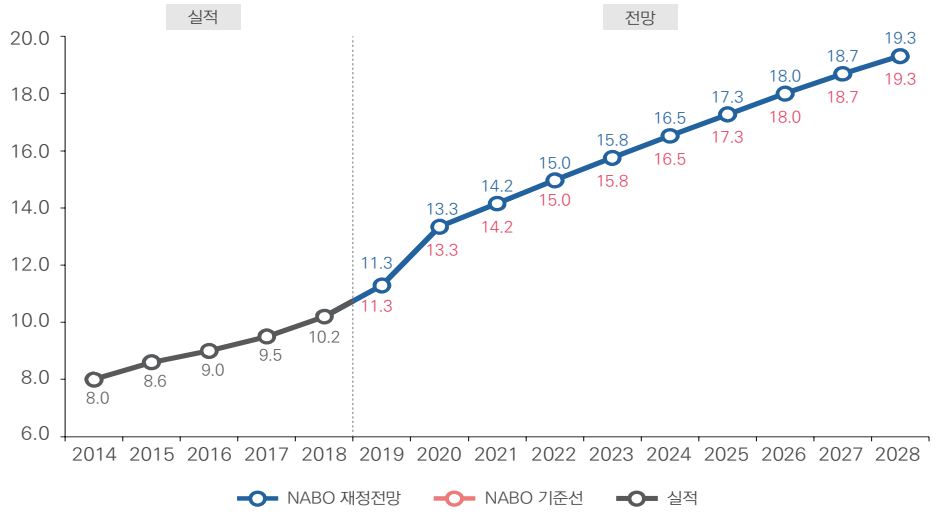
[표 2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고용보험기여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고용보험기여금	11.3	13.3	14.2	15.0	15.8	16.5	17.3	18.0	18.7	19.3	6.2
(GDP 대비 비율)	(0.6)	(0.7)	(0.7)	(0.7)	(0.7)	(0.7)	(0.7)	(0.7)	(0.7)	(0.7)	

[그림 1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고용보험기여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25)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 실업급여 보험료 2.0%이다.

(라) 산재보험

산재보험기여금 수입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수입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0.6~22.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0.15%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지만(고용주부담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산재보험기여금은 2019년 7.8조원에서 2028년 11.6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산재보험기여금(결산 기준)의 2014~2018년 연평균 증가율(6.1%)보다 낮은 수준인데, 보험제도 성숙 및 취업자 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6]

[표 25]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기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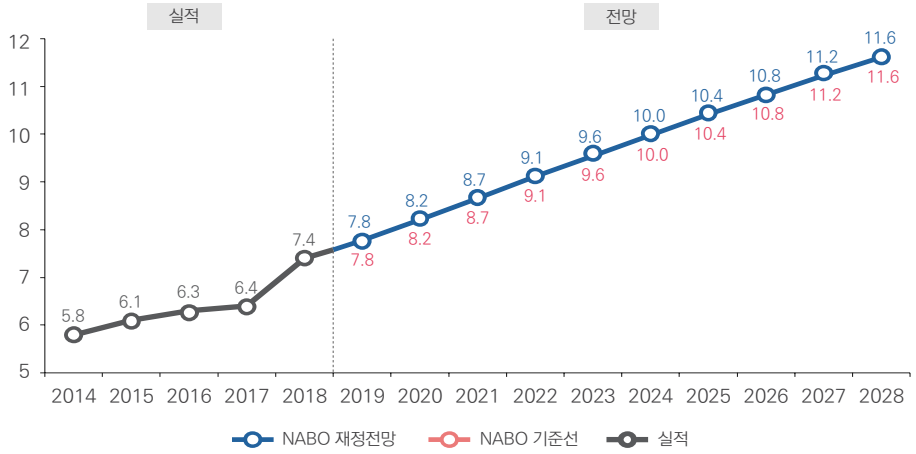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산재보험기여금	7.8	8.2	8.7	9.1	9.6	10.0	10.4	10.8	11.2	11.6	4.6
(GDP 대비 비율)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26)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19년 10월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범위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및 화물차주가 추가된다(2020년 7월 시행 예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 방안이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증가하여 산재보험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및 보험급여의 증가가 예상되나, 재정수입 증가분 및 추가재정소요가 2020년도 산재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전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기여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3) 연금기여금

연금기여금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군인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기여금의 합계를 말하며, 수입 목으로 보면 경상이전수입에 속한다. 기여금 수입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기여금 부담률과 인원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여금 부담률을 2015년 7%에서 2020년 9%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기여금 부담률 인상 계획 없이 2013년부터 7%를 유지하고 있다. 인원의 경우, 공무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군인은 계급별 정원을 유지하면서 자연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27]

공무원 연금기여금은 2019년 12.9조원에서 2028년 19.5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공무원 연금기여금(결산 기준)의 2014~2018년 연평균 증가율(10.2%)에 비해 5.5%p 낮은 것이다. 명목임금상승률의 영향으로 기준소득월액은 증가하지만 기여금 부담률의 단계적 인상이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에는 9%로 유지된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 계획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가 2022년까지는 다소

27)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간부 정원 변동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시점과 정원 변화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본 전망에서는 군인의 계급별 정원에 자연적인 증가율만 적용하여 군인연금 가입자 수를 추계하여 활용하였다.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완만한 자연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다.

한편, 군인 연금기여금은 2019년 0.6조원에서 2028년 0.9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군인 연금기여금(결산 기준)의 2014~2018년 평균 증가율(4.2%)에 비해 0.4%p 높은 것이다. 기여금 부담률은 7%로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전망기간 동안의 명목임금상승률이 평균 3.3%로 2014~2018년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 2.9%보다 0.4%p 높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여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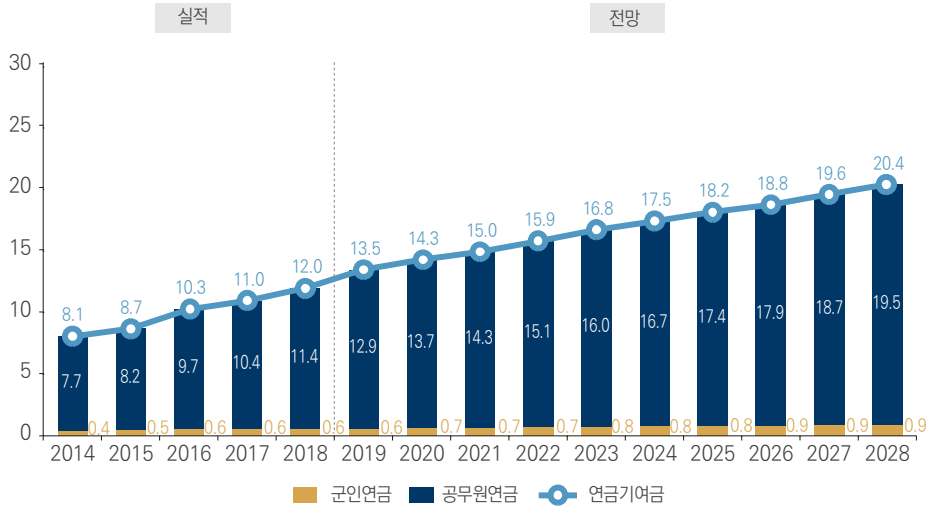
[표 26]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연금기여금	13.5	14.3	15.0	15.9	16.8	17.5	18.2	18.8	19.6	20.4	4.7
- 공무원	12.9	13.7	14.3	15.1	16.0	16.7	17.4	17.9	18.7	19.5	4.7
- 군인	0.6	0.7	0.7	0.7	0.8	0.8	0.8	0.9	0.9	0.9	4.6
(GDP 대비 비율)	(0.3)	(0.3)	(0.4)	(0.4)	(0.4)	(0.4)	(0.4)	(0.4)	(0.4)	(0.4)	

[그림 1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3. 총지출

가. 개 관

총지출은 2019년 475.4조원에서 2028년 703.5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5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증가율(5.7%)과 비교하면 1.2%p 낮은 수준으로서, 과거에 비해 낮아진 거시경제변수,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이전재원 증가세 완화 등이 주원인이다. GDP 대비 총지출의 비율은 2019년 24.6%에서 2023년 27.0%로 높아진 뒤 2026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8년 26.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재량지출의 전망 가정에 따라 2023년 이후 GDP 대비 재량지출의 비율이 낮아진 것에 주로 기인한다.

의무지출은 2019년 239.8조원에서 2028년 390.2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할 전망되는데, 이는 과거 5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증가율 6.6%에 비해 1.0%p 낮은 수준이다. 신규 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둔화되는 주요 요인은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이 낮아지고 2019년과 2020년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이전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9년 50.4%에서 2028년 55.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표 27] 「NABO 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19~'28	'14~'18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4.5	5.7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26.9)	(27.0)	(27.0)	(26.9)	(26.7)		
의무지출	239.8	255.2	269.6	287.6	301.5	318.4	338.4	356.3	374.1	390.2	5.6	6.6
(총지출 대비 비율)	(50.4)	(49.9)	(49.6)	(50.3)	(50.2)	(51.3)	(52.5)	(53.6)	(54.6)	(55.5)		
재량지출	235.6	256.6	274.5	283.9	299.3	302.6	305.8	308.6	311.1	313.4	3.2	4.8
(총지출 대비 비율)	(49.6)	(50.1)	(50.4)	(49.7)	(49.8)	(48.7)	(47.5)	(46.4)	(45.4)	(44.5)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총지출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259.1조원 상회할 전망이다. 259.1조원의 추가재정소요는 의무지출 80.1조원, 재량지출 179.0조원으로 구성된다. 의무지출 추가재정소요는 주로 신규 사업 추진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와 이자지출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재량지출 차이는 전망에 사용한 가정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기준선은 2019년 GDP 대비 재량지출(본예산 기준) 비율(11.9%)이 전망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재정전망은 2019~2023년 동안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되, 2024~2028년 동안은 2023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13.4%)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에 11.9%(2019년 GDP 대비 재량지출(본예산) 비율)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2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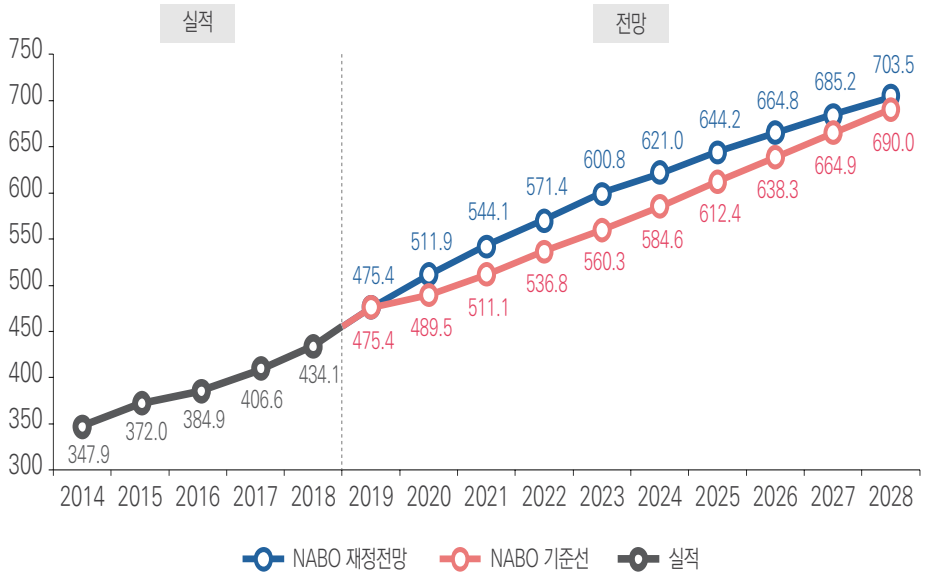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4.5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26.9)	(27.0)	(27.0)	(26.9)	(26.7)	
	의무지출	239.8	255.2	269.6	287.6	301.5	318.4	338.4	356.3	374.1	390.2	5.6
	(GDP 대비 비율)	(12.4)	(12.8)	(13.0)	(13.4)	(13.5)	(13.8)	(14.2)	(14.5)	(14.7)	(14.8)	
	재량지출	235.6	256.6	274.5	283.9	299.3	302.6	305.8	308.6	311.1	313.4	3.2
	(GDP 대비 비율)	(12.2)	(12.8)	(13.2)	(13.2)	(13.4)	(13.1)	(12.8)	(12.5)	(12.2)	(11.9)	
NABO 기준선 (B)	총지출	475.4	489.5	511.1	536.8	560.3	584.6	612.4	638.3	664.9	690.0	4.2
	(GDP 대비 비율)	(24.6)	(24.5)	(24.6)	(24.9)	(25.1)	(25.4)	(25.7)	(25.9)	(26.1)	(26.2)	
	의무지출	239.8	251.1	263.8	280.5	294.8	309.9	328.2	344.7	361.5	376.6	5.1
	(GDP 대비 비율)	(12.4)	(12.5)	(12.7)	(13.0)	(13.2)	(13.4)	(13.8)	(14.0)	(14.2)	(14.3)	
	재량지출	235.6	238.5	247.3	256.3	265.5	274.7	284.1	293.6	303.4	313.4	3.2
	(GDP 대비 비율)	(12.2)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차 이 (A-B)												합계
	총지출	0.0	22.3	33.1	34.7	40.5	36.4	31.8	26.5	20.3	13.6	259.1
	의무지출	0.0	4.2	5.9	7.1	6.7	8.4	10.1	11.6	12.6	13.6	80.1
	재량지출	0.0	18.2	27.2	27.6	33.8	28.0	21.7	14.9	7.7	0.0	179.0

주: 2019년은 추경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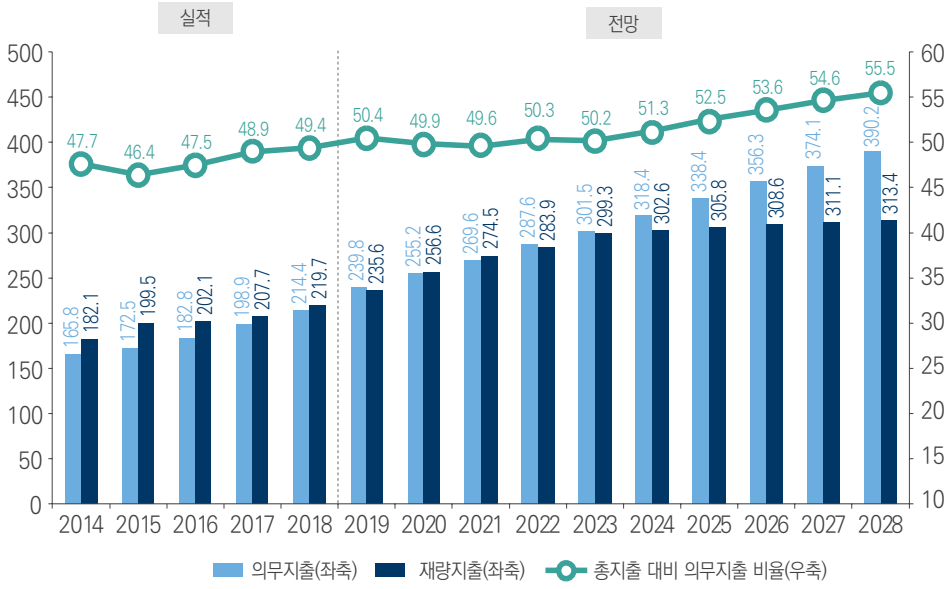
[그림 1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그림 16]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단위: 조원, %)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나.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2019년 239.8조원(GDP 대비 12.4%)에서 2028년 390.2조원(GDP 대비 14.8%)으로 연평균 5.6% 증가할 전망이다. 과거 5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증가율(6.6%)과 비교하면 1.0%p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신규 사업 추진,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 증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등 지출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및 금리 하락,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이전재원 감소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2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의무지출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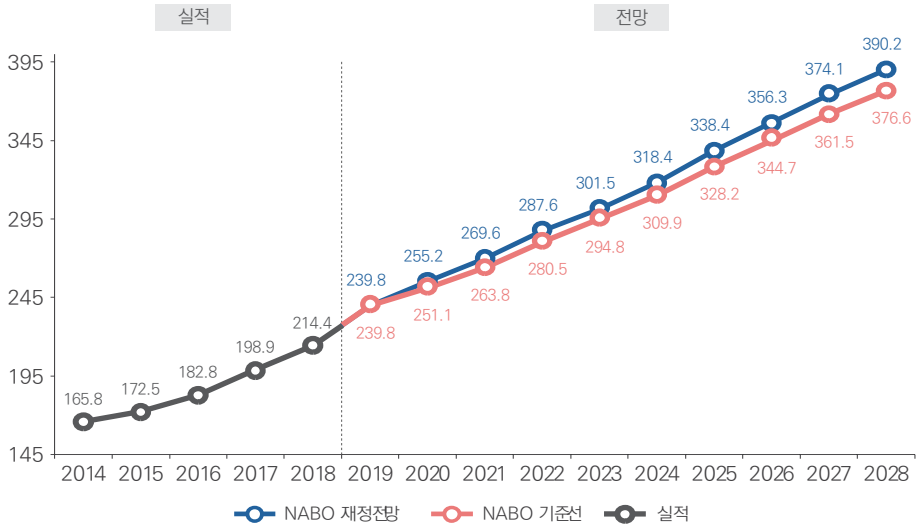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의무지출	239.8	255.2	269.6	287.6	301.5	318.4	338.4	356.3	374.1	390.2	5.6
	(GDP 대비 비율)	(12.4)	(12.8)	(13.0)	(13.4)	(13.5)	(13.8)	(14.2)	(14.5)	(14.7)	(14.8)	
	복지분야 의무지출	107.2	120.9	129.9	138.7	146.7	156.0	168.5	179.2	189.7	198.2	7.1
	지방이전재원	111.5	110.4	114.2	121.4	125.2	130.6	136.0	141.3	146.7	152.3	3.5
	이자지출	15.9	16.9	18.0	19.9	21.8	23.7	25.6	27.4	29.1	30.8	7.6
	기타 의무지출	5.2	7.0	7.5	7.6	7.8	8.0	8.2	8.4	8.6	8.9	6.1
NABO 기준선 (B)	의무지출	239.8	251.1	263.8	280.5	294.8	309.9	328.2	344.7	361.5	376.6	5.1
	(GDP 대비 비율)	(12.4)	(12.5)	(12.7)	(13.0)	(13.2)	(13.4)	(13.8)	(14.0)	(14.2)	(14.3)	
	복지분야 의무지출	107.2	118.9	126.9	134.8	142.2	150.8	162.4	172.3	182.4	190.5	6.6
	지방이전재원	111.5	109.3	113.3	120.7	126.3	131.7	137.2	142.5	147.9	153.6	3.6
	이자지출	15.9	16.9	17.6	18.7	19.9	20.9	21.9	23.0	24.1	25.2	5.3
	기타 의무지출	5.2	5.9	6.1	6.2	6.4	6.6	6.7	6.9	7.1	7.3	3.8
												합계
차 이 (A-B)	의무지출	0.0	4.2	5.9	7.1	6.7	8.4	10.1	11.6	12.6	13.6	80.1
	복지분야 의무지출	0.0	2.0	3.1	3.9	4.4	5.3	6.1	6.9	7.3	7.7	46.6
	지방이전재원	0.0	1.1	0.9	0.7	−1.1	−1.1	−1.2	−1.2	−1.3	−1.3	−4.5
	이자지출	0.0	0.0	0.5	1.2	1.9	2.8	3.6	4.4	5.0	5.6	25.0
	기타 의무지출	0.0	1.1	1.4	1.4	1.4	1.5	1.5	1.5	1.5	1.6	13.0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80.1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46.6조원), 이자지출(25.0조원) 및 기타 의무지출(13.0조원)에서 발생한다. 기준선에 비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주요 정책변화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신규 사업 추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입자 지원금 증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등이 있다. 추가 이자지출액은 재정전망과 기준선의 국가채무 차이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자발생 금액에 따른 것이다. 기준선에 비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기타 의무지출의 주요 정책변화는 2020년 신규로 추진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28]과 공익형직불제도가 있다.

[그림 1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의무지출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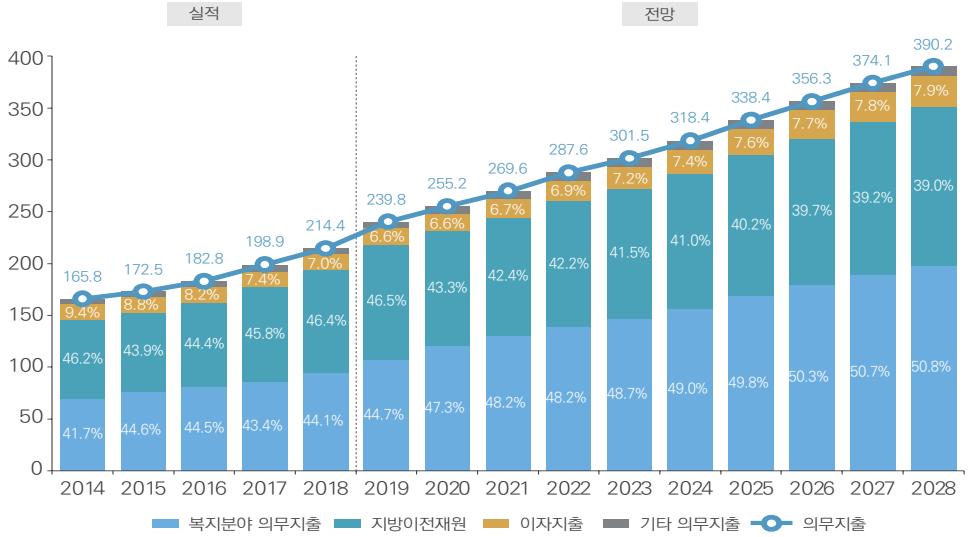


의무지출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신규사업 추진, 수급 대상자 수 및 급여액 증가 등으로 인해 2019년 44.7%에서 2028년 50.8%로 6.1%p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2019년 의무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46.5%)을 차지하였던 지방이전재원은 2028년 39.0%로 7.5%p 낮아질 전망이다. 지방이전재원은 국세수입에 연동되므로 수입증가율의 영향을 받는데,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3.5%)이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율(7.1%)에 비해 낮기 때문에 지방이전재원의 비중도 낮아지는 것이다. 이자지출 비중은 2019년 6.6%에서 7.9%로 1.3%p 높아질 전망이다. 기타 의무지출 비중은 2019년 2.2%에서 2028년 2.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8)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사업을 기타 의무지출로 분류하고 있고, NABO도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그림 18]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1) 복지분야 의무지출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19년 107.2조원(GDP 대비 5.5%)에서 2028년 198.2조원(GDP 대비 7.5%)으로 연평균 7.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4.5%)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6%)을 각각 2.6%p와 1.5%p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높은 증가율은 공적연금(8.4%), 사회보험(6.6%)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에 주로 기인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9년 46.7조원에서 2028년 96.5조원으로 연평균 8.4%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입자 지원금 증가 등에 따라 2019년 24.0조원에서 2028년 42.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이다. 셋째, 공공부조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등으로 인해 2019년 29.9조원에서 2028년 48.6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넷째, 기타 복지분야는 기타 복지로 분류된 장애인활동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의 빠른 증가 등으로 2019년 6.5조원에서 2028년 10.3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다.

[표 30] 「NABO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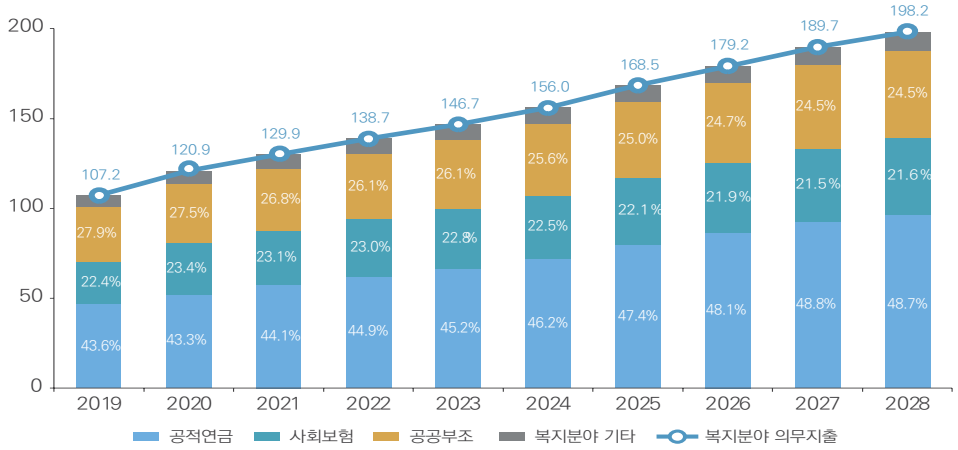
(단위: 조원, %)

항목	세부내역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복지분야 의무지출		107.2	120.9	129.9	138.7	146.7	156.0	168.5	179.2	189.7	198.2	7.1
(GDP 대비 비율)		(5.5)	(6.0)	(6.3)	(6.4)	(6.6)	(6.8)	(7.1)	(7.3)	(7.4)	(7.5)	
공적연금	국민연금	23.0	26.7	30.4	34.0	36.4	40.2	46.6	51.1	55.3	57.0	10.6
	사학연금	3.4	4.0	4.3	4.6	4.9	5.2	5.5	5.8	6.2	6.6	7.7
	공무원연금	16.9	18.1	19.0	19.8	21.0	22.5	23.5	24.7	26.3	28.0	5.8
	군인연금	3.4	3.5	3.7	3.9	4.1	4.2	4.4	4.6	4.8	5.0	4.4
	소 계	46.7	52.3	57.3	62.3	66.3	72.0	80.0	86.2	92.5	96.5	8.4
사회보험	건강보험	8.7	9.9	10.8	11.8	12.5	13.6	14.7	15.7	16.4	17.2	7.9
	노인장기요양보험	1.0	1.4	1.6	1.7	1.8	2.0	2.1	2.3	2.4	2.5	10.3
	고용보험	9.2	11.0	11.4	11.9	12.1	12.3	12.7	13.2	13.7	14.5	5.1
	산재보험	5.1	6.0	6.3	6.6	7.0	7.3	7.6	8.0	8.3	8.6	6.1
	소 계	24.0	28.2	30.0	31.9	33.4	35.1	37.2	39.2	40.9	42.8	6.6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12.0	13.4	14.2	14.9	16.1	16.6	17.3	17.9	18.5	19.2	5.3
	기초연금	11.5	13.4	14.2	15.2	16.2	17.3	18.5	19.9	21.0	22.3	7.6
	영유아보육	3.4	3.4	3.3	3.2	3.2	3.3	3.5	3.7	3.9	4.0	1.9
	아동수당	2.2	2.3	2.2	2.0	1.9	1.9	1.8	1.9	1.9	1.9	−1.2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1.8
	장애인연금	0.7	0.8	0.8	0.8	0.8	0.8	1.0	1.0	1.0	1.0	3.7
	소 계	29.9	33.3	34.8	36.2	38.3	40.0	42.2	44.3	46.4	48.6	5.5
기타 복지분야	보 훈	4.6	4.6	4.7	4.8	4.9	4.9	5.0	5.0	5.1	5.2	1.3
	기타 복지	1.9	2.4	3.1	3.5	3.8	4.0	4.3	4.5	4.8	5.2	11.4
	소 계	6.5	7.1	7.8	8.3	8.6	8.9	9.2	9.6	9.9	10.3	5.2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비중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은 2019년 43.6%에서 2028년에 48.7%로 5.1%p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타 복지분야는 동 기간 각각 22.4%에서 21.6%로, 27.9%에서 24.5%로, 6.1%에서 5.2%로 각각 0.8%p, 3.4%p, 0.9%p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19] 「NABO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단위: 조원)



복지분야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46.6조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추가재정소요액 46.6조원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면, 사회보험 28.2조원, 공공부조 11.5조원, 기타 복지분야 7.0조원으로 구성된다.

[표 3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복지분야 의무지출	107.2	120.9	129.9	138.7	146.7	156.0	168.5	179.2	189.7	198.2	7.1
	공적연금	46.7	52.3	57.3	62.3	66.3	72.0	80.0	86.2	92.5	96.5	8.4
	사회보험	24.0	28.2	30.0	31.9	33.4	35.1	37.2	39.2	40.9	42.8	6.6
	공공부조	29.9	33.3	34.8	36.2	38.3	40.0	42.2	44.3	46.4	48.6	5.5
	기타 복지분야	6.5	7.1	7.8	8.3	8.6	8.9	9.2	9.6	9.9	10.3	5.2
NABO 기준선 (B)	복지분야 의무지출	107.2	118.9	126.9	134.8	142.2	150.8	162.4	172.3	182.4	190.5	6.6
	공적연금	46.7	52.3	57.3	62.3	66.3	72.0	80.0	86.2	92.5	96.5	8.4
	사회보험	24.0	27.4	28.6	30.0	31.0	32.0	33.3	34.6	36.0	37.6	5.1
	공공부조	29.9	32.3	33.8	35.1	37.1	38.7	40.8	42.9	44.9	47.0	5.1
	기타 복지분야	6.5	6.9	7.2	7.4	7.7	8.0	8.3	8.7	9.0	9.4	4.1
												합계
차 이 (A-B)	복지분야 의무지출	0.0	2.0	3.1	3.9	4.4	5.3	6.1	6.9	7.3	7.7	46.6
	공적연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회보험	0.0	0.9	1.4	1.9	2.4	3.1	3.9	4.5	4.9	5.2	28.2
	공공부조	0.0	1.0	1.0	1.1	1.2	1.3	1.3	1.4	1.5	1.6	11.5
	기타 복지분야	0.0	0.1	0.6	0.8	0.9	0.9	0.9	0.9	0.9	0.9	7.0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 중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항목 또는 정책변화로 인해 NABO 재정전망과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 재정전망 결과 및 기준선과의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적연금

❑ 국민연금

국민연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출로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는 2019년 23.0조원에서 2028년 57.0조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지난 5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증가율 10.8%에 비해 0.2%p 낮은 것으로서, 전망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연금급여액의 증가 추세가 과거기간에 비해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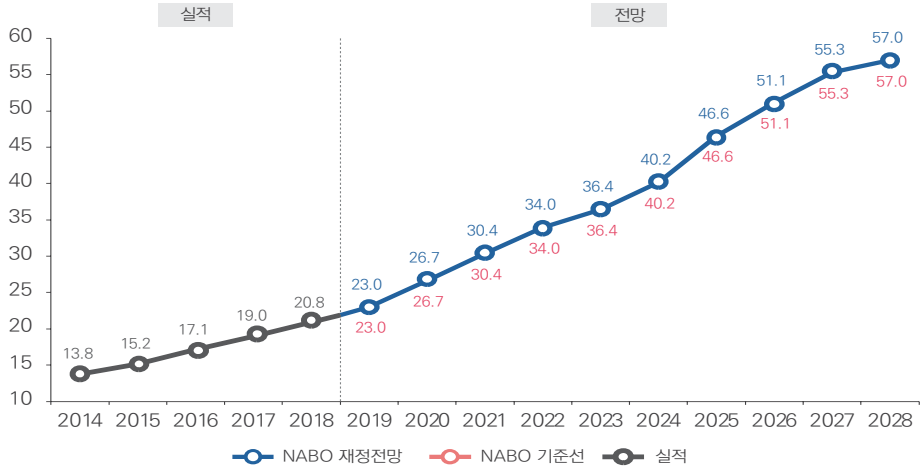
[표 3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	23.0	26.7	30.4	34.0	36.4	40.2	46.6	51.1	55.3	57.0	10.6
(GDP 대비 비율)	(1.2)	(1.3)	(1.5)	(1.6)	(1.6)	(1.7)	(2.0)	(2.1)	(2.2)	(2.2)	

[그림 2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사학연금

사학연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출로서 퇴직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급여는 2019년 3.4조원에서 2028년 6.6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연금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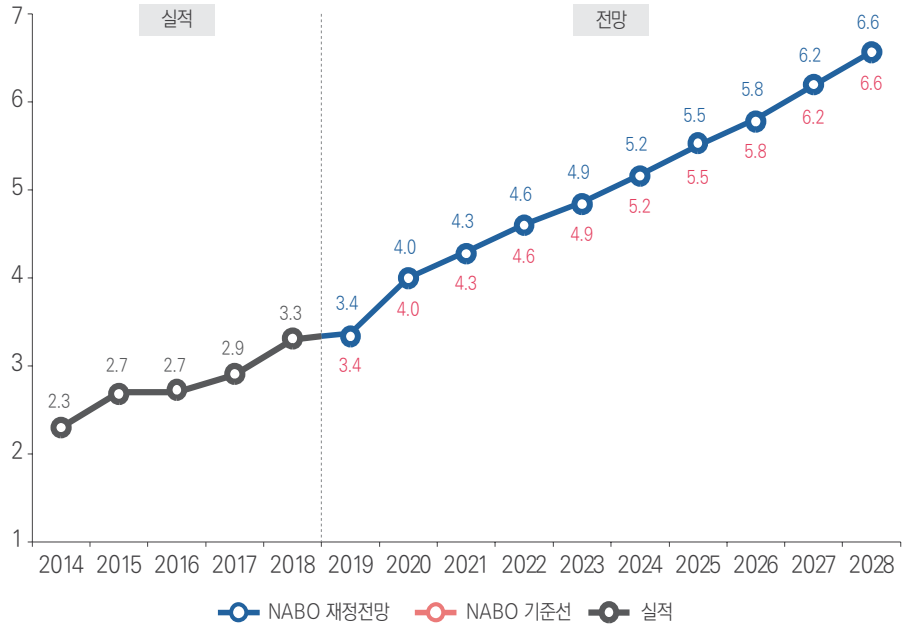
[표 3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사학연금	3.4	4.0	4.3	4.6	4.9	5.2	5.5	5.8	6.2	6.6	7.7
(GDP 대비 비율)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그림 2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급여는 퇴직급여(유족급여 포함),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는 2019년 16.9조원에서 2028년 28.0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지난 5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증가율 5.8%와 유사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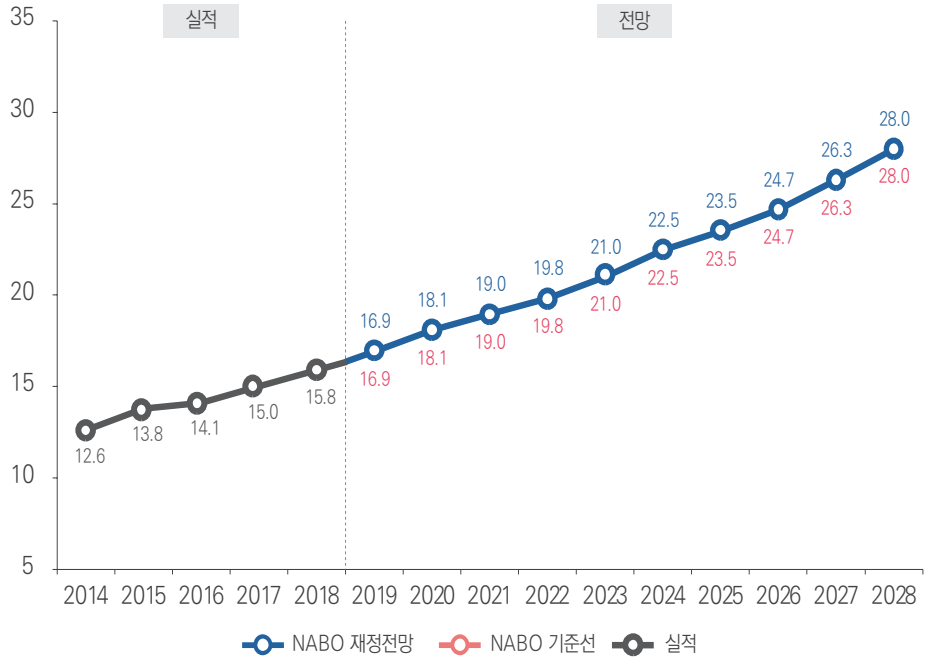
[표 3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공무원연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공무원연금	16.9	18.1	19.0	19.8	21.0	22.5	23.5	24.7	26.3	28.0	5.8
(GDP 대비 비율)	(0.9)	(0.9)	(0.9)	(0.9)	(0.9)	(1.0)	(1.0)	(1.0)	(1.0)	(1.1)	

[그림 2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공무원연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군인연금

군인연금급여는 공무원연금과 유사하게 퇴직급여(유족급여 포함),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군인연금급여는 2019년 3.4조원에서 2028년 5.0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지난 5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증가율 4.6%에 비해 0.2%p 낮은 것으로서, 기수급자의 연금액 인상 시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1.4%로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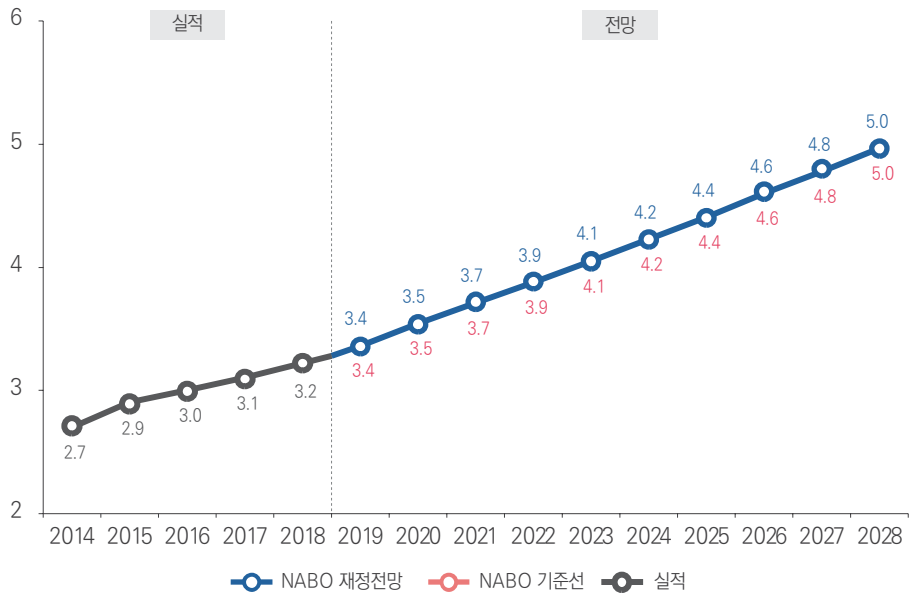
[표 35]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군인연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군인연금	3.4	3.5	3.7	3.9	4.1	4.2	4.4	4.6	4.8	5.0	4.4
(GDP 대비 비율)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그림 2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군인연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나) 사회보험

❑ 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과 공무원교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19년 8.7조원에서 2028년 17.2조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17.8.)과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5.)에 따른 건강보험 인상률(매년 3.2~3.49%씩 인상)을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이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22.9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는 NABO 기준선은 2020년 기 결정된 건강보험료율 6.67%가 유지되고, 일반회계의 정부 지원 비중이 최근 3년(2016~2018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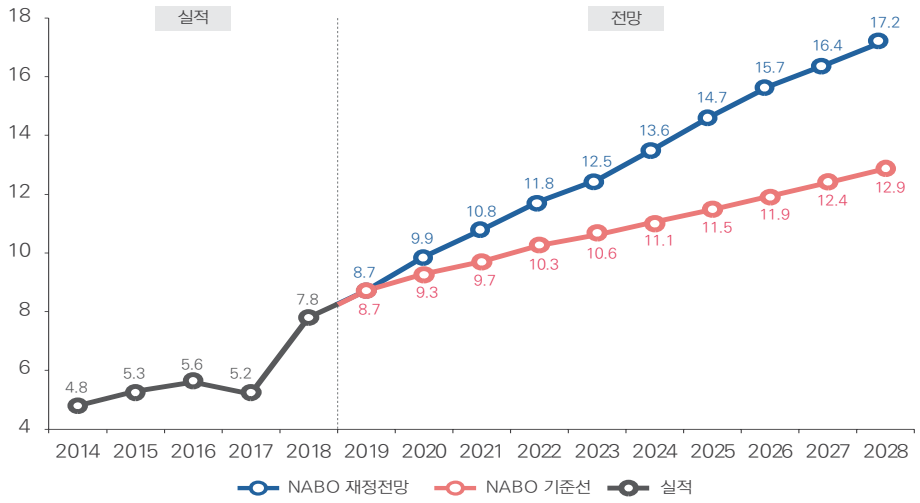
[표 3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8.7	9.9	10.8	11.8	12.5	13.6	14.7	15.7	16.4	17.2	7.9
NABO 기준선(B)	8.7	9.3	9.7	10.3	10.6	11.1	11.5	11.9	12.4	12.9	4.4
											합계
차 이(A-B)	0.0	0.6	1.1	1.5	1.9	2.5	3.2	3.8	4.0	4.3	22.9

[그림 2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정부지원금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과 공무원교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부담금,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2019년 1.0조원에서 2028년 2.5조원으로 연평균 10.3% 증가할 전망이다.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2020년 이후 9.81%)과 정부지원금(2020년 이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을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5.2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는 NABO 기준선은 기 결정된 2020년 건강보험료율 6.67%와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51%가 유지되고, 정부지원 비중이 최근 5년(2014~2018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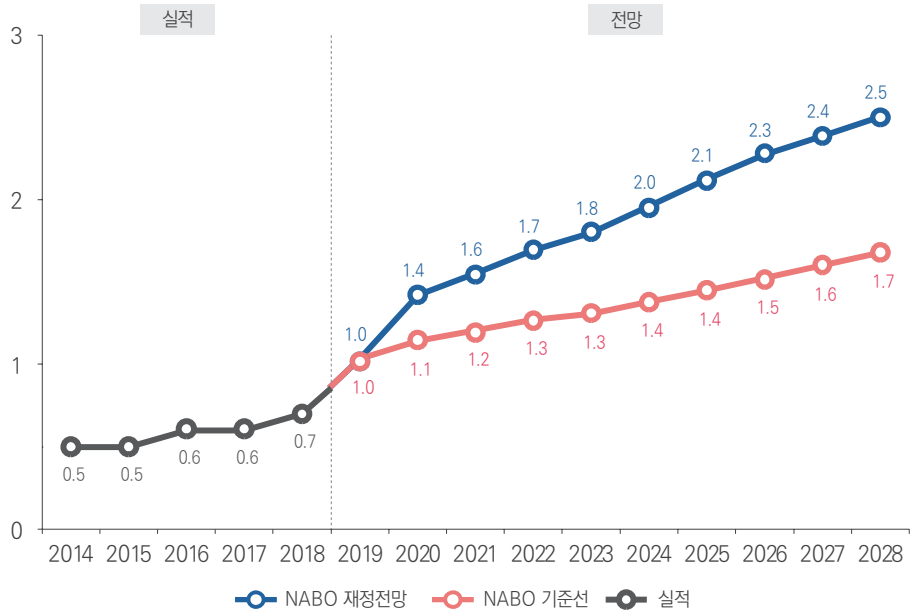
[표 3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0	1.4	1.6	1.7	1.8	2.0	2.1	2.3	2.4	2.5	10.3
NABO 기준선(B)	1.0	1.1	1.2	1.3	1.3	1.4	1.4	1.5	1.6	1.7	5.5
											합계
차 이(A-B)	0.0	0.3	0.3	0.4	0.5	0.6	0.7	0.7	0.8	0.8	5.2

[그림 2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금의 의무지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구성된다. 구직급여는 다시 구직급여(순수),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로 구성되며,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2019년 9.2조원에서 2028년 14.5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과거 5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증가율(12.3%)보다 7.2%p 낮은 수준이다.[29]

고용보험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0.15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2019년 이후 정책변화 효과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을 현행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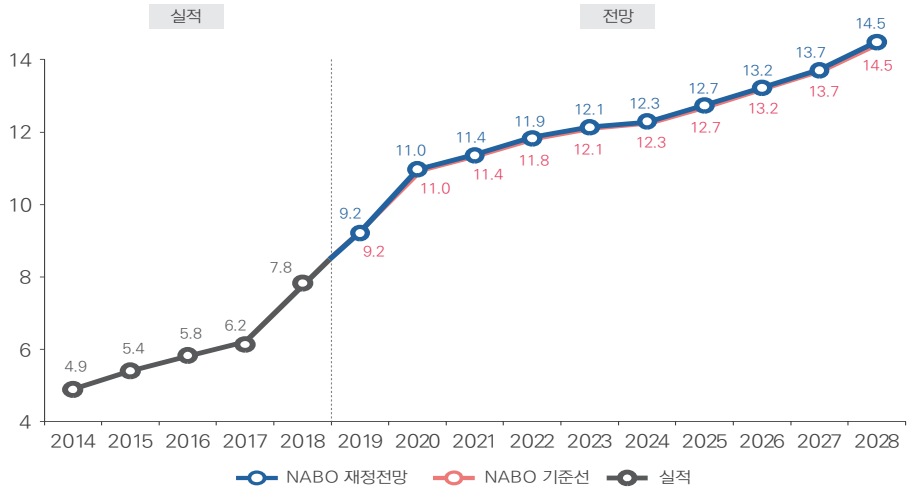
[표 3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9.2	11.0	11.4	11.9	12.1	12.3	12.7	13.2	13.7	14.5	5.1
NABO 기준선(B)	9.2	11.0	11.4	11.8	12.1	12.3	12.7	13.2	13.7	14.5	5.1
											합계
차 이(A-B)	0.00	0.01	0.01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15

[그림 2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29) 과거 5년간 증가율이 높았던 이유는 2018년에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구직급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018년에 전년 대비 28.5% 증가하였고,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도 급여 확대로 18.0% 증가하였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기금의 의무지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이며, 다시 세분화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급여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는 2019년 5.1조원에서 2028년 8.6조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과거 5년(2014~2018) 간 연평균 증가율(6.4%)에 비해 0.3%p 낮은 수준이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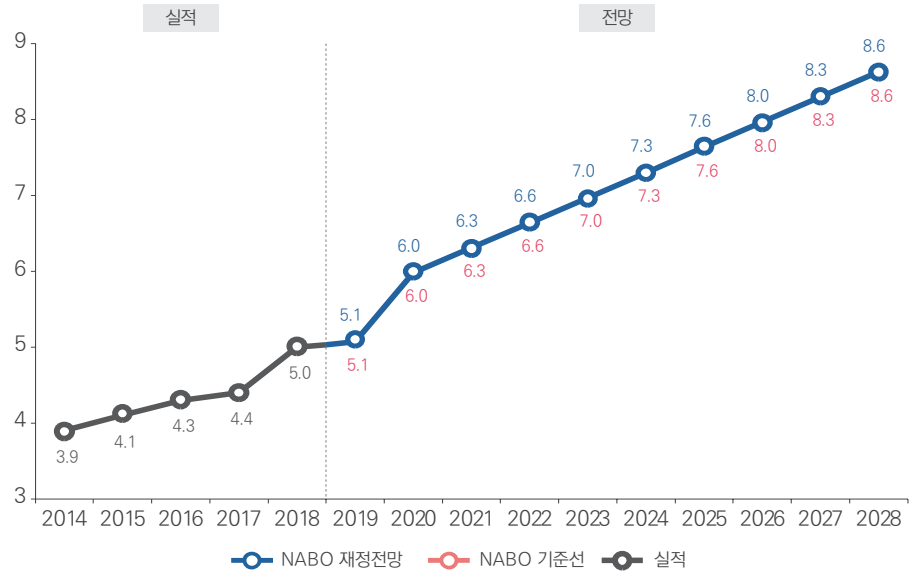
[표 39]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산재보험	5.1	6.0	6.3	6.6	7.0	7.3	7.6	8.0	8.3	8.6	6.1
(GDP 대비 비율)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그림 27]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30) 고용노동부가 2019년 10월 7일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의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도 산재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전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무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중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교육부 소관 교육급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은 2019년 12.0조원에서 2028년 19.2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전망으로, 이는 과거 5년(2014~2018년) 동안의 증가율(8.1%)에 비해 2.8%p 하회하는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0.73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에 반영된 정책변화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표 4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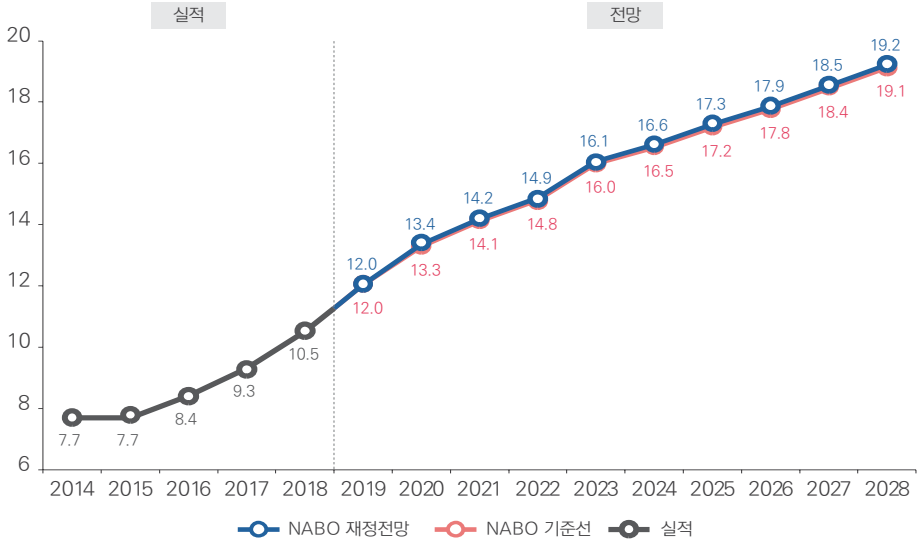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2.0	13.4	14.2	14.9	16.1	16.6	17.3	17.9	18.5	19.2	5.3
NABO 기준선(B)	12.0	13.3	14.1	14.8	16.0	16.5	17.2	17.8	18.4	19.1	5.3
											합계
차 이(A-B)	0.00	0.07	0.07	0.08	0.08	0.08	0.08	0.09	0.09	0.09	0.73

재정전망에 반영된 주요 정책변화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7.8.)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중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변화를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생계급여의 경우 취약계층(25세 이상 ~ 65세 미만,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으로 대상 구분)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확대로 인한 급여액 증가분을 반영하였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상승분을 반영하였다. 급여비 상승분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전망한 최근 5년(2019~2023년) 간 보험급여비 지출증가율(7.6%)을 고려하여 전망한 결과이다.

[그림 2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기초연금

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을 위하여 국가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이며,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19년 10월 현재 월 253,750원이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19년 11.5조원에서 2028년 22.3조원으로 연평균 7.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1.5	13.4	14.2	15.2	16.2	17.3	18.5	19.9	21.0	22.3	7.6
NABO 기준선(B)	11.5	12.5	13.3	14.1	15.1	16.1	17.3	18.5	19.6	20.8	6.8
											합계
차 이(A-B)	0.0	0.9	1.0	1.0	1.1	1.2	1.3	1.4	1.4	1.5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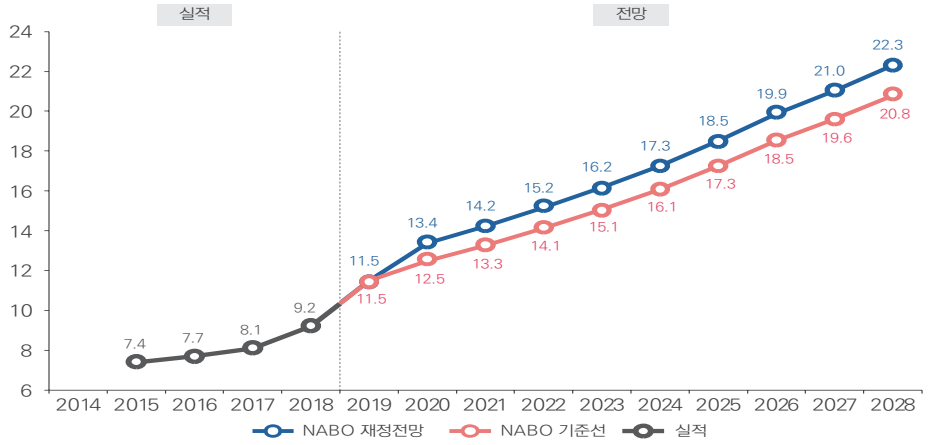
기초연금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10.7조원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에 반영된 정책변화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NABO 재정전망에 반영된 주요 정책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에 소득하위 20~4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현행 '해당연도 4월~다음연도 3월'에서 '해당연도 1월~12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2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 의무지출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0~2세반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보육 의무지출은 2019년 3.4조원에서 2022년 3.2조원까지 감소한 뒤,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8년 4.0조원까지 증가(연평균 1.9%)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4명에서 2022년 0.90명으로 감소하지만 2023년 이후 0.93명에서 2028년 1.11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보육 지원 대상 영유아 수가 2023년 이후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23년 이후 영유아보육 지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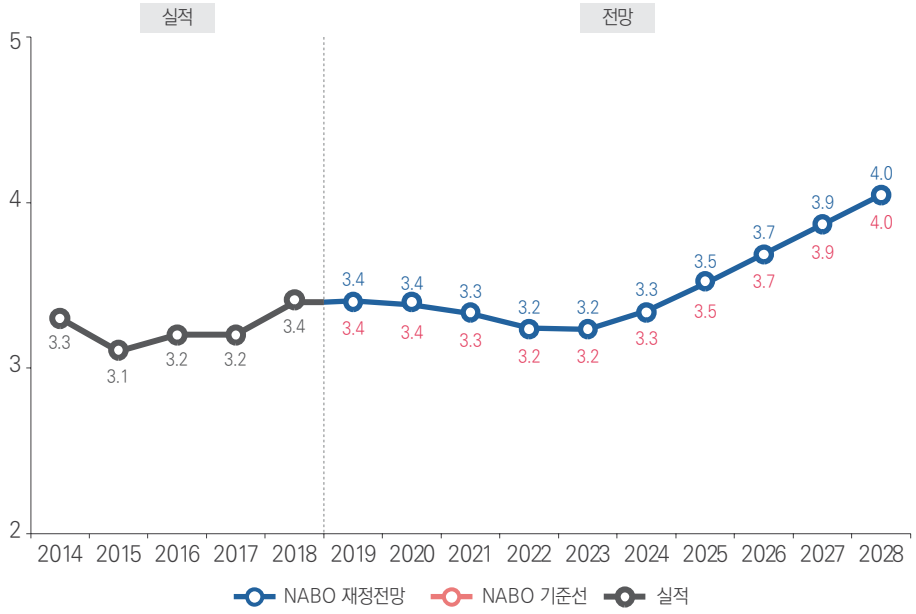
[표 4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영유아보육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영유아보육	3.4	3.4	3.3	3.2	3.2	3.3	3.5	3.7	3.9	4.0	1.9
(GDP 대비 비율)	(0.2)	(0.2)	(0.2)	(0.2)	(0.1)	(0.1)	(0.1)	(0.1)	(0.2)	(0.2)	

[그림 3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영유아보육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2019.1.15. 개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2019년 2.16조원에서 2028년 1.94조원으로 연평균 1.20%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감소율은 통계청 인구전망(2019년 3월 발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출생아 수가 최근의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여 2024까

지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6세 미만 아동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주요인이다. 다만, 2025년 이후 합계출산율 1명을 넘어서면서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인구전망에 따라 아동수당 재정전망은 증가 추세로 전환되지만, 아동수당 단가(월 10만원)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함에 따라 아동수당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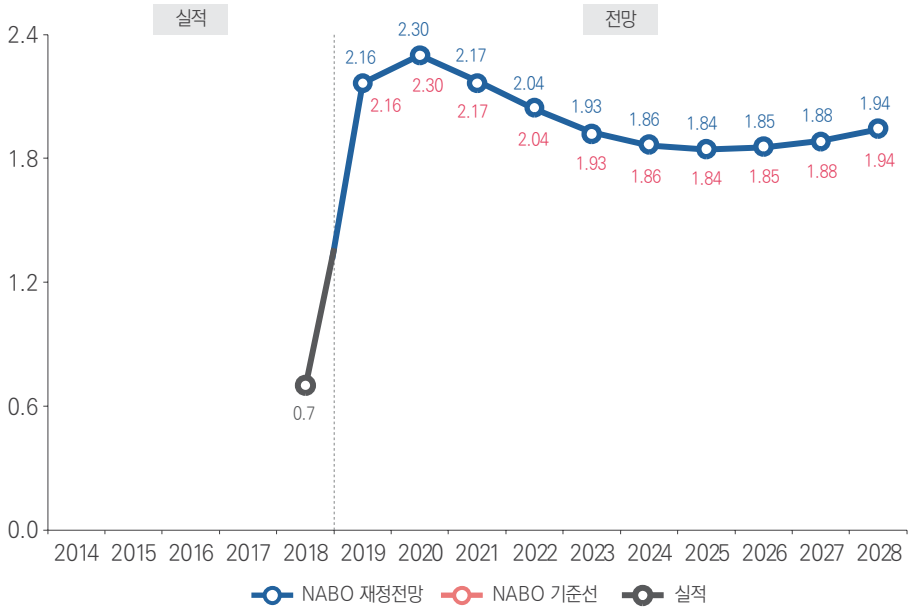
[표 4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아동수당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아동수당	2.16	2.30	2.17	2.04	1.93	1.86	1.84	1.85	1.88	1.94	−1.20
(GDP 대비 비율)	(0.11)	(0.11)	(0.10)	(0.09)	(0.09)	(0.08)	(0.08)	(0.08)	(0.07)	(0.07)	

[그림 3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아동수당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장애인연금

정부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2019년 0.7조원에서 2028년 1.0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약 0.0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망기간 중 2021년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현행 '해당연도 4월~다음연도 3월'에서 '해당연도 1월~12월'로의 변경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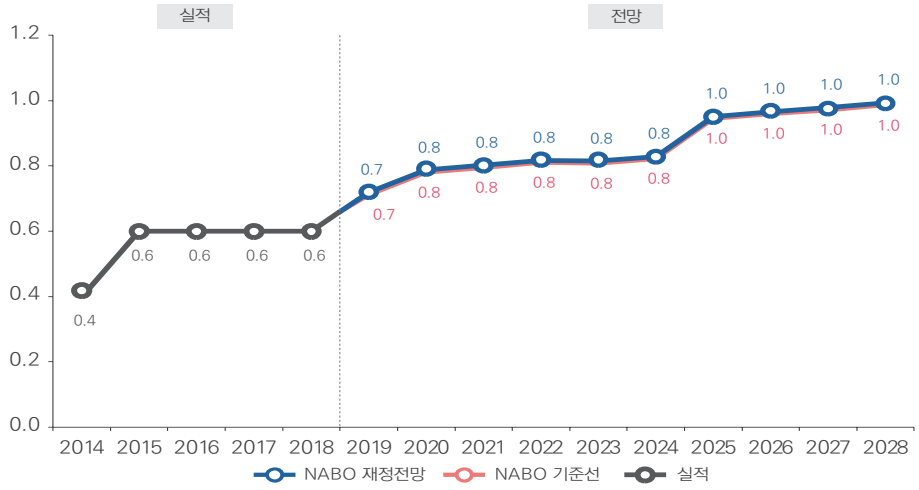
[표 4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장애인연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0.7	0.8	0.8	0.8	0.8	0.8	1.0	1.0	1.0	1.0	3.7
NABO 기준선(B)	0.7	0.8	0.8	0.8	0.8	0.8	1.0	1.0	1.0	1.0	3.6
											합계
차 이(A-B)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11

[그림 3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장애인연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라) 복지분야 기타

❑ 보 훈

보훈분야의 의무지출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간호수당, 4.19 혁명공로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6.25자녀수당 · 무공영예수당 · 사망일시금 · 재해보상금 · 보철구지급 · 고엽제환자검진 및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보훈분야 의무지출은 2019년 4.6조원에서 2028년 5.2조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유족(전몰 · 순직군경 · 상이군경 유족 등)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단가는 매년 3.5%씩 인상(2020년에는 5% 인상)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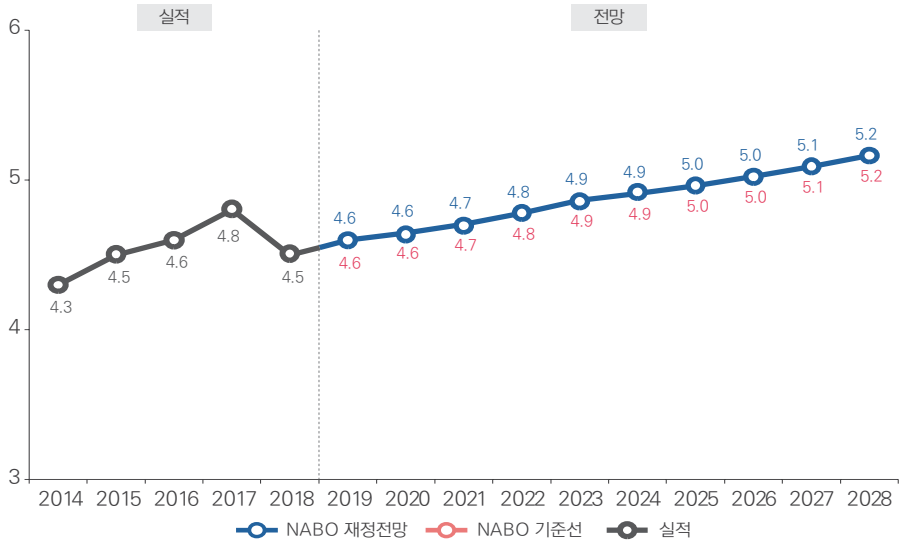
[표 45]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보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보훈	4.6	4.6	4.7	4.8	4.9	4.9	5.0	5.0	5.1	5.2	1.4
(GDP 대비 비율)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그림 3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보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신규사업)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3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로서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만 18~64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32]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자 목표인원을 2020년에 요건심사형 10만명, 선발형 10만명, 2021년에 각각 25만명, 10만명, 2022년 이후 각각 30만명, 1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33] NABO는 지원대상자 추정과 관련하여 2020년과 2021년의 경우는 사업 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부의 목표인원을 반영하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60%로 상향되는 2022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활동인구수 전망치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3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무지출에 대한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35]

---

31) 정부는 동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9월 16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32) 구체적인 수급요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6조 등 참고

33) 2020년부터 요건심사형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50%에서 60%로 상향할 계획이다.

34) 국민취업지원제도(요건심사형)의 잠재적 지원대상자는 2016년 기준으로 53.6만명으로 추정된다(고용노동부, 중기사업계획(2019~2023년) 2019.1.).

35)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단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6개월 간 월 50만원이다. 향후 지원단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원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지원단가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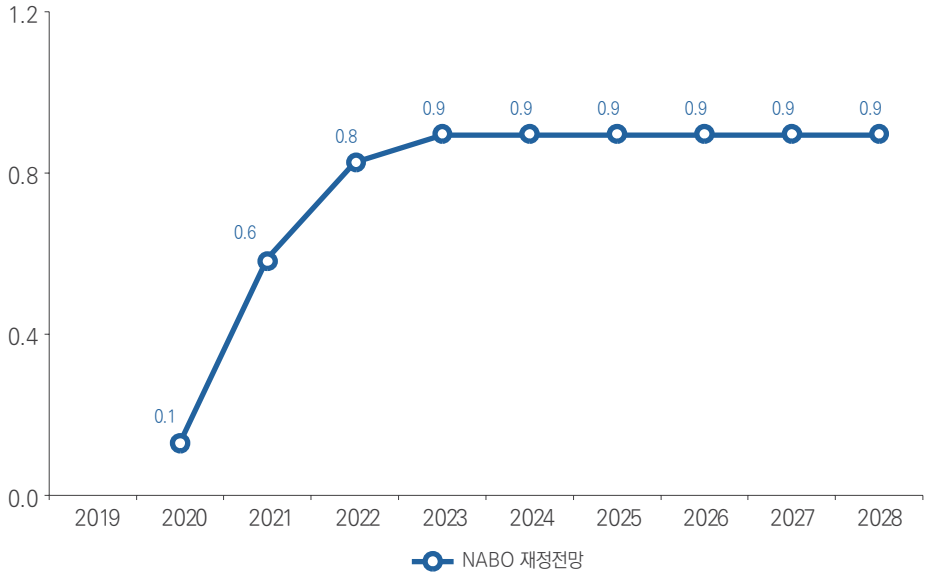
[표 4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요건심사형, 신규사업)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	0.1	0.6	0.8	0.9	0.9	0.9	0.9	0.9	0.9	
NABO 기준선(B)	–	–	–	–	–	–	–	–	–	–	–
											합계
차 이(A–B)	–	0.1	0.6	0.8	0.9	0.9	0.9	0.9	0.9	0.9	7.0

[그림 34] 「NABO 재정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요건심사형, 신규사업)

(단위: 조원)



(2)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6]로 구성된다. 지방이전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수입 중 일반회계인 내국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현행법은 2019년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이지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2022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2019.8.26.)되었고,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22년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지방이전재원은 2019년 111.5조원에서 2028년 152.3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이전재원은 세수실적에 연동되어 예산액이 결정됨에 따라 세수가 확정되면 정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방교부세법」[37]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이전재원은 2년 뒤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9년 예산의 지방이전재원 규모와 NABO의 국세 전망치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규모와의 차이로 인한 정산액은 2년 뒤인 2021년에 일괄 정산된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전망에서는 2021년 지방이전재원을 1.1조원 차감 반영하였다.

지방이전재원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4.5조원 낮을 전망이다. 지방이전재원의 재정전망과 기준선 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은 재정전망이 기준선보다 높아지는 요인과 낮아지는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이전재원 재정전망이 기준선보다 높아지는 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가정이다. 기준선은 현행법에 따라 2019년 종료된다고 가정하므로 동 특별회계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교육세 해당 분 이외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예산[38]이 반영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재정전망은 개정안에 따라 2022년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있어 교육세 이외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예산이 반영된다. 따라서 2020~2022년 동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총 5.6조원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반영 여부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준선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로 적용하고 있지만, 재정전망은 정부의 계획대로 45%로 인상하여 적용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기준선은 현행

---

37)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39)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율은 담배부과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정비율(현행 20%)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교부세의 산식((내국세－담배분 개별소비세×20%)×19.24%+종합부동산세+담배분 개별소비세×20%)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율이 높아지면 전체 지방교부세가 커지게 된다.

교부율 20.46%를 적용하고 있지만, 재정전망은 정부의 계획대로 20.79%를 적용함에 따라 재정전망이 더 높아진다.

반면, 지방이전재원 재정전망이 기준선보다 낮아지는 요인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영향이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5%에서 21%로 상향되는 것으로 재정전망에 반영됨에 따라, 재정전망의 세수가 기준선에 비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40]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2020~2028년 동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각각 총 7.1조원 및 총 3.0조원 낮아질 전망이다.

[표 4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지방이전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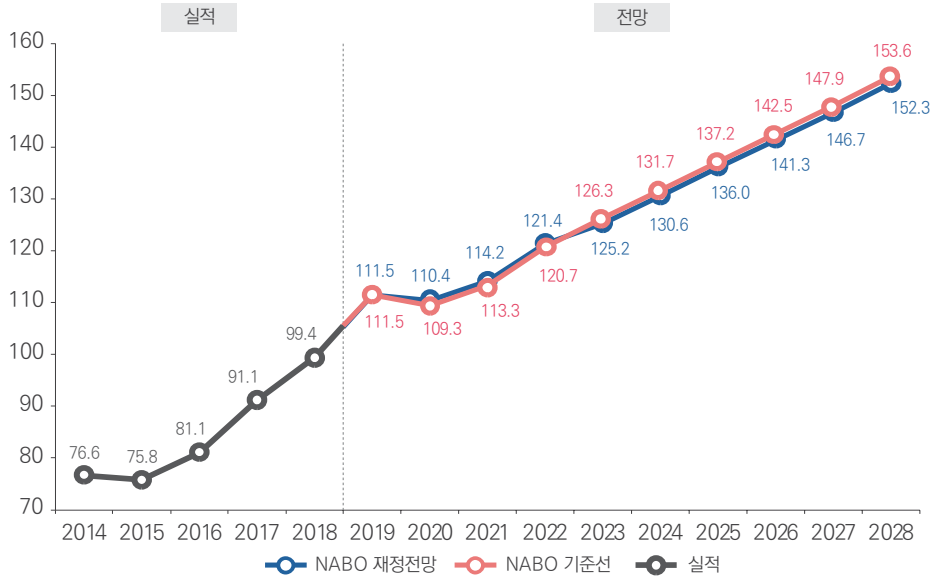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11.5	110.4	114.2	121.4	125.2	130.6	136.0	141.3	146.7	152.3	3.5
NABO 기준선(B)	111.5	109.3	113.3	120.7	126.3	131.7	137.2	142.5	147.9	153.6	3.6
											합계
차 이(A-B)	0.0	1.1	0.9	0.7	−1.1	−1.1	−1.2	−1.2	−1.3	−1.3	−4.5
세부항목별 차이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지방교부세	0.0	−0.6	−0.6	−0.7	−0.7	−0.8	−0.8	−0.9	−0.9	−1.0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0.0	−0.3	−0.3	−0.3	−0.3	−0.3	−0.3	−0.3	−0.3	−0.4	−3.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0.0	2.0	1.9	1.7	0.0	0.0	0.0	0.0	0.0	0.0	5.6
합 계	0.0	1.1	0.9	0.7	−1.1	−1.1	−1.2	−1.2	−1.3	−1.3	−4.5

40) 지방이전재원은 세수실적에 연동되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되면 함께 감소하는 예산항목이다.

[그림 3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지방이전재원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3)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권 이자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한 국공채 이자, 기타 이자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이자지출은 2019년 15.9조원에서 2028년 30.8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할 전망이다. 이자지출 증가는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이자지출이 증가한 것에 대부분 기인한다.

이자지출의 기준선 대비 추가재정소요는 10년(2019~2028년) 간 총 25.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자지출에서 기준선과의 차이는 관리재정수지 전망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가 기준선에 비해 적자폭이 큼에 따라 국채발행이 증가하고 이자지출도 증가하기 때문이다.[41]

41) 2018년부터 발생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당해 연도 국가채무에 반영되고 이듬해 2019년부터 이자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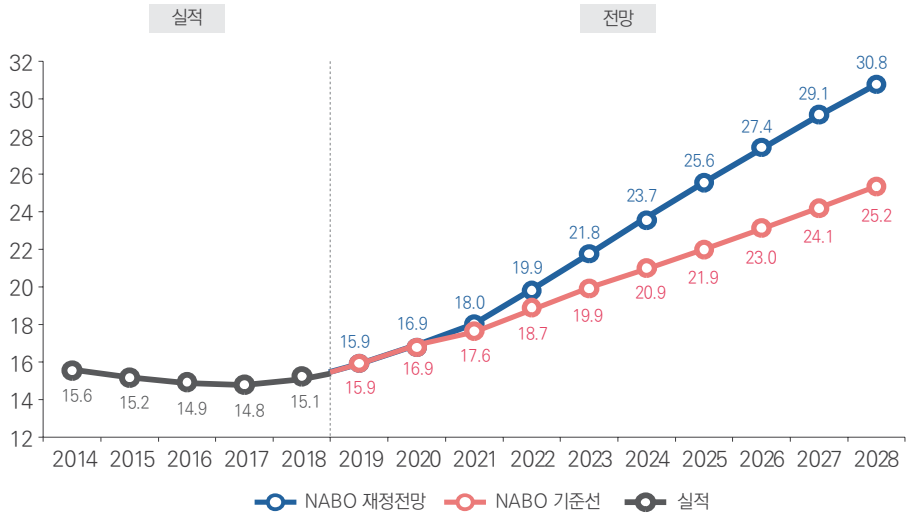
[표 4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이자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5.9	16.9	18.0	19.9	21.8	23.7	25.6	27.4	29.1	30.8	7.6
NABO 기준선(B)	15.9	16.9	17.6	18.7	19.9	20.9	21.9	23.0	24.1	25.2	5.3
											합계
차 이(A-B)	0.0	0.0	0.5	1.2	1.9	2.8	3.6	4.4	5.0	5.6	25.0

[그림 3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이자지출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4)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은 농업직불금 등이 해당되는데, 전망결과 2019년 5.2조원에서 2028년 8.9조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13.0조원의 재정소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2020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과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편한 공익형직불제도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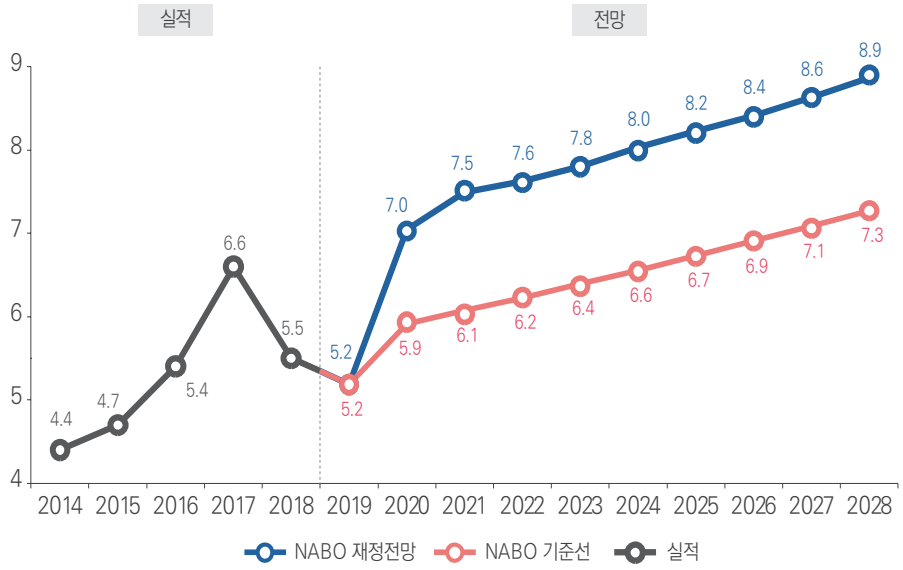
[표 4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5.2	7.0	7.5	7.6	7.8	8.0	8.2	8.4	8.6	8.9	6.1
NABO 기준선(B)	5.2	5.9	6.1	6.2	6.4	6.6	6.7	6.9	7.1	7.3	3.8
											합계
차 이(A-B)	0.0	1.1	1.4	1.4	1.4	1.5	1.5	1.5	1.5	1.6	13.0

[그림 3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농업직불금

농업직불금제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작물의 자급률 제고,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보조금 제도로서, 쌀소득보존 변동직불금(이하 변동직불금), 쌀소득보존 고정직불금(이하 고정직불금), 밭작물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이하 밭 직불제)이 의무지출 사업이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쌀 직불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에 관련 법률안[42]이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농업직불금 기준선 전망은 이 세 가지 직불금제도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전망한다. 농업직불금 재정전망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제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익형직불제'의 사업예산안(1조 605억원)[43]이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 기간 동안은 정부전망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24년부터는 지난 10년간 의무지출 직불금의 평균상승률(2.6%)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44][45]

농업직불금 재정전망은 2019년 1.3조원에서 2028년 2.4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향후 10년(2019~2028년) 간 기준선에 비해 총 4.7조원 상회할 전망이다.

[표 5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농업직불금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3	2.1	2.1	2.2	2.2	2.2	2.3	2.3	2.4	2.4	7.6
NABO 기준선(B)	1.3	1.7	1.7	1.7	1.7	1.7	1.8	1.8	1.8	1.8	4.2
											합계
차 이(A-B)	0.0	0.5	0.5	0.5	0.5	0.5	0.5	0.6	0.6	0.6	4.7

4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20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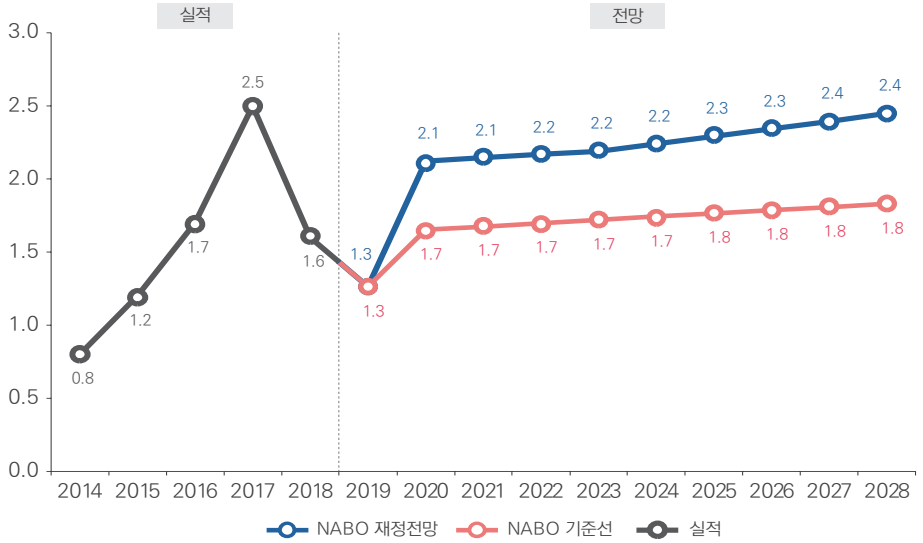
43) 개정안은 공익형직불제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 세부 항목별 추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전망은 정부 계획이 반영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20~2023년)상의 금액을 재정전망 금액으로 한다.

44)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제외한 현행 농업직불금의 세부사업 항목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 대신 공익형직불제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45) 정부는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지만 NABO는 본 보고서에서 의무지출로 분류한다.

[그림 3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농업직불금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정부는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47.5%)를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교육부 일반회계에 증액교부금 6,59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 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2019.9.24.)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총 소요액의 47.5%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의 재정전망은 2020년 0.66조원에서 2028년 0.98조원으로 연평균 5.02% 증가할 전망이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향후 10년(2019~2028년) 간 기준선에 비해 총 8.3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46]

46)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증액교부금을 2024년 한시로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이후 증액교부금의 편성여부는 현재 미확정이며, 2025년 이후 재원조달방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정책수요 등과 관련하여 교육재정 협동연구(2019~2020년)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NABO는 2025년 이후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5년 이후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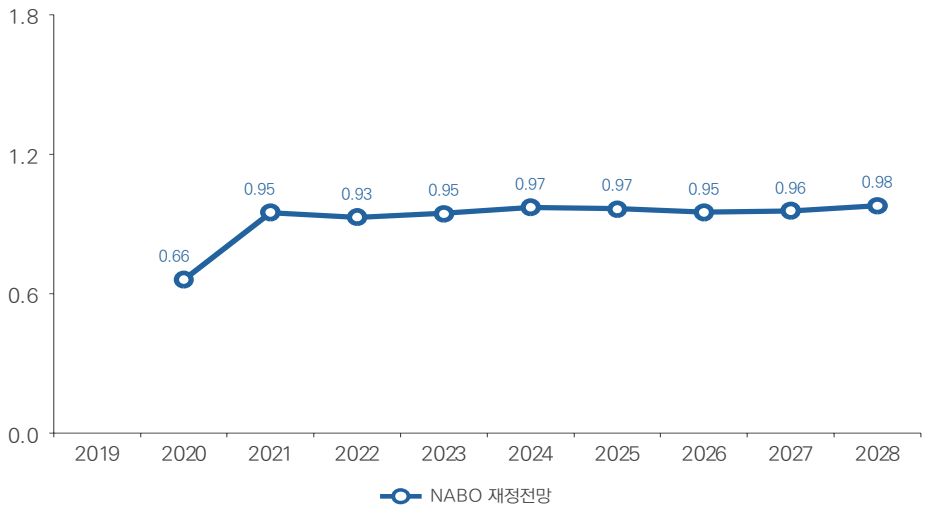
[표 5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신규사업)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	0.66	0.95	0.93	0.95	0.97	0.97	0.95	0.96	0.98	5.02
NABO 기준선(B)	–	–	–	–	–	–	–	–	–	–	
											합계
차 이(A–B)	–	0.66	0.95	0.93	0.95	0.97	0.97	0.95	0.96	0.98	8.31

[그림 39] 「NABO 재정전망」: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신규사업)

(단위: 조원)



다.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2019년 235.6조원(GDP 대비 12.2%)에서 2028년 313.4조원(GDP 대비 11.9%)으로 연평균 3.2% 증가할 전망이다. 재량지출의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179.0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재정전망과 기준선 차이는 전망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기준선은 2019년 GDP 대비 재량지출(본예산 기준) 비율(11.9%)[47]이 전망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47) [표 52]에서 2019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2.2%으로 나타난 이유는 2019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가정한 반면, 재정전망은 2019~2023년 동안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되, 2024~2028년 동안은 2023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13.4%)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에 11.9%(2019년 GDP 대비 재량지출(본예산) 비율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이 GDP 대비 비율 11.8%(2027년)에 수렴할 때까지는 재정전망이 항상 기준선을 상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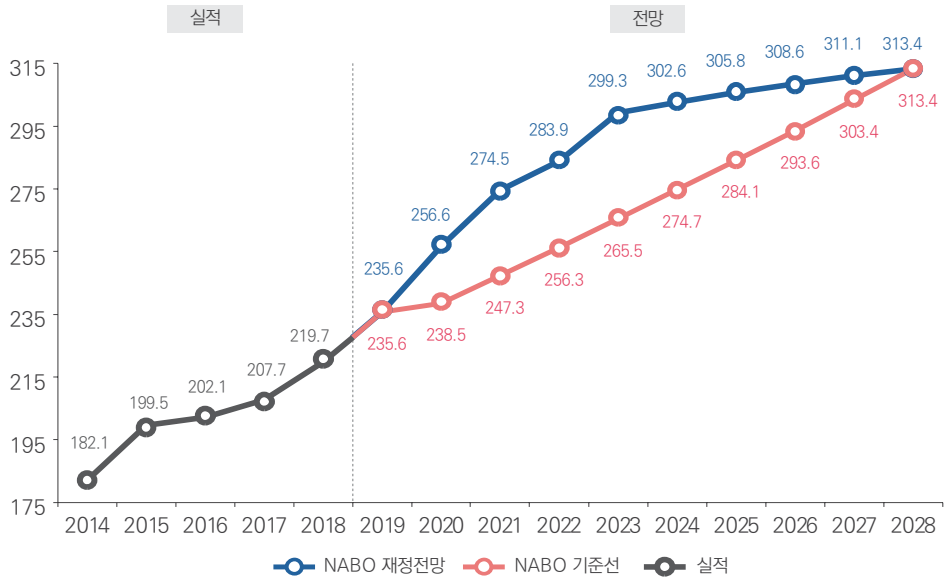
[표 5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235.6	256.6	274.5	283.9	299.3	302.6	305.8	308.6	311.1	313.4	3.2
(GDP 대비 비율)	(12.2)	(12.8)	(13.2)	(13.2)	(13.4)	(13.1)	(12.8)	(12.5)	(12.2)	(11.9)	
NABO 기준선(B)	235.6	238.5	247.3	256.3	265.5	274.7	284.1	293.6	303.4	313.4	3.2
(GDP 대비 비율)	(12.2)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합계
차 이(A-B)	0.0	18.2	27.2	27.6	33.8	28.0	21.7	14.9	7.7	0.0	179.0

[그림 4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4. 재정수지

가. 개 관

재정수지 전망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4.4조원 적자에서 2023년 53.8조원 적자로 증가한 뒤, 2024년부터 감소하여 2028년 44.3조원 적자가 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0.2%에서 2023년 −2.4%까지 낮아진 뒤, 2024년부터 다소 회복하여 2028년 −1.7%가 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45.7조원 적자에서 2023년 94.3조원 적자까지 증가한 뒤, 2024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28년 79.3조원 적자가 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2.4%에서 2023년 −4.2%까지 낮아진 뒤, 2024년부터 다소 회복하여 2028년 −3.0%가 될 전망이다.

[표 53] 「NABO 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3.8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24.7)	(24.8)	(24.9)	(25.0)	(25.1)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4.5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26.9)	(27.0)	(27.0)	(26.9)	(26.7)	
통합재정수지	−4.4	−34.7	−44.8	−47.6	−53.8	−51.4	−52.5	−51.0	−48.4	−44.3	
(GDP 대비 비율)	(−0.2)	(−1.7)	(−2.2)	(−2.2)	(−2.4)	(−2.2)	(−2.2)	(−2.1)	(−1.9)	(−1.7)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1.3	40.2	39.5	39.1	40.5	39.8	36.4	35.0	33.8	35.0	
(GDP 대비 비율)	(2.1)	(2.0)	(1.9)	(1.8)	(1.8)	(1.7)	(1.5)	(1.4)	(1.3)	(1.3)	
관리재정수지	−45.7	−74.8	−84.3	−86.7	−94.3	−91.2	−88.9	−86.0	−82.3	−79.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4.0)	(−3.7)	(−3.5)	(−3.2)	(−3.0)	

나.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전망기간(2019~2028년) 동안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이 감소(2019년 41.3조원에서 2028년 35.0조원)함에 전망기간 동안 적자폭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의 증가는 총수입이 2019년 471.0조원에서 2028년 659.2조원으로 증가(연평균 3.8%)하는 것에 비해 동 기간 총지출이 2019년 475.4조원에서 2028년 703.5조원으로 더 빠르게 증가(연평균 4.5%)함에 기인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313.7조원 더 큰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 간 통합재정수지의 격차는 2020년 −27.6조원에서 2023년 −46.4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2028년 −20.5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019~2028년 동안 기준선보다 NABO 재정전망이 낮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준선과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전망기간 동안 총수입은 기준선 대비 총 54.6조원 감소하고, 총지출은 기준선 대비 총 259.1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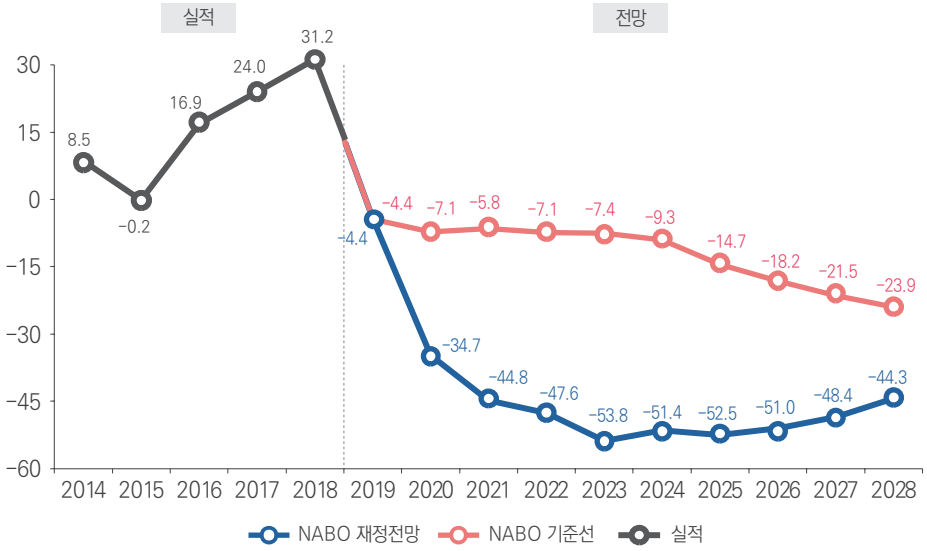
[표 5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3.8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24.7)	(24.8)	(24.9)	(25.0)	(25.1)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4.5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26.9)	(27.0)	(27.0)	(26.9)	(26.7)	
	통합재정수지	−4.4	−34.7	−44.8	−47.6	−53.8	−51.4	−52.5	−51.0	−48.4	−44.3	
	(GDP 대비 비율)	(−0.2)	(−1.7)	(−2.2)	(−2.2)	(−2.4)	(−2.2)	(−2.2)	(−2.1)	(−1.9)	(−1.7)	
NABO 기준선 (B)	총수입	471.0	482.4	505.3	529.6	552.9	575.3	597.7	620.1	643.4	666.1	3.9
	(GDP 대비 비율)	(24.4)	(24.1)	(24.3)	(24.6)	(24.8)	(25.0)	(25.1)	(25.2)	(25.3)	(25.3)	
	총지출	475.4	489.5	511.1	536.8	560.3	584.6	612.4	638.3	664.9	690.0	4.2
	(GDP 대비 비율)	(24.6)	(24.5)	(24.6)	(24.9)	(25.1)	(25.4)	(25.7)	(25.9)	(26.1)	(26.2)	
	통합재정수지	−4.4	−7.1	−5.8	−7.1	−7.4	−9.3	−14.7	−18.2	−21.5	−23.9	
	(GDP 대비 비율)	(−0.2)	(−0.4)	(−0.3)	(−0.3)	(−0.3)	(−0.4)	(−0.6)	(−0.7)	(−0.8)	(−0.9)	
												합계
차 이 (A−B)	총수입	0.0	−5.3	−6.0	−5.7	−6.0	−5.8	−6.0	−6.3	−6.7	−6.9	−54.6
	총지출	0.0	22.3	33.1	34.7	40.5	36.4	31.8	26.5	20.3	13.6	259.1
	통합재정수지	0.0	−27.6	−39.0	−40.4	−46.4	−42.1	−37.8	−32.9	−27.0	−20.5	−313.7

[그림 4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다.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48]는 2019년 −45.7조원에서 2028년 −79.3조원으로 적자폭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며, GDP 대비 비율도 2019년 −2.4%에서 2028년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적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총수입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3.7%)보다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증가(연평균 증가율 4.0%)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48)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되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가 본격화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보험료수입이 계속 누적되어 큰 폭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를 양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관리재정수지를 정부 재정건전성의 척도로 적용하고 있다.

[표 5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수입	381.1	382.3	400.2	420.6	439.5	458.0	475.8	493.4	511.9	529.8	3.7
	(GDP 대비 비율)	(19.7)	(19.1)	(19.3)	(19.6)	(19.7)	(19.9)	(19.9)	(20.0)	(20.1)	(20.1)	
	총지출	426.8	457.1	484.5	507.3	533.8	549.2	564.7	579.4	594.1	609.1	4.0
	(GDP 대비 비율)	(22.1)	(22.8)	(23.3)	(23.6)	(23.9)	(23.8)	(23.7)	(23.5)	(23.3)	(23.2)	
	관리재정수지	−45.7	−74.8	−84.3	−86.7	−94.3	−91.2	−88.9	−86.0	−82.3	−79.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4.0)	(−3.7)	(−3.5)	(−3.2)	(−3.0)	
NABO 기준선 (B)	총수입	381.1	387.5	406.2	426.4	445.5	463.8	481.7	499.8	518.6	536.7	3.9
	(GDP 대비 비율)	(19.7)	(19.4)	(19.5)	(19.8)	(20.0)	(20.1)	(20.2)	(20.3)	(20.4)	(20.4)	
	총지출	426.8	434.8	451.5	472.6	493.4	512.9	532.9	552.9	573.8	595.6	3.8
	(GDP 대비 비율))	(22.1)	(21.7)	(21.7)	(22.0)	(22.1)	(22.2)	(22.3)	(22.4)	(22.5)	(22.6)	
	관리재정수지	−45.7	−47.3	−45.3	−46.3	−47.9	−49.1	−51.1	−53.2	−55.3	−58.8	
	(GDP 대비 비율)	(−2.4)	(−2.4)	(−2.2)	(−2.2)	(−2.2)	(−2.1)	(−2.1)	(−2.2)	(−2.2)	(−2.2)	
												합계
차 이 (A−B)	총수입	0.0	−5.3	−6.0	−5.7	−6.0	−5.8	−6.0	−6.3	−6.7	−6.9	−54.6
	총지출	0.0	22.3	33.1	34.7	40.5	36.4	31.8	26.5	20.3	13.6	259.1
	관리재정수지	0.0	−27.6	−39.0	−40.4	−46.4	−42.1	−37.8	−32.9	−27.0	−20.5	−3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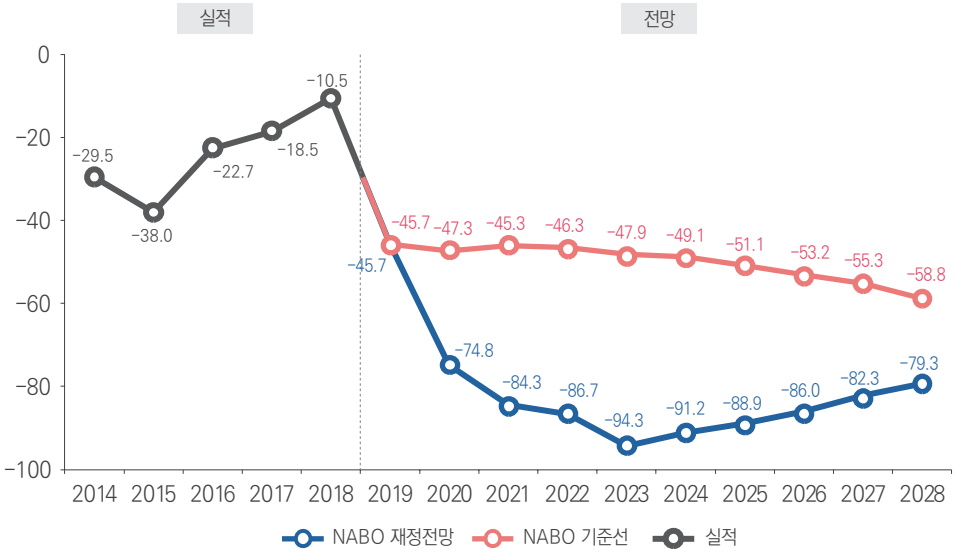
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사회보장성기금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관리재정수지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9~2028년) 간 총 313.7조원 낮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 간 관리재정수지의 격차는 2020년 −27.6조원에서 2023년 −46.4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2028년 −20.5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19~2028년 동안 기준선보다 NABO 재정전망이 낮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준선과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전망기간 동안 총수입은 기준선 대비 총 54.6조원 감소하고, 총지출은 기준선 대비 총 259.0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림 4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019년 41.3조원에서 2028년 35.0조원으로 감소하고 GDP 대비 비율도 동 기간 2.1%에서 1.3%로 감소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동 기간 89.9조원에서 129.4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은 동 기간 48.6조원에서 94.4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수입의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4.1%)보다 지출의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7.6%)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재정전망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준선과 동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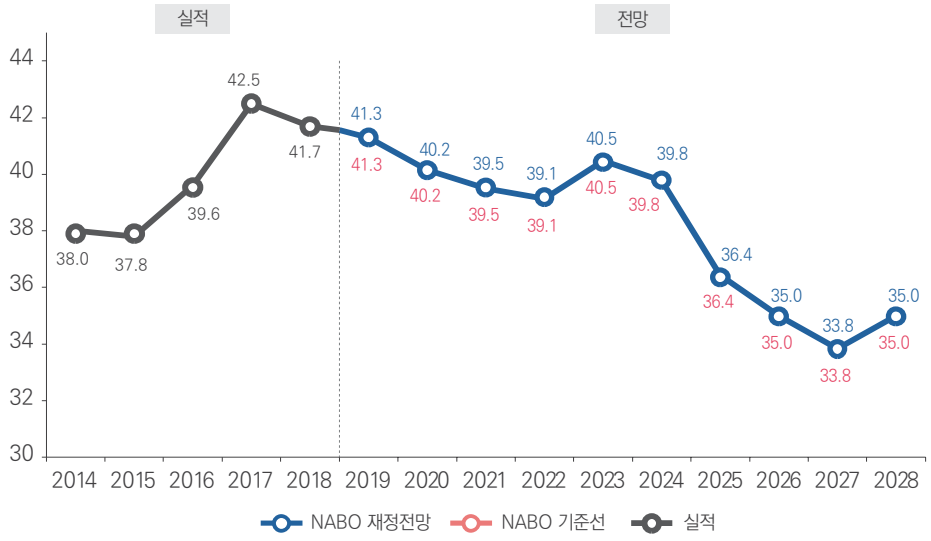
[표 56]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수 입	89.9	94.9	99.1	103.3	107.4	111.5	116.0	120.4	124.9	129.4	4.1
(GDP 대비 비율)	(4.7)	(4.7)	(4.8)	(4.8)	(4.8)	(4.8)	(4.9)	(4.9)	(4.9)	(4.9)	
지 출	48.6	54.8	59.6	64.1	67.0	71.7	79.5	85.4	91.0	94.4	7.6
(GDP 대비 비율)	(2.5)	(2.7)	(2.9)	(3.0)	(3.0)	(3.1)	(3.3)	(3.5)	(3.6)	(3.6)	
수 지	41.3	40.2	39.5	39.1	40.5	39.8	36.4	35.0	33.8	35.0	
(GDP 대비 비율)	(2.1)	(2.0)	(1.9)	(1.8)	(1.8)	(1.7)	(1.5)	(1.4)	(1.3)	(1.3)	

[그림 4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사회보장성기금을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수지는 2019년 41.0조원에서 2028년 31.3조원으로 전망기간 동안 흑자가 지속되지만 흑자폭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지출의 경우 연금수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9년 23.8조원에서 2028년 58.0조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입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49]되면서 2019년 64.7조원에서 2028년 89.4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표 57] 「NABO 재정전망」: 국민연금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수 입	64.7	67.2	69.6	72.3	74.9	77.4	80.3	83.3	86.3	89.4	3.6
(GDP 대비 비율)	(3.3)	(3.4)	(3.4)	(3.4)	(3.4)	(3.4)	(3.4)	(3.4)	(3.4)	(3.4)	
지 출	23.8	27.4	31.2	34.8	37.3	41.1	47.5	52.1	56.3	58.0	10.4
(GDP 대비 비율)	(1.2)	(1.4)	(1.5)	(1.6)	(1.7)	(1.8)	(2.0)	(2.1)	(2.2)	(2.2)	
수 지	41.0	39.7	38.5	37.5	37.6	36.3	32.8	31.2	30.0	31.3	
(GDP 대비 비율)	(2.1)	(2.0)	(1.9)	(1.7)	(1.7)	(1.6)	(1.4)	(1.3)	(1.2)	(1.2)	

사학연금수지는 2019년 0.5조원 흑자에서 2020년 0.1조원 적자[50]로 전환된 뒤, 점차 적자폭이 증가되어 2028년 0.8조원 적자가 될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가입자 수 증가 및 기준소득월액 상승으로 2019년 5.0조원에서 2028년 7.0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전망인 반면, 지출은 연금수급자 수 증가 등으로 동 기간 4.4조원에서 2028년 7.8조원으로 연평균 6.4%로 증가함에 따라 지출이 수입을 추월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표 58] 「NABO 재정전망」: 사학연금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수 입	5.0	5.0	5.3	5.5	5.8	6.0	6.3	6.5	6.7	7.0	3.8
(GDP 대비 비율)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지 출	4.4	5.1	5.4	5.8	6.0	6.3	6.7	7.0	7.4	7.8	6.4
(GDP 대비 비율)	(0.2)	(0.3)	(0.3)	(0.3)	(0.3)	(0.3)	(0.3)	(0.3)	(0.3)	(0.3)	
수 지	0.5	−0.1	−0.2	−0.2	−0.2	−0.3	−0.4	−0.5	−0.6	−0.8	
(GDP 대비 비율)	(0.03)	(−0.00)	(−0.01)	(−0.01)	(−0.01)	(−0.01)	(−0.02)	(−0.02)	(−0.03)	(−0.03)	

49) 2016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인구(15~60세) 중 주요 가입연령인 20~60세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7년 이후 가입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50) 본 보고서의 사학연금수지는 사학연금기금과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뒤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국고로 지원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약 1조원)을 포함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는 흑자가 된다.

고용보험수지는 2019년 1.7조원 적자에서 2023년 0.6조원 흑자로 전환된 뒤, 2028년까지 1.4조원까지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기금 수입의 경우, 정부가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함에 따라 2019년 11.7조원에서 2028년 20.1조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2019년 13.4조원에서 2028년 18.7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하여 수입에 비해 지출이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표 59] 「NABO 재정전망」: 고용보험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수 입	11.7	13.8	14.6	15.4	16.3	17.1	17.9	18.7	19.4	20.1	6.2
(GDP 대비 비율)	(0.6)	(0.7)	(0.7)	(0.7)	(0.7)	(0.7)	(0.7)	(0.8)	(0.8)	(0.8)	
지 출	13.4	15.2	15.7	15.9	15.6	15.9	16.5	17.2	17.8	18.7	3.8
(GDP 대비 비율)	(0.7)	(0.8)	(0.8)	(0.7)	(0.7)	(0.7)	(0.7)	(0.7)	(0.7)	(0.7)	
수 지	−1.7	−1.4	−1.0	−0.4	0.6	1.2	1.3	1.5	1.6	1.4	
(GDP 대비 비율)	(−0.09)	(−0.07)	(−0.05)	(−0.02)	(0.03)	(0.05)	(0.06)	(0.06)	(0.06)	(0.05)	

산재보험수지는 2019년 2.5조원에서 2028년 3.0조원으로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적용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보수총액 증가로 2019년 8.5조원에서 2028년 12.9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전망이다. 지출은 2019년 6.0조원에서 2028년 9.9조원으로 연평균 5.7% 증가하여 수입에 비해 증가율이 높지만, 수입 규모에 비해 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표 60] 「NABO 재정전망」: 산재보험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수 입	8.5	8.9	9.5	10.0	10.5	11.0	11.5	12.0	12.5	12.9	4.8
(GDP 대비 비율)	(0.4)	(0.4)	(0.5)	(0.5)	(0.5)	(0.5)	(0.5)	(0.5)	(0.5)	(0.5)	
지 출	6.0	7.0	7.3	7.7	8.0	8.4	8.8	9.2	9.5	9.9	5.7
(GDP 대비 비율)	(0.3)	(0.3)	(0.4)	(0.4)	(0.4)	(0.4)	(0.4)	(0.4)	(0.4)	(0.4)	
수 지	2.5	2.0	2.2	2.3	2.5	2.6	2.7	2.8	2.9	3.0	
(GDP 대비 비율)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5. 국가채무

가. 개 관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고, 중앙정부 채무는 다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성된다. 국가채무는 2019년 734.8조원(GDP 대비 38.0%)에서 1,490.6조원(GDP 대비 56.7%)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동 기간 705.1조원(GDP 대비 36.5%)에서 1,441.4조원(GDP 대비 54.8%)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동 기간 29.7조원(GDP 대비 1.5%)에서 49.2조원(GDP 대비 1.9%)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전망이다.

[표 61]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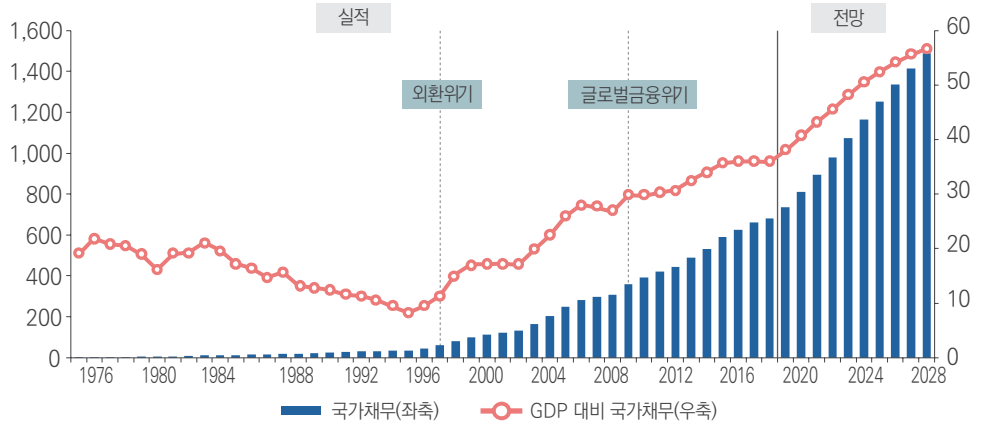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19~'28	'14~'18
국가채무	734.8	811.1	895.5	979.5	1,074.3	1,165.1	1,251.6	1,334.9	1,414.3	1,490.6	8.2	6.3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50.5)	(52.5)	(54.2)	(55.5)	(56.7)		
중앙정부 채무	705.1	779.1	860.8	942.3	1,034.3	1,123.3	1,207.9	1,289.4	1,366.9	1,441.4	8.3	6.7
(GDP 대비 비율)	(36.5)	(38.9)	(41.5)	(43.8)	(46.4)	(48.7)	(50.6)	(52.3)	(53.7)	(54.8)		
지방정부 순채무	29.7	32.0	34.7	37.2	40.0	41.8	43.7	45.5	47.4	49.2	5.8	−1.2
(GDP 대비 비율)	(1.5)	(1.6)	(1.7)	(1.7)	(1.8)	(1.8)	(1.8)	(1.8)	(1.9)	(1.9)		

지난 5년(2014~2018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6.3%)에 비해 향후 10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8.2%)는 빨라질 전망이다.

[그림 44]에서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까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18.4%)보다 GDP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22.1%)가 빨랐기 때문이다. 반면, 1994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국가채무 규모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2015~2018년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약 36%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번 재정전망 기간인 2019~2028년 동안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가장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4]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1973~2028년

(단위: 조원, %)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표 6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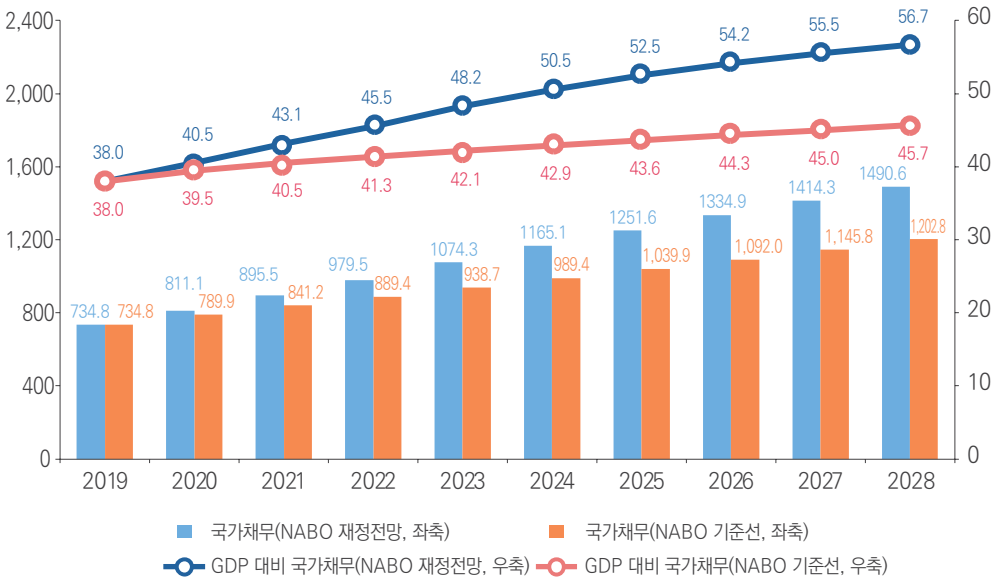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734.8	811.1	895.5	979.5	1,074.3	1,165.1	1,251.6	1,334.9	1,414.3	1,490.6	8.2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50.5)	(52.5)	(54.2)	(55.5)	(56.7)	
NABO 기준선(B)	734.8	788.2	837.8	884.3	933.5	984.1	1,034.5	1,086.5	1,140.2	1,197.1	5.6
(GDP 대비 비율)	(38.0)	(39.4)	(40.4)	(41.1)	(41.9)	(42.7)	(43.4)	(44.1)	(44.8)	(45.5)	
차 이(A-B)	0.0	23.0	57.7	95.2	140.8	181.0	217.1	248.4	274.0	29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전망의 국가채무는 기준선에 비해 2020년 21.3조원에서 점점 누적되어 2028년 287.8조원까지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부터 기준선과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2028년에는 기준선(45.7%)보다 11.0%p 높은 56.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의무지출 추가재정소요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 금액 확대가 NABO 재정전망에 반영됨에 따라 기준선과 총지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차이를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채무에서 차이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림 4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나. 중앙정부 채무

중앙정부 채무는 2019년 705.1조원(GDP 대비 36.5%)에서 2028년 1,441.4조원(GDP 대비 54.8%)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적자성 채무는 2019년 388.9조원(GDP 대비 20.1%)에서 2028년 1,068.3조원(GDP 대비 40.6%)으로 연평균 11.9% 증가하는 반면, 금융성 채무는 2019년 316.2조원(GDP 대비 16.4%)에서 2028년 373.0조원(GDP 대비 14.2%)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전망이다.

이 때, 적자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이 11.9%로 높게 나타난 것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전망기간(2019~2028년) 동안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총지출 증가(연평균 증가율 7.6%)가 총수입 증가(연평균 증가율 4.1%)보다 빠른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채무를 기준선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이 2020년 23.0조원에서 2028년 293.5조원까지 높을 전망이다. 이는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 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차이로 인해 재정전망의 적자성 채무가 커졌기 때문이다.

[표 6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중앙정부 채무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중앙정부 채무	705.1	779.1	860.8	942.3	1,034.3	1,123.3	1,207.9	1,289.4	1,366.9	1,441.4	8.3
	(GDP 대비 비율)	(36.5)	(38.9)	(41.5)	(43.8)	(46.4)	(48.7)	(50.6)	(52.3)	(53.7)	(54.8)	
	적자성 채무	388.9	450.1	521.3	596.7	683.8	765.9	846.1	923.5	997.3	1,068.3	11.9
	(GDP 대비 비율)	(20.1)	(22.5)	(25.1)	(27.7)	(30.7)	(33.2)	(35.5)	(37.5)	(39.2)	(40.6)	
	금융성 채무	316.2	329.0	339.5	345.6	350.5	357.4	361.8	365.9	369.6	373.0	1.9
	(GDP 대비 비율)	(16.4)	(16.4)	(16.4)	(16.1)	(15.7)	(15.5)	(15.2)	(14.8)	(14.5)	(14.2)	
NABO 기준선 (B)	중앙정부 채무	705.1	756.2	803.1	847.1	893.5	942.3	990.8	1,041.0	1,092.9	1,147.9	5.6
	(GDP 대비 비율)	(36.5)	(37.8)	(38.7)	(39.4)	(40.1)	(40.9)	(41.5)	(42.2)	(42.9)	(43.6)	
	적자성 채무	388.9	427.2	463.6	501.5	543.0	584.9	629.0	675.1	723.3	774.9	8.0
	(GDP 대비 비율)	(20.1)	(21.3)	(22.3)	(23.3)	(24.4)	(25.4)	(26.4)	(27.4)	(28.4)	(29.5)	
	금융성 채무	316.2	329.0	339.5	345.6	350.5	357.4	361.8	365.9	369.6	373.0	1.9
	(GDP 대비 비율)	(16.4)	(16.4)	(16.4)	(16.1)	(15.7)	(15.5)	(15.2)	(14.8)	(14.5)	(14.2)	
차 이 (A-B)	중앙정부 채무	0.0	23.0	57.7	95.2	140.8	181.0	217.1	248.4	274.0	293.5	
	적자성 채무	0.0	23.0	57.7	95.2	140.8	181.0	217.1	248.4	274.0	293.5	
	금융성 채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다. 지방정부 순채무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9~2023년까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24~2028년 동안은 지방정부 순채무의 발행 전망액 등을 추계하여 반영한다. 전망 결과,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9년 29.7조원(GDP 대비 1.5%)에서 2028년 49.2조원(GDP 대비 1.9%)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망에서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난 5년(2014~2018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1.2%)과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세 및 지방세 증가세 둔화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등)이 2020년부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 등을 전망기간 동안 추진할 경우(2019~2023년 4.2조 전망, 국토부 추정치) 지방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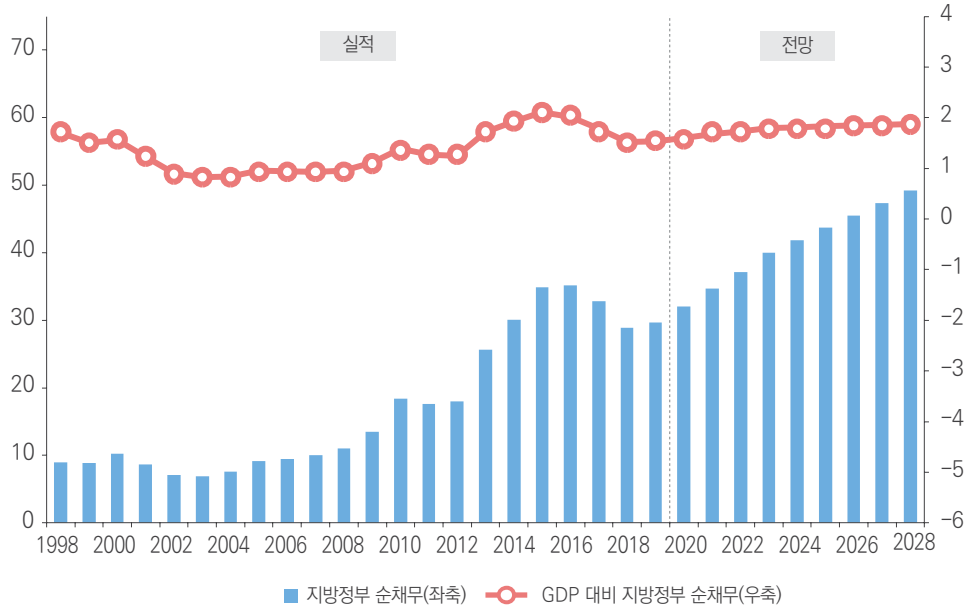
[표 6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지방정부 순채무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19~'28	'14~'18
국가채무	734.8	811.1	895.5	979.5	1,074.3	1,165.1	1,251.6	1,334.9	1,414.3	1,490.6	8.2	6.3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50.5)	(52.5)	(54.2)	(55.5)	(56.7)		
지방정부 순채무	29.7	32.0	34.7	37.2	40.0	41.8	43.7	45.5	47.4	49.2	5.8	−1.2
(GDP 대비 비율)	(1.5)	(1.6)	(1.7)	(1.7)	(1.8)	(1.8)	(1.8)	(1.8)	(1.9)	(1.9)		

[그림 46] 「NABO 재정전망」 지방정부 순채무 추이: 1998~2028년

(단위: 조원, %)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9년부터는 전망치임

Ⅲ.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1.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중기 재정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를 포함한 5개년 간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생활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 등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총지출을 2019년(본예산) 대비 9.3% (+43.9%) 증가한 513.5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상황, 세입여건, 세출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총지출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9.5%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한다. 총수입의 경우 반도체 업황 부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세수 둔화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1.2%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예산안 제출 시 총수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수입 및 지출의 재정운용 목표 증가율이 낮아진 것이다. 총수입은 2019~2023년 동안 연평균 3.9%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지난 계획(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5.2%)에 비해 1.3%p 낮은 수준이다. 총지출도 2019~2023년 동안 연평균 6.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지난 계획(7.3%)에 비해 0.8%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계획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지난 계획(6.7%)에 비해 0.2%p 높은 6.9%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재량지출 규모는 지난 계획에 비해 커졌으며, 총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계획에 비해 높은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지출의 증가가 총수입에 비해 높음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점점 커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1.9%에서

2020년 −3.6%로 −3.0%를 초과한 이후 2023년 −3.9%까지 적자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지난 계획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 −1.6%~−2.9%에 비해 약 1.0%p 적자폭이 커진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는 2019년 GDP 대비 37.1%에서 2021년 42.1%로 40%를 초과한 이후 2023년 46.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표 65]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총수입	476.1	476.4	482.0	505.6	529.2	554.5	3.9	3.9
(전년 대비 증가율)	(6.5)	(6.5)	(1.2)	(4.9)	(4.7)	(4.8)		
총지출	469.6	475.4	513.5	546.8	575.3	604.0	6.5	6.2
(전년 대비 증가율)	(8.5)	(9.9)	(8.0)	(6.5)	(5.2)	(5.0)		
통합재정수지	6.5	1.0	−31.5	−41.3	−46.1	−49.6		
(GDP 대비 비율)	(0.3)	(0.05)	(−1.6)	(−2.0)	(−2.1)	(−2.2)		
관리재정수지	−37.6	−42.3	−72.1	−81.8	−85.6	−90.2		
(GDP 대비 비율)	(−1.9)	(−2.2)	(−3.6)	(−3.9)	(−3.9)	(−3.9)		
국가채무	740.8	731.5	805.5	887.6	970.6	1,061.4	9.4	9.8
(GDP 대비 비율)	(37.1)	(37.2)	(39.8)	(42.1)	(44.2)	(46.4)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

2. NABO 재정전망과 비교

가. 개 관

NABO와 정부가 전망에 적용한 경상GDP성장률을 비교[51]해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성장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3.8%로 증가한 후 2021~2023년간 4.1%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가 전망에 적용한 경상GDP성장률은 2019년 2.1%에서 2020년 3.5%, 2021년 3.7%까지 증가한 뒤, 2022년 이후 3.6%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5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비교는 전망기간이 겹치는 2019~2023년으로 한정한다.

[표 6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성장률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평 균
NABO 재정전망	2.1	3.5	3.7	3.6	3.6	3.3
국가재정운용계획	3.0	3.8	4.1	4.1	4.1	3.8

자료: 1.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
2.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2019.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수입은 2019년 476.4조원(GDP 대비 24.2%)에서 2023년 554.5조원(GDP 대비 24.2%)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3.8%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0.1%p 낮음에 따라, 5년(2019~2023년) 간 총 29.2조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을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은 2019년 475.4조원(GDP 대비 24.2%)에서 2023년 604.0조원(GDP 대비 26.4%)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6.0%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0.2%p 낮음에 따라, 5년(2019~2023년) 간 총 11.4조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을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42.3조원(GDP 대비 −2.2%)에서 2023년 −90.2조원(GDP 대비 −3.9%)으로 점점 적자폭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2023년 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5.7조원(GDP 대비 −2.4%)에서 −94.3조원(GDP 대비 −4.2%)으로 적자폭이 증가함에 따라, 5년(2019~2023년) 간 총 13.8조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는 2019년 731.5조원(GDP 대비 37.2%)에서 2023년 1,061.4조원(GDP 대비 46.4%)으로 연평균 9.8%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734.8조원(GDP 대비 38.0%)에서 2023년 1,074.3조원(GDP 대비 48.2%)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국가채무의 차이는 2019년 3.3조원에서 2023년 12.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6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3.8
	(GDP 대비 비율)	(24.4)	(23.8)	(24.1)	(24.3)	(24.5)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0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통합재정수지	−4.4	−34.7	−44.8	−47.6	−53.8	
	(GDP 대비 비율)	(−0.2)	(−1.7)	(−2.2)	(−2.2)	(−2.4)	
	관리재정수지	−45.7	−74.8	−84.3	−86.7	−94.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국가채무	734.8	811.1	895.5	979.5	1,074.3	10.0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수입	476.4	482.0	505.6	529.2	554.5	3.9
	(GDP 대비 비율)	(24.2)	(23.8)	(24.0)	(24.1)	(24.2)	
	총지출	475.4	513.5	546.8	575.3	604.0	6.2
	(GDP 대비 비율)	(24.2)	(25.4)	(25.9)	(26.2)	(26.4)	
	통합재정수지	1.0	−31.5	−41.3	−46.1	−49.6	
	(GDP 대비 비율)	(0.0)	(−1.6)	(−2.0)	(−2.1)	(−2.2)	
	관리재정수지	−42.3	−72.1	−81.8	−85.6	−90.2	
	(GDP 대비 비율)	(−2.2)	(−3.6)	(−3.9)	(−3.9)	(−3.9)	
	국가채무	731.5	805.5	887.6	970.6	1,061.4	9.8
	(GDP 대비 비율)	(37.2)	(39.8)	(42.1)	(44.2)	(46.4)	
							합계
차 이 (A-B)	총수입	−5.3	−4.7	−6.3	−5.3	−7.5	−29.2
	총지출	0.0	−1.6	−2.7	−3.8	−3.2	−11.4
	통합재정수지	−5.3	−3.2	−3.6	−1.5	−4.3	−17.9
	관리재정수지	−3.3	−2.8	−2.5	−1.1	−4.1	−13.8
	국가채무	3.3	5.6	7.9	8.9	12.9	

주: 1.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전망치, 총지출은 추경예산 기준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2019년 추경예산 기준임

2.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NABO의 자체 전망치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정부의 전망치임. NABO의 경상GDP금액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총수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은 2019년 476.4조원에서 2023년 55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471.0조원에서 2023년 546.9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의 총수입 전망치가 연도별로 −4.7~−7.5조원, 5년 합계 29.2조원 낮을 전망이다. 항목별로 보면, NABO의 국세수입이 5년 합계 21.4조원, 국세외수입이 5년 합계 7.8조원 낮을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 전망에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변수 전망 차이와 세수 전망모형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2019년 294.8조원에서 2023년 336.5조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290.6조원에서 2023년 330.3조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연도별로 −3.3~−6.2조원, 5년 합계 21.4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거시경제전망 차이와 2019년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8월까지 세수실적[52]과 거시경제 변수 실적치를 반영하여 전망한 것 등에 기인한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181.6조원에서 2023년 218.0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180.4조원에서 2023년 216.6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의 국세외수입 전망치가 연도별로 −1.2~−2.4조원, 5년 합계 7.8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및 연금기여금 수입 전망 차이와 거시경제변수 전망 차이 등에 기인한다.

52) 2019년 국세수입 전망의 기초가 되는 국세수입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1~8월까지 209.5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1.7%) 감소하였다. 월별 전년 동월대비 세수증가율은 2월 이후 −1.7~−0.3% 하회하는 세수부진이 8월까지 지속되고 있다.

[표 6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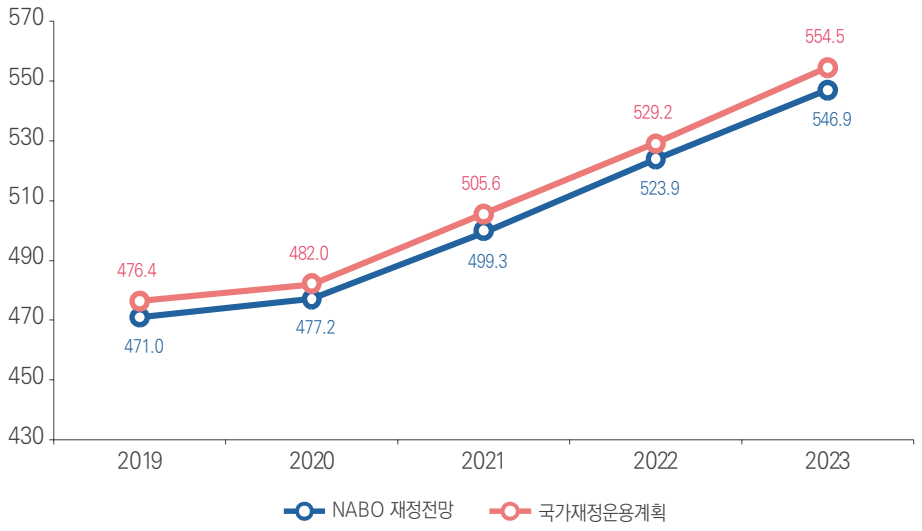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3.8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3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4.7
	기금수입	153.7	161.6	169.8	177.7	185.7	4.9
	국세탄성치	−0.48	−0.18	1.15	1.43	1.20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수입	476.4	482.0	505.6	529.2	554.5	3.9
	국세수입	294.8	292.0	304.9	320.5	336.5	3.4
	국세외수입	181.6	189.9	200.6	208.6	218.0	4.7
	기금수입	154.7	162.1	171.7	178.6	187.5	4.9
	국세탄성치	0.14	−0.25	1.08	1.25	1.21	
							합계
차 이 (A-B)	총수입	−5.3	−4.7	−6.3	−5.3	−7.5	−29.2
	국세수입	−4.2	−3.3	−3.9	−3.9	−6.2	−21.4
	국세외수입	−1.2	−1.5	−2.4	−1.4	−1.3	−7.8
	기금수입	−1.0	−0.5	−1.8	−0.9	−1.8	−6.0
	국세탄성치	−0.6	0.1	0.1	0.2	0.0	

주: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전망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주: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전망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총수입

대 상	주요 요인
총수입	○ 전망의 기초가 되는 경제 전망의 차이 – 2019~2023년 동안 NABO 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매년 경상GDP 성장률을 0.3~1.1%p 낮게 전망(연평균 기준 0.5%p) ○ 세수 전망 모형 차이

다. 총지출

(1) 개 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은 2019년 475.4원에서 2023년 604.0조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475.4조원에서 2023년 600.8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은 연도별로 −1.6~−3.8조원, 5년(2019~2023년) 간 총 11.4조원 낮을 전망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2019~2023년) 간 총 4.7조원 낮고, 재량지출은 NABO 재정전망이 5년(2019~2023년) 간 총 6.7조원 낮을 전망이다. 의무지출에서 발생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인구 및 거시경제 변수 차이, 세수전망 차이로 인한 지방이전재원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국세수입 규모에 연동되어 결정되는데, NABO의 국세수입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낮게 전망됨에 따라 지방이전재원 전망결과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NABO는 2019~2023년 동안 재량지출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에도 5년(2019~2023년) 간 총 6.7조원 낮을 전망이다. 이는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 중 의무지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요건심사형)[53]를 NABO는 의무지출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개정안[54]의 내용에 따르면

5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2019.9.16.)
5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2019.9.9.)

의무지출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 공익형직불제에 대해서도 NABO는 의무지출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량지출에서 NABO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는 NABO가 국민취업지원제도(요건심사형) 및 공익형직불제를 재량지출에서 차감하여 의무지출로 재분류한 것에 기인한다.

[표 7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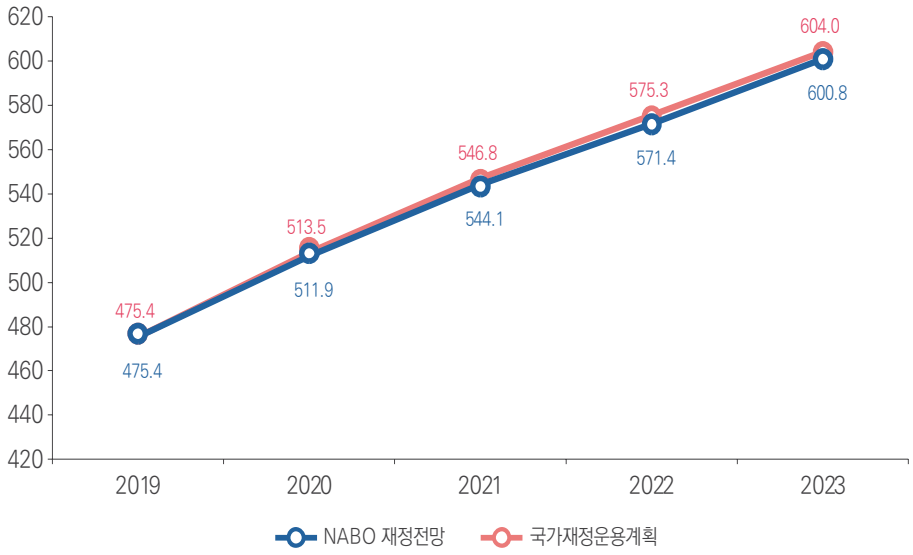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0
	(GDP 대비 비율)	(24.6)	(25.6)	(26.2)	(26.6)	(27.0)	
	의무지출	239.8	255.2	269.6	287.6	301.5	5.9
	(총지출 대비 비율)	(50.4)	(49.9)	(49.6)	(50.3)	(50.2)	
	재량지출	235.6	256.6	274.5	283.9	299.3	6.2
	(총지출 대비 비율)	(49.6)	(50.1)	(50.4)	(49.7)	(49.8)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지출	475.4	513.5	546.8	575.3	604.0	6.2
	(GDP 대비 비율)	(24.2)	(25.4)	(25.9)	(26.2)	(26.4)	
	의무지출	239.8	255.6	270.7	289.5	302.8	6.0
	(총지출 대비 비율)	(50.4)	(49.8)	(49.5)	(50.3)	(50.1)	
	재량지출	235.6	257.8	276.1	285.8	301.3	6.3
	(총지출 대비 비율)	(49.6)	(50.2)	(50.5)	(49.7)	(49.9)	
							합계
차 이 (A-B)	총지출	0.0	−1.6	−2.7	−3.8	−3.2	−11.4
	의무지출	0.0	−0.4	−1.1	−1.9	−1.3	−4.7
	재량지출	0.0	−1.2	−1.6	−1.9	−2.0	−6.7

주: 1. 2019년은 추경예산
2.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NABO의 자체 전망치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정부의 전망치임. NABO의 경상GDP금액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의무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19년 239.8조원에서 302.8조원으로 연평균 6.0%로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239.8조원에서 2023년 301.5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은 연도별로 −0.4~−1.9조원, 5년(2019~2023년) 간 총 4.7조원 낮을 전망이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의무지출은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5.4조원)과 지방이전재원(−4.8조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의무지출	239.8	255.2	269.6	287.6	301.5	5.9
	복지분야 의무지출	107.2	120.9	129.9	138.7	146.7	8.2
	지방이전재원	111.5	110.4	114.2	121.4	125.2	2.9
	이자지출	15.9	16.9	18.0	19.9	21.8	8.1
	기타 의무지출	5.2	7.0	7.5	7.6	7.8	10.8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의무지출	239.8	255.6	270.7	289.5	302.8	6.0
	복지분야 의무지출	107.2	120.2	130.5	140.7	150.2	8.8
	지방이전재원	111.5	111.6	116.3	121.9	126.2	3.1
	이자지출	15.9	17.9	19.6	20.5	20.2	6.1
	기타 의무지출	5.2	5.9	4.4	6.4	6.2	4.5
							합계
차이 (A-B)	의무지출	0.0	−0.4	−1.1	−1.9	−1.3	−4.7
	복지분야 의무지출	0.0	0.7	−0.6	−2.0	−3.5	−5.4
	지방이전재원	0.0	−1.2	−2.1	−0.5	−1.0	−4.8
	이자지출	0.0	−1.0	−1.5	−0.6	1.6	−1.6
	기타 의무지출	0.0	1.1	3.1	1.2	1.6	7.1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복지분야 의무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19년 107.2조원에서 2023년 150.2조원으로 연평균 8.8%로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107.2조원에서 2023년 146.7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과의 차이는 연도별로 −3.5~0.7조원으로, 5년(2019~2023년) 간 총 5.4조원 낮을 전망이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차이(5년간 총 −5.4조원)를 발생시키는 주요 세부내역 중 5년(2019~2023년) 간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상회하는 주요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0.7조원), 기타 복지분야(2.7조원)이 있으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하회하는 주요 항목은 공무원연금(−6.1조원), 기초연금(−2.3조원), 영유아보육(−1.0조원), 아동수당(−1.2조원)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을 개별 항목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7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07.2	120.9	129.9	138.7	146.7	8.2
국가재정운용계획(B)	107.2	120.2	130.5	140.7	150.2	8.8
						합계
차 이(A-B)	0.0	0.7	−0.6	−2.0	−3.5	−5.4

세부항목별 차이

항 목	세부내역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합계
공적연금 (a)	국민연금	0.00	−0.35	0.46	0.24	0.12	0.47
	사학연금	0.00	0.16	0.15	0.13	0.02	0.46
	공무원연금	0.00	0.36	−1.15	−2.24	−3.02	−6.05
	군인연금	0.00	0.08	0.09	0.11	0.13	0.41
	소 계	0.00	0.25	−0.45	−1.76	−2.74	−4.70
사회보험 (b)	건강보험	0.00	0.02	0.28	0.29	−0.19	0.40
	노인장기요양보험	0.00	0.10	0.11	0.03	−0.10	0.13
	고용보험	0.00	−0.36	0.38	0.43	0.29	0.75
	산재보험	0.00	0.12	−0.01	−0.14	−0.33	−0.36
	소 계	0.00	−0.13	0.77	0.62	−0.33	0.92
공공부조 (c)	국민기초생활보장	0.00	0.25	−0.28	−0.03	0.73	0.67
	기초연금	0.00	0.19	−0.75	−0.81	−0.88	−2.26
	영유아보육	0.00	−0.02	−0.18	−0.37	−0.49	−1.06
	아동수당	0.00	0.01	−0.20	−0.41	−0.60	−1.20
	장애수당(기초)	0.00	0.00	0.00	0.00	0.00	−0.01
	장애인연금	0.00	0.00	−0.05	−0.12	−0.20	−0.37
	소 계	0.00	0.43	−1.47	−1.74	−1.44	−4.22
기타 복지분야 (d)	보 훈	0.00	0.01	0.04	0.07	0.10	0.22
	기타 복지	0.00	0.13	0.55	0.81	0.93	2.42
	소 계	0.00	0.14	0.59	0.88	1.04	2.65
차이 합계(a+b+c+d)		0.00	0.69	−0.56	−2.01	−3.47	−5.35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상회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19년 12.0조원에서 2023년 15.3조원으로 5년간 총 69.8조원(연평균 6.2%)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12.0조원에서 2023년 16.1조원으로 5년간 총 70.5조원(연평균 7.5%)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과의 차이는 5년(2019~2023년) 간 총 0.7조원 높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차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급여항목인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로 구분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생계급여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3.8조원에서 2023년 5.7조원으로 5년간 총 24.7조원(연평균 10.9%)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3.8조원에서 2023년 5.1조원으로 5년간 총 22.7조원(연평균 7.8%)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간 총 1.9조원(3.1%p) 하회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는 추계인구(수급대상자 수),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 대상자 증가규모에 대한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6.4조원에서 2023년 7.7조원으로 5년간 36조원(연평균 4.7%)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6.4조원에서 2023년 8.9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연평균 8.5%)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2조원(3.8%p) 상회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는 추계 인구(수급 대상자 수),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의료급여비 상승률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표 7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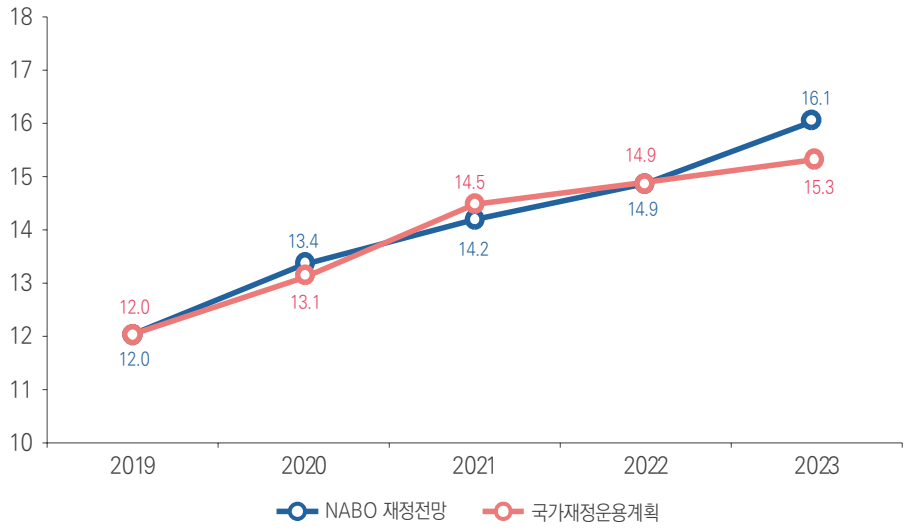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생계급여	NABO 재정전망(A)	3.8	4.4	4.7	4.8	5.1	7.8
	국가재정운용계획(B)	3.8	4.3	5.4	5.5	5.7	10.9
							합계
	차 이(A-B)	0.0	0.1	−0.7	−0.7	−0.6	−1.9
의료급여	NABO 재정전망(A)	6.4	7.0	7.7	8.1	8.9	8.5
	국가재정운용계획(B)	6.4	7.0	7.3	7.5	7.7	4.7
							합계
	차 이(A-B)	0.0	0.0	0.4	0.6	1.2	2.2
국민기초 생활보장	NABO 재정전망(A)	12.0	13.4	14.2	14.9	16.1	7.5
	국가재정운용계획(B)	12.0	13.1	14.5	14.9	15.3	6.2
							합계
	차 이(A-B)	0.0	0.3	−0.3	0.0	0.7	0.7

주: 1. 2019년은 추경예산
2.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모든 급여액을 합한 금액

[그림 4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생활보장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타 복지분야

기타 복지분야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6.5조원에서 2023년 7.6조원으로 5년간 총 35.6조원(연평균 3.8%)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6.5조원에서 2023년 8.6조원으로 5년간 총 38.3조원(연평균 7.2%)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은 5년(2019~2023년) 간 총 2.6조원 높은 수준으로서, 이는 2020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NABO는 기타 복지분야 의무지출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참고로, 의무지출로 분류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5년(2019~2023년) 간 2.4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표 74]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타 복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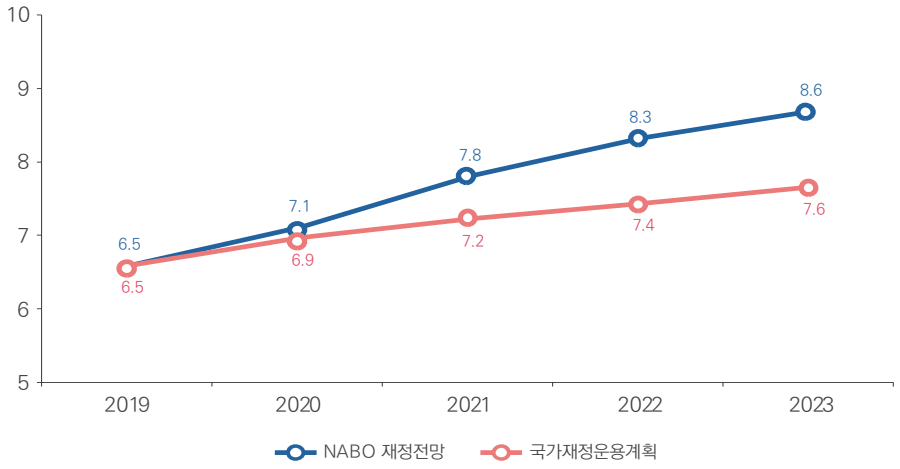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6.5	7.1	7.8	8.3	8.6	7.2
국가재정운용계획(B)	6.5	6.9	7.2	7.4	7.6	3.8
						합계
차 이(A-B)	0.0	0.1	0.6	0.9	1.0	2.6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타 복지분야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하회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

❑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11.5조원에서 2023년 17.1조원으로 5년간 총 72.7조원(연평균 10.4%)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11.5조원에서 2023년 16.2조원으로 5년간 총 70.4조원(연평균 8.9%)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3조원(연평균 1.5%p)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차이는 기준연금액 30만원 인상 적용대상자에 대한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20~40%와 40~70%를 기준연금액 인상 적용대상자로 가정하여 전망하였다. 그러나 NABO 재정전망은 정부 계획 중 2020년 인상 계획만 반영하고, 2021년의 적용대상 확대 계획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2020년 인상 계획의 경우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2021년 인상 계획의 경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계획이 수정될 여지가 있고 관련 개정안도 아직 발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 7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연금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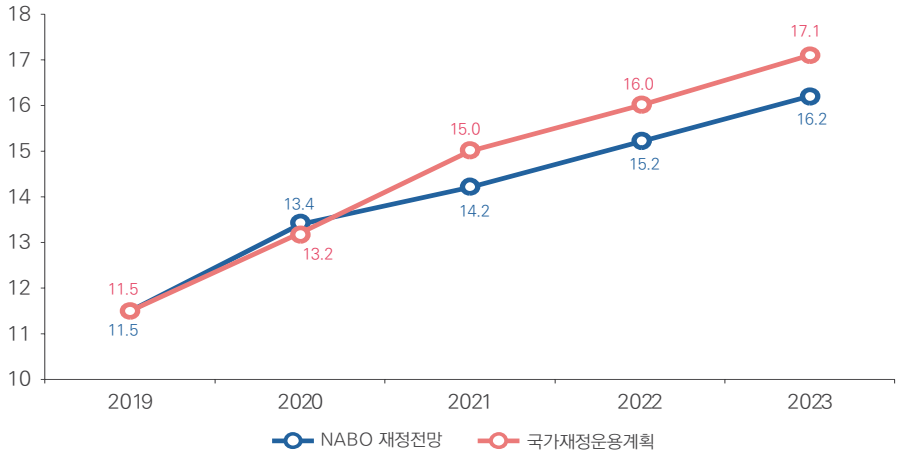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1.5	13.4	14.2	15.2	16.2	8.9
국가재정운용계획(B)	11.5	13.2	15.0	16.0	17.1	10.4
						합계
차 이(A-B)	0.0	0.2	−0.8	−0.8	−0.9	−2.3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연금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2.2조원에서 2023년 2.5조원으로 5년간 총 11.8조원(연평균 3.9%)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2.2조원에서 2023년 1.9조원으로 5년간 총 10.6조원(연평균 −2.9%)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간 총 1.2조원(1%p) 하회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통계청의 2015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하였지만, NABO는 최근의 저출산 현상이 반영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적용함에 따라 더 낮은 출생아 수가 전망에 반영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표 7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아동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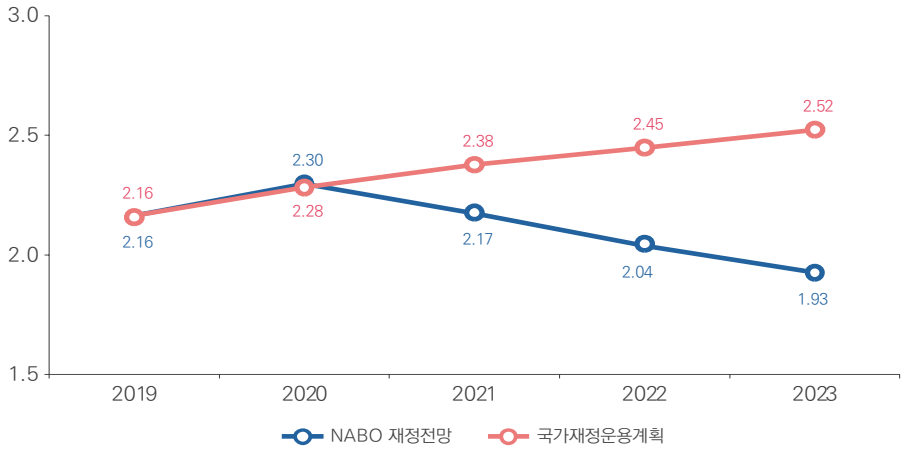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2.16	2.30	2.17	2.04	1.93	−2.86
국가재정운용계획(B)	2.16	2.28	2.38	2.45	2.52	3.91
						합계
차 이(A-B)	0.00	0.01	−0.20	−0.41	−0.60	−1.20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아동수당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무원연금 급여

공무원연금 급여 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16.9조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5년간 총 100.8조원(연평균 9.2% 증가)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16.9조원에서 2023년 21조원으로 5년간 총 94.8조원(연평균 5.6% 증가)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간 총 6.0조원(연평균 3.6%p 차이) 하회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차이는 급여 단가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변수의 격차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퇴직수당과 퇴직자의 첫 연금액 등에 영향을 주는 공무원 임금에 대한 상승률로 보수예산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연도별 보수예산증가율은 2019년 2.7%, 2020년 4.3%, 2021년 이후에는 7%이다. 그러나 NABO 재정전망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는 기 발표된 공무원 임금 상승률(2019년 1.8%, 2020년 2.8%), 2020년 이후에는 명목임금상승률(3.3~3.4%)을 적용하였다. 특히, 2021년 이후에 적용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수예산증가율 7%는 NABO 재정전망의 명목임금상승률 3.3~3.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기수급자의 연금액 인상 시 적용되는 물가상승률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3%로 가정하여 NABO 재정전망의 물가상승률 1.3~1.4%보다 1.6~1.7%p 높았다.

[표 7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공무원연금 급여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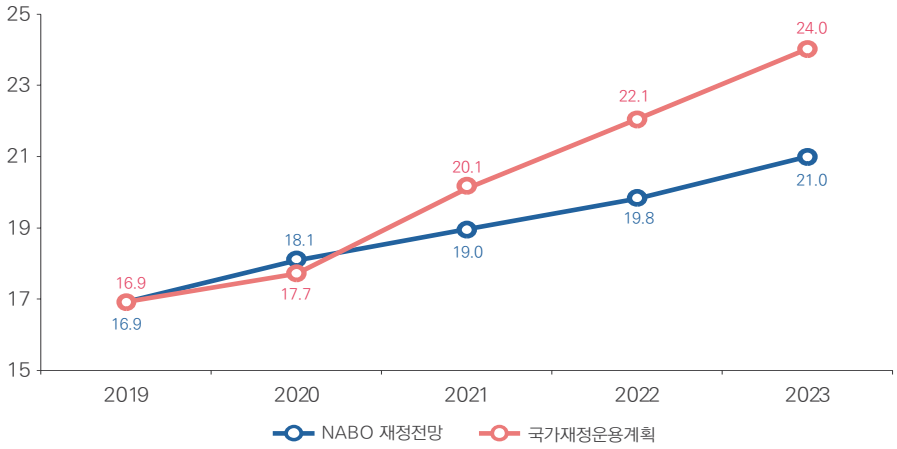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6.9	18.1	19.0	19.8	21.0	5.6
국가재정운용계획(B)	16.9	17.7	20.1	22.1	24.0	9.2
						합계
차 이(A-B)	0.0	0.4	−1.1	−2.2	−3.0	−6.0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공무원연금 급여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복지분야 의무지출

대 상	주요 요인
국민연금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 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지급 단가 등 전망방법 차이
사학연금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 퇴직자 수, 수급자 수 및 급여지급 단가 등 전망방법 차이

55) 「노인장기요양법」 제58조에 따라 국가는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대 상	주요 요인
공무원연금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 성별·직종별·연령별·재직기간별 가입자 수 및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별 수급자 수 및 급여지급 단가 등에 대한 전망방법 차이
군인연금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 계급별 정원 및 기준소득월액, 전역인원, 연금급여별 수급자 수 및 급여지급 단가 등에 대한 전망방법 차이
건강보험	○ 보험료 예상수입액 전망방법 차이(납부자 수, 보수월액 증가율)
고용보험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실업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 전망방법의 차이(수급자 수, 급여의 지원단가 등)
산재보험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취업자수, 명목임금상승률 등) ○ 전망방법의 차이(수급자 수, 급여의 지원단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 전망 차이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은 건강보험료 수입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5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추계인구, 임대료 상승률 적용 등) ○ 수급대상자수에 대한 정부와 NABO의 전망 차이 ○ 급여지급 단가 등에 대한 전망방법 차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급여비 상승률 전망 차이
기초연금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물가상승률) ○ 정부의 기준연금액 반영계획 차이 – NABO는 2020년 소득하위 20~40%에 대한 30만원 인상 반영 – 정부는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대상자 점진적 확대 반영 ○ 통계청 인구 적용시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여부
영유아보육	○ 출산률 가정 등 연령별 대상자 수 전망 차이 ○ 보육료 인상 단가 전망 차이 ○ 통계청 인구 적용시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여부
아동수당	○ 통계청 인구 적용시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여부
보 훈	○ 연령별 대상자 수 전망 차이 ○ 보상금, 수당, 진료비 등 단가 인상 전망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 ○ NABO는 의무지출 중 복지지출로 분류
농업직불금	○ 직불금 개편에 따른 폐지 예상 공익형직불제의 지출 분류 차이 ○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 ○ NABO는 의무지출 중 기타 의무지출로 분류

(나)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111.5조원에서 2023년 126.2조원으로 5년간 총 587.5조원(연평균 3.1%)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111.5조원에서 2023년 125.2조원으로 5년간 총 582.7조원(연평균 2.9%)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차이는 2020년 −1.2조원, 2021년 −2.1조원, 2022년 −0.5조원, 2023년 −1.0조원 등 5년(2019~2023년) 간 총 4.8조원 NABO 재정전망이 하회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방이전재원 추계의 기초가 되는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인 내국세, 담뱃값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하, 내국세 등)의 전망 차이에서 발생한다.[56] NABO 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2019~2023년) 간 21.4조원 낮게 전망됨에 따라 지방이전재원 규모도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 외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이전재원 정산이 있다.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 결산이 확정되면 내국세 등의 예산과 결산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전망에서는 NABO의 내국세 등에 대한 2019년 세입전망과 2019년 세입예산액과의 차이(−4.2조원)로 인해 지방이전재원 정산분 −1.0조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2년 뒤인 2021년에 모두 정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57] 따라서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차이 −2.1조원 중 −1.0조원은 정산으로 인한 차이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발의된 개정안[58]에 따라 2022년까지 현행법이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NABO 재정전망에서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한시법인 점, 정책당국의 재정지원 계획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56)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의 해당하는 금액(보통·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액 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2016년까지는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중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액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년 한시)로 전입한다.

57) 2018년은 정부의 세입예산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을 편성하므로 2018년 세입전망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2019년 이후의 지방이전재원은 각 연도의 세입전망액을 기준으로 지방이전재원을 산출하였으므로 정산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5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수정 의결(2019.8.26.)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표 7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지방이전재원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11.5	110.4	114.2	121.4	125.2	2.9
국가재정운용계획(B)	111.5	111.6	116.3	121.9	126.2	3.1
						합계
차 이(A-B)	0.0	−1.2	−2.1	−0.5	−1.0	−4.8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이자지출

이자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15.9조원에서 2023년 20.2조원으로 5년간 총 94.1조원(연평균 6.1%)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15.9조원에서 2023년 21.8조원으로 5년간 총 92.5조원(연평균 8.1%)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차이는 5년(2019~2023년) 간 총 1.6조원 NABO 재정전망이 하회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한 원인은 이자율 전망 및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차이에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경우, 이번 전망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당해 연도 국가채무에 반영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차이는 국가채무 발행 규모 차이로 이어져 이자지출 차이가 된다. 이자율의 경우 NABO의 금리전망과 정부의 금리전망에 차이가 있어 이자지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표 8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이자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5.9	16.9	18.0	19.9	21.8	8.1
국가재정운용계획(B)	15.9	17.9	19.6	20.5	20.2	6.1
						합계
차 이(A-B)	0.0	−1.0	−1.5	−0.6	1.6	−1.6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5.2조원에서 2023년 6.2조원으로 5년간 총 28.1조원(연평균 4.5%)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5.2조원에서 2023년 7.8조원으로 5년간 총 35.2조원(연평균 10.8%)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차이는 5년(2019~2023년) 간 총 7.1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인은 현행 농업직불금제도가 공익형직불제로 변경되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동 예산액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NABO는 관련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무지출 중 기타 의무지출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익형직불제의 5년(2019~2023년) 간 재정소요액은 총 4.2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8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5.2	7.0	7.5	7.6	7.8	10.8
국가재정운용계획(B)	5.2	5.9	4.4	6.4	6.2	4.5
						합계
차 이(A-B)	0.0	1.1	3.1	1.2	1.6	7.1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8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복지 외 의무지출

대 상	주요 요인
지방이전재원	○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중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담뱃값 개별소비세 전망 차이 ○ 정산분 인식시기 – 2019년 정산분(NABO 전망치와 정부와의 차액)은 「지방교부세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2년 뒤인 2021년에 정산
이자지출	○ 세부 항목별 적용 이자율 차이 ○ 이자지출 전망 방식 차이 ○ NABO 재정전망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액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수신고 등 전망 방식 및 동 채무에 적용하는 이자율 차이 등
기타 의무지출	○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유엔PKO예산분담금 및 기타 의무지출 전망 방식의 차이

(3) 재량지출

재량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235.6조원에서 2023년 301.3조원으로 5년간 총 1,356.6조원(연평균 6.3%)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235.6조원에서 2023년 299.3조원으로 5년간 총 1,350.3조원(연평균 6.2%)이 소요될 전망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간 총 6.7조원 하회할 전망이다.

NABO가 2019~2023년간 재량지출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에도 5년간 총 6.7조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요건심사형)와 공익형직불제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를 NABO의 경우 의무지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8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235.6	256.6	274.5	283.9	299.3	6.2
국가재정운용계획(B)	235.6	257.8	276.1	285.8	301.3	6.3
						합계
차 이(A - B)	0.0	−1.2	−1.6	−1.9	−2.0	−6.7

주: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량지출을 성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은 2019년 47.3조원(재량지출 대비 20.1%)에서 56.4조원(재량지출 대비 18.7%)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5년(2014~2018년) 간 경직성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8%)과 비교하면 1.7%p로 높은 증가율이다.

경직성 재량지출 중 인건비는 공무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2019년 23.5조원에서 2023년 30.0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방비와 함께 재량지출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방비의 경우 동 기간 44.0조원(재량지출 대비 18.7%)에서 56.5조원(재량지출 대비 18.7%)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5년(2014~2018년) 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5.0%)과 비교하면 1.4%p 높은 증가율이다.

경직성 재량지출과 국방비를 제외한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경우 동 기간 144.3조원(재량지출 대비 61.3%)에서 188.4조원(재량지출 대비 62.5%)으로 연평균 6.9%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5년(2014~2018년) 간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2%)과 비교하면 3.7%p 높은 증가율이다.

[표 84]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총량(성질별)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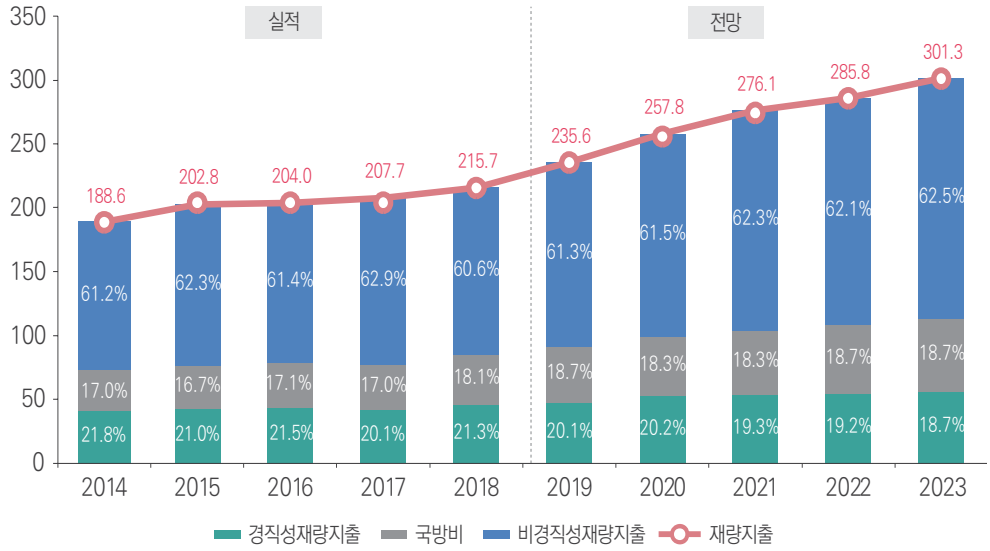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1)]	235.6	257.8	276.1	285.8	301.3	6.3
(GDP 대비 비율)	(12.0)	(12.7)	(13.1)	(13.0)	(13.2)	
경직성 재량지출	47.3	52.1	53.4	54.8	56.4	4.5
(재량지출 대비 비율)	(20.1)	(20.2)	(19.3)	(19.2)	(18.7)	
- 인건비	23.5	24.5	26.2	28.1	30.0	6.3
(경직성 재량지출 대비 비율)	(49.7)	(47.1)	(49.2)	(51.2)	(53.2)	
- 기본경비 등	23.8	27.5	27.1	26.8	26.4	2.6
(경직성 재량지출 대비 비율)	(50.3)	(52.9)	(50.8)	(48.8)	(46.8)	
국방비	44.0	47.2	50.6	53.5	56.5	6.4
(재량지출 대비 비율)	(18.7)	(18.3)	(18.3)	(18.7)	(18.7)	
비경직성 재량지출	144.3	158.5	172.2	177.5	188.4	6.9
(재량지출 대비 비율)	(61.3)	(61.5)	(62.3)	(62.1)	(62.5)	

주: 1) 2018~2022년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이고, 2020~2022년은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재량지출에 포함되었던 금액을 비경직성 경비에서 제외함
1. 2019년은 추경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54]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질별 재량지출 추이: 2014~2023년

(단위: 조원)



주: 1. 2014년~2018년은 예산 기준이고, 2019년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임
2. 경직성 경비와 국방비, 비경직성 경비의 각 값들은 재량지출 대비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표 8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재량지출

대 상	주요 요인
재량지출	○ 정부와 NABO의 의무지출 분류 항목 차이로 인해 재량지출 금액 차이 발생 –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익형직불제를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지만, NABO는 의무지출로 분류

라. 재정수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0조원(GDP 대비 0.05%) 흑자에서 2023년 49.6조원(GDP 대비 −2.2%)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NABO 재정전망은 동 기간 4.4조원(GDP 대비 −0.2%) 적자에서 53.8조원(GDP 대비 −2.4%) 적자로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통합재정수지의 차이는 2019년 −5.3조원, 2020년 −3.2조원, 2021년 −3.6조원, 2022년 −1.5조원, 2023년 −4.3조원으로 나타난다.

2019년 통합재정수지 차이(−5.3조원)는 NABO의 총수입 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3조원 하회함에 따라 발생한다. 2020년 이후부터는 NABO의 총수입 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019~2023년 동안 4.7~7.5조원 하회하지만, NABO의 총지출 전망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019~2023년 동안 1.6~3.8조원 하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차이보다 완화된 −1.5~5.3조원 차이를 보이게 된다.

[표 8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NABO 재정전망 (A)	−4.4	−34.7	−44.8	−47.6	−53.8	
(GDP 대비 비율)	(−0.2)	(−1.7)	(−2.2)	(−2.2)	(−2.4)	
국가재정운용계획 (B)	1.0	−31.5	−41.3	−46.1	−49.6	
(GDP 대비 비율)	(0.0)	(−1.6)	(−2.0)	(−2.1)	(−2.2)	
						합계
차 이(A-B)	−5.3	−3.2	−3.6	−1.5	−4.3	−17.9

주: 1. 통합재정수지 산출에 적용된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전망치, 총지출은 추경예산 기준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2019년 추경예산 기준임
2.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NABO의 자체 전망치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정부의 전망치임. NABO의 경상GDP금액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42.3조원(GDP 대비 −2.2%)에서 2023년 −90.2조원(GDP 대비 −3.9%)으로 GDP 대비 −3% 수준을 2020년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GDP 대비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NABO 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45.7조원(GDP 대비 −2.4%)에서 2020년 −74.8조원(GDP 대비 −3.7%)으로 GDP 대비 −3.0%를 초과하고 그 이후 연도인 2021년부터 GDP 대비 −4%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는 5년간 총 −13.8조원으로 NABO 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적자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3조원, 2020년 −2.8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1.1조원, 2023년 −4.1조원으로,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클 전망이다.

[표 8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NABO 재정전망 (A)	−45.7	−74.8	−84.3	−86.7	−94.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국가재정운용계획 (B)	−42.3	−72.1	−81.8	−85.6	−90.2	
(GDP 대비 비율)	(−2.2)	(−3.6)	(−3.9)	(−3.9)	(−3.9)	
						합계
차 이(A−B)	−3.3	−2.8	−2.5	−1.1	−4.1	−13.8

주: 1. 관리재정수지 산출에 적용된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전망치, 총지출은 추경예산 기준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2019년 추경예산 기준임
2.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NABO의 자체 전망치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정부의 전망치임. NABO의 경상GDP금액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NABO 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더 적은 이유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NABO 재정전망의 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제외)이 5년간 총 13.6조원 적은데 반해, 총수입(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제외)은 5년간 총 27.4조원 적기 때문이다.

[표 8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381.1	382.3	400.2	420.6	439.5	3.6
	(GDP 대비 비율)	(19.7)	(19.1)	(19.3)	(19.6)	(19.7)	
	총지출	426.8	457.1	484.5	507.3	533.8	5.8
	(GDP 대비 비율)	(22.1)	(22.8)	(23.3)	(23.6)	(23.9)	
	관리재정수지	−45.7	−74.8	−84.3	−86.7	−94.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수입	385.5	386.2	406.2	426.2	447.0	3.8
	(GDP 대비 비율)	(19.6)	(19.1)	(19.3)	(19.4)	(19.5)	
	총지출	427.8	458.3	488.1	511.8	537.2	5.9
	(GDP 대비 비율)	(21.8)	(22.6)	(23.2)	(23.3)	(23.5)	
	관리재정수지	−42.3	−72.1	−81.8	−85.6	−90.2	
	(GDP 대비 비율)	(−2.2)	(−3.6)	(−3.9)	(−3.9)	(−3.9)	
							합계
차 이 (A−B)	총수입	−4.4	−3.9	−6.0	−5.6	−7.5	−27.4
	총지출	−1.0	−1.1	−3.6	−4.5	−3.4	−13.6
	관리재정수지	−3.3	−2.8	−2.5	−1.1	−4.1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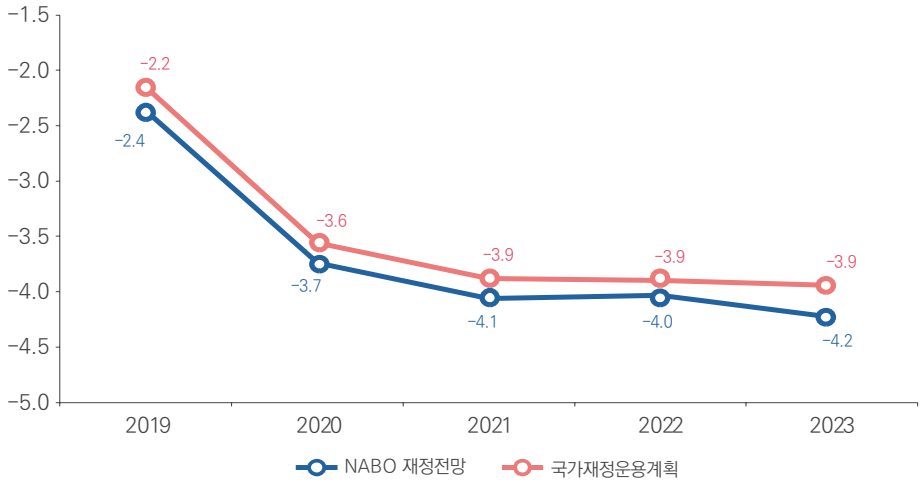
주: 1. 관리재정수지 산출에 적용된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전망치, 총지출은 추경예산 기준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2019년 추경예산 기준임

2. 총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이고, 총지출은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단위: %)



주: 1. 관리재정수지 산출에 적용된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전망치, 총지출은 2019년은 추경예산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9년은 추경예산 기준임

2.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NABO의 자체 전망치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정부의 전망치임. NABO의 경상GDP금액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로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살펴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43.3조원(GDP 대비 2.2%)에서 2023년 40.6조원(GDP 대비 1.8%)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41.3조원(GDP 대비 2.1%)에서 2023년 40.5조원(GDP 대비 1.8%)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차이는 2019년 −2.0조원에서 2023년 −0.2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그 차이도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표 8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수 입	89.9	94.9	99.1	103.3	107.4	4.5
	(GDP 대비 비율)	(4.7)	(4.7)	(4.8)	(4.8)	(4.8)	
	지 출	48.6	54.8	59.6	64.1	67.0	8.3
	(GDP 대비 비율)	(2.5)	(2.7)	(2.9)	(3.0)	(3.0)	
	수 지	41.3	40.2	39.5	39.1	40.5	
	(GDP 대비 비율)	(2.1)	(2.0)	(1.9)	(1.8)	(1.8)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수 입	90.9	95.8	99.3	103.0	107.5	4.3
	(GDP 대비 비율)	(4.6)	(4.7)	(4.7)	(4.7)	(4.7)	
	지 출	47.6	55.2	58.8	63.4	66.8	8.9
	(GDP 대비 비율)	(2.4)	(2.7)	(2.8)	(2.9)	(2.9)	
	수 지	43.3	40.6	40.6	39.5	40.6	
	(GDP 대비 비율)	(2.2)	(2.0)	(1.9)	(1.8)	(1.8)	
차 이 (A−B)							합계
	수 입	−1.0	−0.9	−0.2	0.3	0.0	−1.8
	지 출	1.0	−0.4	0.8	0.7	0.1	2.2
	수 지	−2.0	−0.4	−1.1	−0.4	−0.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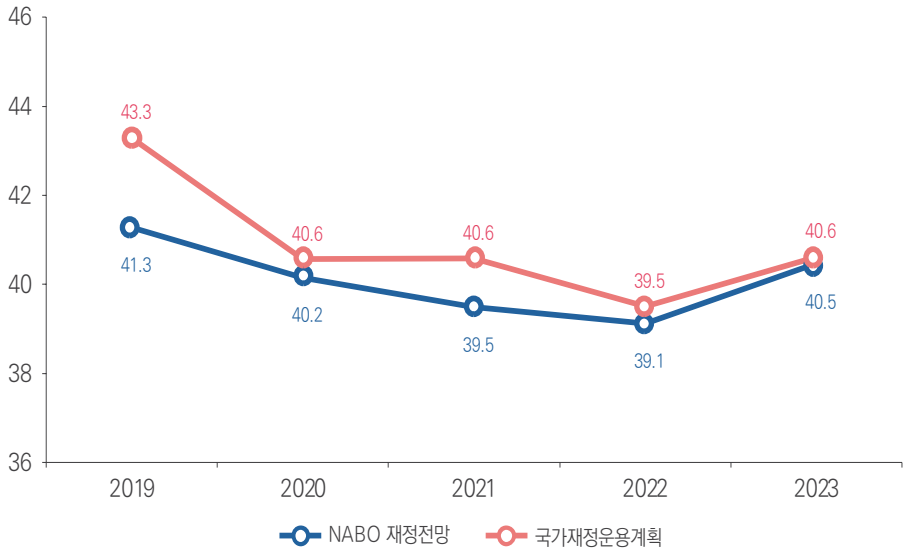
주: 1.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전망치,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은 2019년은 추경예산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9년 수입 및 지출은 추경예산 기준임

2.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NABO의 자체 전망치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정부의 전망치임. NABO의 경상GDP금액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주: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전망치,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은 2019년은 추경예산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9년 수입 및 지출은 추경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국가채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는 2019년 731.5조원(GDP 대비 37.2%)에서 2023년 1,061.4조원(GDP 대비 46.4%)으로 연평균 9.8%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734.8조원(GDP 대비 38.0%)에서 2023년 1,074.3조원(GDP 대비 48.2%)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은 국가채무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국가채무 차이는 2019년 3.3조원에서 2023년 12.9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금액 차이의 연도별 누적치 만큼 증가할 전망이다.[59]

5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2023년 국가채무 차이 12.9조원은 2019~2023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금액 차이 −13.8조원의 약 93% 수준이다. 이는 국가채무 전망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관리재정수지의 일부(86~98.5%)에 대해 일반회계 적자성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의 규모 측면에서는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2019~2023년) 간 총 38.7조원 높을 전망이다. GDP 대비 비율 측면에서도 NABO 재정전망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8.0%, 2023년 48.2%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매년 0.8~1.8%p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차이는 NABO와 정부의 경상GDP전망액(경상GDP성장률)차이에서도 발생하는데, NABO의 경상GDP전망액이 정부에 비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할 경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차이는 전망기간 동안 0.2~0.6%p 차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9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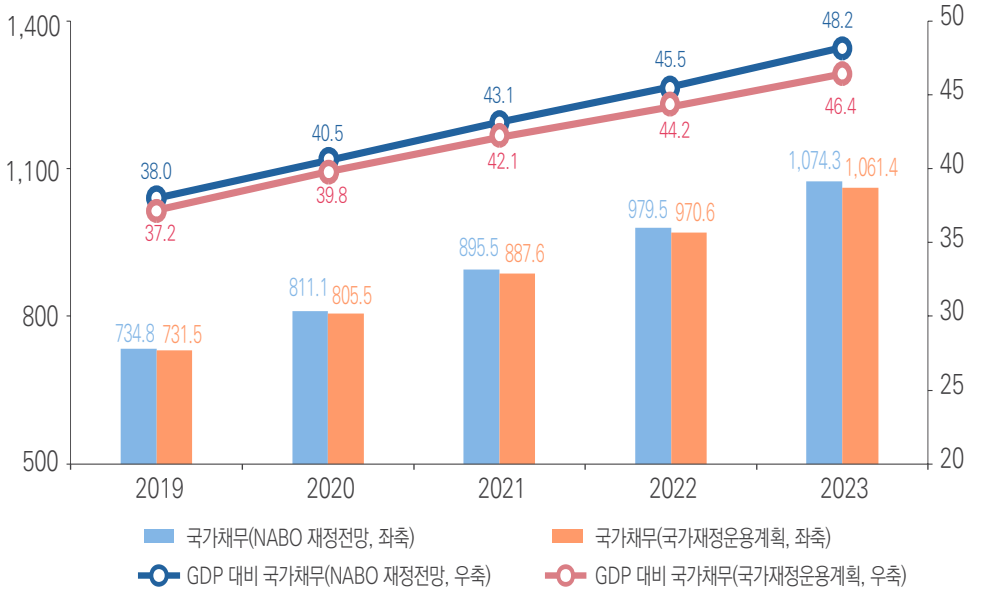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734.8	811.1	895.5	979.5	1,074.3	10.0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국가재정운용계획(B)	731.5	805.5	887.6	970.6	1,061.4	9.8
(GDP 대비 비율)	(37.2)	(39.8)	(42.1)	(44.2)	(46.4)	
						합계
차 이(A-B)	3.3	5.6	7.9	8.9	12.9	38.7

주: 1.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국가채무는 2019년 말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에 NABO와 정부의 총수입 전망치 차이에서 발생하는 관리재정수지 차이 반영하여 전망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9년은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
3.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NABO의 자체 전망치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정부의 전망치임. NABO의 경상GDP금액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주: 1. 2019년 NABO 재정전망의 국가채무는 2019년 말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에 NABO와 정부의 총수입 전망치 차이에서 발생하는 관리재정수지 차이 반영하여 전망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9년은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

3.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NABO의 자체 전망치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금액은 정부 전망치임. NABO의 경상GDP금액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 록

NABO 재정전망의 주요 경제 · 인구변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경제변수										
경상GDP성장률(%)	2.1	3.5	3.7	3.6	3.6	3.4	3.4	3.3	3.3	3.3
(정부) 경상GDP성장률(%)	3.0	3.8	4.1	4.1	4.1	3.8				
실질GDP성장률(%)	2.0	2.3	2.5	2.4	2.4	2.2	2.2	2.1	2.1	2.1
GDP 디플레이터(%)	0.1	1.2	1.2	1.2	1.2	1.2	1.2	1.2	1.2	1.2
실업률(%)	4.0	3.9	3.8	3.9	3.9	3.8	3.8	3.8	3.8	3.8
취업자수 증가율(%)	0.9	0.8	0.8	0.8	0.7	0.4	0.3	0.2	0.2	0.2
소비자물가 상승률(%)	0.6	1.3	1.4	1.4	1.4	1.5	1.5	1.5	1.5	1.5
국고채금리(3년)(%)	1.5	1.4	1.7	1.6	1.6	1.7	1.7	1.7	1.7	1.7
인구변수										
총인구수(만명)	5,171	5,178	5,182	5,185	5,187	5,189	5,191	5,192	5,193	5,194
총인구증가율(%)	0.20	0.14	0.08	0.05	0.04	0.04	0.03	0.03	0.02	0.02
출생아 수(만명)	31	29	29	30	31	32	34	35	36	36
합계출산율(명)	0.94	0.90	0.86	0.90	0.93	0.97	1.00	1.04	1.08	1.11
출생률(인구천명당%)	6.00	5.60	5.60	5.80	6.00	6.20	6.50	6.70	6.90	6.90
0~5세 인구수(만명)	235	222	207	193	184	181	181	184	189	195
0~5세인구비중(%)	4.50	4.30	4.00	3.70	3.60	3.50	3.50	3.50	3.60	3.80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737	768	813	854	897	945	994	1,051	1,111	1,159
65세이상인구비중(%)	14.90	15.70	16.50	17.30	18.20	19.20	20.30	21.40	22.30	23.30
사망자 수(만명)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사망률(인구천명당%)	6.10	6.20	6.40	6.60	6.80	7.00	7.20	7.40	7.50	7.70

NABO 재정전망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총수입	471.0	477.2	499.3	523.9	546.9	569.5	591.7	613.8	636.8	659.2
국세수입	290.6	288.8	301.0	316.6	330.3	343.7	357.0	369.9	383.2	397.1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89.9	94.9	99.1	103.3	107.4	111.5	116.0	120.4	124.9	129.4
총지출	475.4	511.9	544.1	571.4	600.8	621.0	644.2	664.8	685.2	703.5
의무지출	239.8	255.2	269.6	287.6	301.5	318.4	338.4	356.3	374.1	390.2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48.6	54.8	59.6	64.1	67.0	71.7	79.5	85.4	91.0	94.4
복지분야 의무지출	107.2	120.9	129.9	138.7	146.7	156.0	168.5	179.2	189.7	198.2
사회보험	24.0	28.2	30.0	31.9	33.4	35.1	37.2	39.2	40.9	42.8
건강보험	8.7	9.9	10.8	11.8	12.5	13.6	14.7	15.7	16.4	17.2
노인장기요양보험	1.0	1.4	1.6	1.7	1.8	2.0	2.1	2.3	2.4	2.5
고용보험	9.2	11.0	11.4	11.9	12.1	12.3	12.7	13.2	13.7	14.5
산재보험	5.1	6.0	6.3	6.6	7.0	7.3	7.6	8.0	8.3	8.6
공적연금	46.7	52.3	57.3	62.3	66.3	72.0	80.0	86.2	92.5	96.5
국민연금	23.0	26.7	30.4	34.0	36.4	40.2	46.6	51.1	55.3	57.0
사학연금	3.4	4.0	4.3	4.6	4.9	5.2	5.5	5.8	6.2	6.6
공무원연금	16.9	18.1	19.0	19.8	21.0	22.5	23.5	24.7	26.3	28.0
군인연금	3.4	3.5	3.7	3.9	4.1	4.2	4.4	4.6	4.8	5.0
공공부조	29.9	33.3	34.8	36.2	38.3	40.0	42.2	44.3	46.4	48.6
국민기초생활보장	12.0	13.4	14.2	14.9	16.1	16.6	17.3	17.9	18.5	19.2
기초연금	11.5	13.4	14.2	15.2	16.2	17.3	18.5	19.9	21.0	22.3
영유아보육	3.4	3.4	3.3	3.2	3.2	3.3	3.5	3.7	3.9	4.0
아동수당	2.2	2.3	2.2	2.0	1.9	1.9	1.8	1.9	1.9	1.9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장애인연금	0.7	0.8	0.8	0.8	0.8	0.8	1.0	1.0	1.0	1.0
기타 복지분야	6.5	7.1	7.8	8.3	8.6	8.9	9.2	9.6	9.9	10.3
보훈	4.6	4.6	4.7	4.8	4.9	4.9	5.0	5.0	5.1	5.2
기타 복지	1.9	2.4	3.1	3.5	3.8	4.0	4.3	4.5	4.8	5.2
지방이전재원	111.5	110.4	114.2	121.4	125.2	130.6	136.0	141.3	146.7	152.3
이자지출	15.9	16.9	18.0	19.9	21.8	23.7	25.6	27.4	29.1	30.8
기타 의무지출	5.2	7.0	7.5	7.6	7.8	8.0	8.2	8.4	8.6	8.9
재량지출	235.6	256.6	274.5	283.9	299.3	302.6	305.8	308.6	311.1	313.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4.4	−34.7	−44.8	−47.6	−53.8	−51.4	−52.5	−51.0	−48.4	−44.3
(GDP 대비 비율)	(−0.2)	(−1.7)	(−2.2)	(−2.2)	(−2.4)	(−2.2)	(−2.2)	(−2.1)	(−1.9)	(−1.7)
관리재정수지	−45.7	−74.8	−84.3	−86.7	−94.3	−91.2	−88.9	−86.0	−82.3	−79.3
(GDP 대비 비율)	(−2.4)	(−3.7)	(−4.1)	(−4.0)	(−4.2)	(−4.0)	(−3.7)	(−3.5)	(−3.2)	(−3.0)
국가채무	734.8	811.1	895.5	979.5	1,074.3	1,165.1	1,251.6	1,334.9	1,414.3	1,490.6
(GDP 대비 비율)	(38.0)	(40.5)	(43.1)	(45.5)	(48.2)	(50.5)	(52.5)	(54.2)	(55.5)	(56.7)

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기여금과 기타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NABO 기준선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총수입	471.0	482.4	504.6	529.4	552.7	575.5	597.9	620.2	643.4	666.1
국세수입	290.6	293.9	306.3	322.2	336.1	349.7	363.2	376.4	389.9	404.0
국세외수입	180.4	188.4	198.3	207.2	216.6	225.9	234.7	243.8	253.5	262.1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89.9	94.9	99.1	103.2	107.4	111.5	115.9	120.4	124.8	129.4
총지출	475.4	489.5	511.1	536.8	560.3	584.6	612.4	638.3	664.9	690.0
의무지출	239.8	251.1	263.8	280.5	294.8	309.9	328.2	344.7	361.5	376.6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48.6	54.7	59.6	64.1	67.0	71.7	79.5	85.4	91.0	94.4
복지분야 의무지출	107.2	118.9	126.9	134.8	142.2	150.8	162.4	172.3	182.4	190.5
사회보험	24.0	27.4	28.6	30.0	31.0	32.0	33.3	34.6	36.0	37.6
건강보험	8.7	9.3	9.7	10.3	10.6	11.1	11.5	11.9	12.4	12.9
노인장기요양보험	1.0	1.1	1.2	1.3	1.3	1.4	1.4	1.5	1.6	1.7
고용보험	9.2	11.0	11.4	11.8	12.1	12.3	12.7	13.2	13.7	14.5
산재보험	5.1	6.0	6.3	6.6	7.0	7.3	7.6	8.0	8.3	8.6
공적연금	46.7	52.3	57.3	62.3	66.3	72.0	80.0	86.2	92.5	96.5
국민연금	23.0	26.7	30.4	34.0	36.4	40.2	46.6	51.1	55.3	57.0
사학연금	3.4	4.0	4.3	4.6	4.9	5.2	5.5	5.8	6.2	6.6
공무원연금	16.9	18.1	19.0	19.8	21.0	22.5	23.5	24.7	26.3	28.0
군인연금	3.4	3.5	3.7	3.9	4.1	4.2	4.4	4.6	4.8	5.0
공공부조	29.9	32.3	33.8	35.1	37.1	38.7	40.8	42.9	44.9	47.0
국민기초생활보장	12.0	13.3	14.1	14.8	16.0	16.5	17.2	17.8	18.4	19.1
기초연금	11.5	12.5	13.3	14.1	15.1	16.1	17.3	18.5	19.6	20.8
영유아보육	3.4	3.4	3.3	3.2	3.2	3.3	3.5	3.7	3.9	4.0
아동수당	2.2	2.3	2.2	2.0	1.9	1.9	1.8	1.9	1.9	1.9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장애인연금	0.7	0.8	0.8	0.8	0.8	0.8	1.0	1.0	1.0	1.0
기타 복지분야	6.5	6.9	7.2	7.4	7.7	8.0	8.3	8.7	9.0	9.4
보훈	4.6	4.6	4.7	4.8	4.9	4.9	5.0	5.0	5.1	5.2
기타 복지	1.9	2.3	2.5	2.7	2.9	3.1	3.4	3.6	3.9	4.2
지방이전재원	111.5	109.3	113.3	120.7	126.3	131.7	137.2	142.5	147.9	153.6
이자지출	15.9	16.9	17.6	18.7	19.9	20.9	21.9	23.0	24.1	25.2
기타 의무지출	5.2	5.9	6.1	6.2	6.4	6.6	6.7	6.9	7.1	7.3
재량지출	235.6	238.5	247.3	256.3	265.5	274.7	284.1	293.6	303.4	313.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4.4	−7.2	−6.5	−7.4	−7.6	−9.0	−14.5	−18.1	−21.4	−23.9
(GDP 대비 비율)	(−0.2)	(−0.4)	(−0.3)	(−0.3)	(−0.3)	(−0.4)	(−0.6)	(−0.7)	(−0.8)	(−0.9)
관리재정수지	−45.7	−47.3	−46.0	−46.5	−48.1	−48.8	−50.9	−53.1	−55.2	−58.8
(GDP 대비 비율)	(−2.4)	(−2.4)	(−2.2)	(−2.2)	(−2.2)	(−2.1)	(−2.1)	(−2.2)	(−2.2)	(−2.2)
국가채무	734.8	788.2	837.8	884.3	933.5	984.1	1,034.5	1,086.5	1,140.2	1,197.1
(GDP 대비 비율)	(38.0)	(39.4)	(40.4)	(41.1)	(41.9)	(42.7)	(43.4)	(44.1)	(44.8)	(45.5)

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기여금과 기타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수입	476.4	482.0	505.6	529.2	554.5
국세수입	294.8	292.0	304.9	320.5	336.5
국세외수입	181.6	189.9	200.6	208.6	218.0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90.9	95.8	99.3	103.0	107.5
총지출	475.4	513.5	546.8	575.3	604.0
의무지출	239.8	255.6	270.7	289.5	302.8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47.6	55.2	58.8	63.4	66.8
복지분야 의무지출	107.2	120.2	130.5	140.7	150.2
사회보험	24.0	28.4	29.3	31.3	33.7
건강보험	8.7	9.9	10.5	11.5	12.7
노인장기요양보험	1.0	1.3	1.4	1.7	1.9
고용보험	9.2	11.3	11.0	11.4	11.8
산재보험	5.1	5.9	6.3	6.8	7.3
공적연금	46.7	52.0	57.8	64.0	69.1
국민연금	23.0	27.0	29.9	33.7	36.3
사학연금	3.4	3.8	4.1	4.5	4.8
공무원연금	16.9	17.7	20.1	22.1	24.0
군인연금	3.4	3.5	3.6	3.8	3.9
공공부조	29.9	32.8	36.3	37.9	39.7
국민기초생활보장	12.0	13.1	14.5	14.9	15.3
기초연금	11.5	13.2	15.0	16.0	17.1
영유아보육	3.4	3.4	3.5	3.6	3.7
아동수당	2.2	2.3	2.4	2.4	2.5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장애인연금	0.7	0.8	0.9	0.9	1.0
기타 복지분야	6.5	6.9	7.2	7.4	7.6
보훈	4.6	4.6	4.7	4.7	4.8
기타 복지	1.9	2.3	2.5	2.7	2.8
지방이전재원	111.5	111.6	116.3	121.9	126.2
이자지출	15.9	17.9	19.6	20.5	20.2
기타 의무지출	5.2	5.9	4.4	6.4	6.2
재량지출	235.6	257.8	276.1	285.8	301.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1.0	−31.5	−41.3	−46.1	−49.6
(GDP 대비 비율)	(0.0)	(−1.6)	(−2.0)	(−2.1)	(−2.2)
관리재정수지	−42.3	−72.1	−81.8	−85.6	−90.2
(GDP 대비 비율)	(−2.2)	(−3.6)	(−3.9)	(−3.9)	(−3.9)
국가채무	731.5	805.5	887.6	970.6	1,061.4
(GDP 대비 비율)	(37.2)	(39.8)	(42.1)	(44.2)	(46.4)

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기여금과 기타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발간일	2019년 10월 17일
발행인	이 종 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6)

ISBN 978-89-6073-230-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대한민국국회

1919 2019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100주년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72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9-001678-01